국립중앙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도서관

통권 제 387 호 | 2013

문헌에서 만나는 여성 선각자

국립중앙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발간등록번호 11-1370104-000003-08

도서관

통권 제 387 호 | 2013

ISSUE

문헌에서 만나는 여성 선각자



국립중앙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SSN 1011-2073

도서관

통권 제 387 호
2013

ISSUE

문헌에서 만나는 여성 선각자

국립중앙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차례

Ⅰ ISSUE 문헌에서 만나는 여성 선각자

총론 : 조선여성을 둘러싼 담론의 역사 | 6
이숙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혜왕후, 최초의 여성 저술가 | 27
한희숙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16세기 여류문사 송덕봉(宋德峰)의 삶과 성리학적 지향 | 49
이성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17세기 여성CEO 조애중(曹愛重)의 인간경영 | 69
문희순 배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강정일당의 삶과 내조의 글쓰기 | 92
이종묵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여성 철학자 임윤지당 | 113
김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예술학부 교수

안동장씨, 음식으로 도에 이르다 : 최초의 한글조리서 쓴 안동장씨 이야기 | 130
김서령 〈오래된 이야기 연구소〉 대표, 칼럼니스트

Ⅱ 2013년 도서관 기획대담

시대를 앞서간 여성들이 들려주는 삶의 애환과 교훈 | 154
사회 : 이숙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패널 : 조은수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황수연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Ⅲ 2013년도 연구현황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 170
국립중앙도서관 | 17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175
국립장애인도서관 | 176

ISSUE "문헌에서 만나는 여성 선각자"

I

01 _ 총론 : 조선여성을 둘러싼 담론의 역사 · 006

02 _ 소혜왕후, 최초의 여성 저술가 · 027

03 _ 16세기 여류문사 송덕봉(宋德峰)의 삶과 성리학적 지향 · 049

04 _ 17세기 여성CEO 조애중(曹愛重)의 인간경영 · 069

05 _ 강정일당의 삶과 내조의 글쓰기 · 092

06 _ 여성 철학자 임윤지당 · 113

07 _ 안동장씨, 음식으로 도에 이르다 : 최초의 한글조리서 쓴 안동장씨 이야기 · 130

총론 : 조선여성을 둘러싼 담론의 역사

이 숙 인 Lee sook-in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onfemi@snu.ac.kr

01

1. 들어가는 말

2013년 한국은 여성 대통령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5천년의 우리 역사를 통틀어 네 번째 여성 통치자를 낸 셈이다. 알다시피 신라(기원전 57-기원후 992)는 천년의 역사를 통해 세 명의 여왕을 배출하였다. 7세기 중엽의 선덕여왕(632-647)과 진덕여왕(647-654), 그리고 9세기 말의 진성여왕(887-897)이 그들이다. 고려(918-1392)와 조선(1392-1910)을 합친 1천여 년의 역사에서는 공식적인 여성 통치자가 없었다. '여성'이 함축하는 의미를 따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오늘의 여성 대통령은 1천 1백여 년 만에 찾아온 귀한 사건인 셈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성 존재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되돌아보고 여성 능력을 재점검할 필요와 마주하게 된다.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과 윤리적 의무, 그것에 대한 가치 평가의 문제 등 역사적 여성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세밀한 주제들이 아직도 많다.

당연한 말이지만, 역사는 평범한 여성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경우 아버지와 남편, 아들 모두가 그저 평범한 '일부(一夫)'에 불과했고 살면서 그 어떤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적이 없었다면 역사가 주목하기 만무하다. 조선의 대부분 여성들은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아주 특별한 남편이나 아들을 두어 행장이나 제문으로 개인 문집의 한켠에 그 족적을 남겼거나, 정절 자결로 '열녀 인증'을 받았거나 하는 정도가 조선 여성을 기억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또는 유감동(俞甘同)이나 박어을우동(朴於乙于同, ? - 1480)처럼 성 스캔들이나 범죄로

국가의 기록문서에 등재됨으로써 기억된 부류의 여성들도 있다. 우리의 대부분은 이 지극히 소수에 불과한 여성들을 통해 조선 여성 전체를 이해하는 우를 범하곤 하였다. 왜냐하면 그런 '특이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조선여성의 삶이 이야기되어 왔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여성, 어떤 삶을 이야기할 것인가? 은폐되거나 밀려나 있었던, 그럼에도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자원이 되고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여성을 역사 속에서 찾아내기 전에 그녀들이 소개되고 논의된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과거 대부분의 역사문화가 그랬듯이 조선시대 여성도 주체로서보다 남성에 의해 서술되는 존재로 살아왔다. 문자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보다 유교, 가부장제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여성들에 대한 서술은 남성중심 사회의 시선과 의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누군가에 의해 서술된 것은 여성 그 자신의 삶과 생각의 실상들과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시대의 지식체계로 서술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일정한 패턴 속에서 구성된 한결같은 이야기들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시대의 요청으로 다시 불러내려는 작업 또한 만만치가 않다. 우리의 조선여성 이야기는 '현대'라는 관점이 작용함으로써 문제가 한층 복잡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는 현재의 필요에 의해 선택되고 그것으로 새로운 과거가 창조된다. '조선여성' 또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구성되고 재구성되어 왔다. 조선 왕조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려 역사의 저편으로 밀려나자 조선여성은 '전통 여성' 또는 '구여성'으로 각종 담론의 소재가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백여 년 전의 일이다. 이 시기 터져 나오기 시작한 조선시대 여성을 둘러싼 담론은 역사 속 여성들의 활약과 업적을 재조명하려는 우리의 기획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근대로 밀려 나온 조선여성

1920-30년대 여성 아이콘은 '신여성'이었다. 어떤 이는 신여성을 "양머리하고 깜장치마입고 구두신고 이리로 저리로 거침없이 왔다 갔다 하는 여자"라고 하였고, 어떤 이는 "남자들을 비웃고 연애자유나 평등자유나 부르짖는 여자"라고 하였다. 또 어떤 이는 신여성을 "여자도 남자와 똑 같이 고귀하고 신성한 사람임을 아는 여자, 지식과 도덕 등의 실력을 갖추고 사람으로서 누릴 권리와 행할 의무, 받을 행복을 확실히 자각하는 여자"라고 하였다. 이러저러하게 정의된 신여성에게 세상의 눈과 입이 전면전을 치루고 있었지만 그 숫자는 '큰 바다에 좁쌀만 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림1. 『동아일보』, (1925. 12. 3.)

> 오늘날 도회지에 모여드는 소위 신여성들은 자유연애니 자유결혼이니 하지만 실상 그 수효는 심히 적어 조선안에 있는 신여성을 다 합하더라도 조선 여자 전체에 비하면 큰 바다에 좁쌀만 한 것이다. 그들은 남자처럼 머리를 깎고 남자와 서로 안고 춤을 추지만 한편에서는 어린 계집아이가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고 열 서너 살 된 어린놈이 근 이십이나 된 노성한 처녀에게 장가를 가는 것이 다반사다.
>
> (『동아일보』, 1925년 12월 3일)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연일 조혼(早婚)이 조선 청년들의 앞길을 막고, 일꾼을 얻을 욕심으로 며느리를 본다며 조선의 가족제도를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다. 때는 이미 조선이라는 국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근 30년이 지났고, 근대식 학교 교육이 문을 연지 4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 대다수의 여성들은 '조선식'의 삶, 소위 구여성으로 존재하였다. 제도가 변하고 이념이 변하고 세상이 크게 변했지만 가족 문화와 가족 정서는 여전하였고, 여성의 삶은 고단하기만 했다. 그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여성이 살고 있었던 셈이다. 극소수의 신여성과 절대 다수의 구여성. 새 시대와 함께 등장한 신여성이 도시의 리듬을 타고 생기발랄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동안 구여성은 집안에 박혀 축 처지고 주눅 든 모습으로 묵묵히 재래(在來)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다. 신여성은 과장되었고 구여성은 왜곡되었다고들 하지만 그 시대 언론에 비춰진 두 여성의 모습이 그러했다.

그 시대 구여성이란 신여성의 대척점에 선 여성으로 '전통여성' '조선여성'과 동의어로 쓰였다. 즉 구여성의 표상에는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 계몽기나 식민지 근대 공간의 사람들에게 전통이 된 조선은 설명되어야 할 타자였다. 터진 둑처럼 조선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눈치 볼 것 없었다. 제도를 만든 자들, 이념을 유포한 자들 이미 불귀의 객이 되었거나 끈 떨어진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선여성'을 지지하던 제도와 이념이 더 이상 시대정신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1) 식민주의와 민족주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내가 하는 말이 누구를 돕는 것인지 따질 새도 없이 '조선여성'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언사를 마구 마구 쏟아냈다. 원고 마감에 쫓겨 교정 볼 새도 없이 바로 잉크에 올린 듯, '날 것'의 표현들이 난무하였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춘원 이광수는 집안과 집안으로 맺어진 혼인, 그래서 대개가 사랑을 혼인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던 이러한 혼인을 매음(賣淫)이고 간음(姦淫)이라고까지 하였다.



그림2.「신생활론 : 유교사상 –부부관계(3)」『매일신보』, (1918. 10. 1.)

自來 유교풍의 조선의 부부제도의 결함의 요점은 남존여비, 친권의 절대 형식주의, 개인의 행복을 무시, 愛敬을 혼인의 근본요건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중에도 愛敬을 혼인의 근본요건으로 아니 한 것이 최대한 결함이니 자래로 조선 부부간의 비극과 죄악은 실로 十에 九는 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愛敬없는 부부는 일종의 商行爲입니다. 고용관계입니다. 賣淫이오 姦淫입니다. 이러한 부부의 아내 된 자는 그 육체와 노역과 생산의 의무를 받은 남편 된 자의 사육을 받는 자요, 남편 된 자는 옷과 음식과 처라는 명칭을 가지고 장기적인 첩과 노예와 생산을 겸한 여자를 사는 것입니다. 아무런 정신적 결합이 없다면 그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2)

그는 "애경(愛敬) 없는 남편을 견디는 처와 애경 없는 처를 견디는 남편에게 조금도 불평과 증오와 회한이 없다면, 그들은 극기(克己)의 수양을 구비한 군자라고 칭송될 만하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고 "정신상으로 온갖 죄악과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사회와 인습에 인순하는

(1) 성다산은 비록 불합리한 것일지라도 시대의 이념을 비판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특이한 행위의 孝行이 지방 관청에 보고되어 일정한 평가를 내려야 할 경우를 예로 들었다. "수령 등은 그것이 예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다. 이를 발설하자니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워서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명칭이 '효'인데 남의 효도를 듣고서 감히 비방하는 의논을 제기하였다가는 틀림없이 大惡이라는 죄명을 받을 것이 뻔하고 또 남의 일에 대해 거짓이라고 억측하는 것은 자신을 슬기롭지 못한 데로 빠뜨리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마음속으로는 비웃음을 금치 못하면서도 입으로는 '야, 대단한 효행이야'하면서 문서에 서명을 하거나, 마음속으로는 거짓임을 질타하면서도 겉으로는 '참으로 뛰어난 효행이야'하면서 높인다." (정약용, 「孝子論」, 『다산시문집』 제11권)

(2) 이광수, 「新生活論 : 儒教思想—夫婦關係(3)」, 『매일신보』 1918.10.1.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보았다. 조선시대의 혼인은 대부분 집안을 매개로 성사되었다. 즉 혼인은 '두 성(姓)의 합일'로 이해되었고, 그것이 곧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출발로 인식되었다. 거기서 혼인은 나 개인의 행복과 선호가 아닌 가문과 집의 흥망을 쥐고 있는 대 역사였다. 그래서 신성시되었다. 혼인의 성립에 혼인 당사자의 의사가 배제되었다는 것은 근대적 의미에서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곧 혼인 부부의 사랑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림3. 「신생활론」 부부관계(1) 『매일신보』, (1918. 9. 28.)

춘원 이광수는 상호 애정이 아니라 부인 일방의 의무만 강조된 부부관계를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형태로 인식하였다. 그는 부처관계를 "처(妻)의 부(夫)에 대한 의무는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자녀를 낳아 바치고 부(夫)를 대신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부(夫)의 육욕(肉慾)을 만족시키는 것"(3)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부처 모델은 조선시대 부부적 삶의 한 단면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유교적 혼인관과 가족관에 기반을 둔 부부적 삶의 깊이와 넓이를 포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광수가 비판한 부부 모델은 신구(新舊) 교체기인 근대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던 위기의 '구여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가 조선여성을 보는 관점과 논리가 그 시대 명사(名士)들이 펼친 논설에서 크게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작은 차이를 무시한다면 1백 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선여성'을 보는 눈은 '외부자'의 시선 그것이다.

3. 근대의 창에 비친 조선여성

근대 공간의 남성 지식인들은 거리를 걷는 여성들의 모습에서 차이를 발견하였다. 차림새라든가 태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조선부인은 외국부인에 못 미쳤다. 그래서 짜증이 났다.

(3) 이광수, 「新生活論－夫婦關係(1)」, 『매일신보』 1918.9.28.



그림4. 『부인』 제5호(1922. 10.)에 게재된 「외국부인을 칭찬하다가 조선부인에게 동정함」

> 종로 네거리에서 활갯짓을 하며 모자 쓰고 구두신고 슬적슬적 기탄없이 걸어가는 서양부인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활발하고 시원시원해 보이는지 자연 보는 자의 발길까지 활발해집니다. 이러한 때 양산 쓰고 치마 끝을 끌며 양목 버선에 작고 맵시 나는 신을 신고 황달병 들린 사람같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조선부인을 보게 되면 자연 눈살이 바로 못서며 저런 못생긴 것들하고, 애처로우면서도 그만 욕이 탁 나갑니다.(4)

여기서 말한 조선부인은 행색으로 보아 과거 양반가의 일원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조신하게 '아장아장' 걸어가는 저 모습은 조선사회가 여성들에게 요구했던 바로 그 태도이다.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작게, 서 있을 때는 양손을 앞으로 모아 공손하게, 걸을 때는 조심조심 조용하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규문을 벗어나지 않을 것, 거리를 나다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시대가 변하면 용모나 태도의 미적 기준도 변한다는 사실을 그녀들이 알 리 없다. 설령 안다 해도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살림하는' 구여성들이 외국여자들(서양? 일본?)처럼 차려입고 활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용모나 태도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구식 아내는 남편이 공개적으로 흉을 보아도 무방하리만치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 『부인(婦人)』지의 주필이었던 김기전(金起田)은 묘향산인 이라는 필명으로 '구식 아내'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4) 박달성, 「외국부인을 칭찬하다가 조선부인에게 동정함」, 『부인』 제5호, 1922.10.



그림5. 『부인』 제1권 4호(1922. 9.)에 게재된 「구식언해에 대한 나의 불평」

> 나의 아내는 나의 고향 평안북도 어떤 농촌의 무식한 집에서 태어나 나이 스무 여덟 살 되는 지금까지 국문 책 하나부터 보지 못하는 무식한 여자이며 키는 다섯 자이고 얼굴은 자못 컴컴하며 거기에 간사스럽고 고집이 세며 투기가 심하고 욕심이 많은 자못 완강하다 할 수 있는 여자이외다. 아내의 사람됨이 이러하니 그 남편 된 내가 불평이 없고자 한들 될 수가 있겠습니까.(5)

조선의 선비들이 아내를 대하던 방식과 식민지 근대 공간의 지식인이 아내를 대하던 방식에는 엄청난 거리가 느껴진다. 유교 지식으로 무장한 양반 문화에서는 아내는 나와 짝이 되어 집의 역사를 만드는 소중한 존재이다. 즉 부부야말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야 한다는 '부부조단(夫婦造端)'을 근본이념으로 삼았다. 물론 현실 부부에서는 다양한 변종이 있었을 테지만 적어도 아내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선비들의 인품을 가늠하는 필수 항목이었다. 선비 김정묵(1739-1799)은 죽은 아내를 위한 제문에서 생전의 애틋했던 정을 이렇게 기억했다.

> 그대는 나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가까운 사이요, 서로를 알아주고 어짊을 벗 삼으며 즐거움을 나누는 사이였소. 그대는 이미 죽은 나요, 나는 아직 죽지 않은 그대라.(6)

(5) 묘향산인, 「구식 언해에 대한 나의 불평」, 『婦人』 제1권 4호, 1922.9.

(6) 김정묵, 「祭亡室黃氏文」, 『過齋集』

식민지 근대공간의 남성지식인들은 '구여성'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과 태도를 유감없이 표출하였다. 글깨나 쓴다거나 가방끈이 좀 길다 싶으면 조강지처 구여성을 버리고 매력적인 신여성과 다시 혼인하는 사례가 유행처럼 번졌다. 구(舊)에서 신(新)으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정상은 아니라고 자체 평가들을 하지만.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라도 하듯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자들의 노예였다고 분개하였다. 구여성으로 사는 지금이 그래도 낫다는 뜻인지?



그림6. 『개벽』 통권4호(1920.9.)에 게재된 「먼저 교육문제를 해결함이 급무」

> 우리 조선(朝鮮)은 유명한 남존여비(男尊女卑)의 국(國)이엇습니다. 여자(女子)는 남자(男子)의 소유물(所有物)이오 예속물(隸屬物)이엇습니다. 여자(女子)는 단지(單只) 아해(兒孩)를 생산(生産)하는 기계(機械)요 의복음실(衣服飮食)을 조리(調理)하는 인형(人形)이엇습니다. … 금후(今後)의 여자(女子)는 엇더케 하여야 가(可)하겟습닛가. 물론(勿論) 여자(女子)를 남자(男子)의 속박(束縛)에서 해방(解放)하여야지오 내방충거(內房蟲居) 생활(生活)에서 개방(開放)을 하여야지오 남자(男子)와 동량(棟梁)으로 교육(敎育)을 (시)施하야지오[7]

조선시대 여성을 표상화한 다양한 언어들, 즉 안방에서 '벌레'처럼, 남자의 소유물이자 예속물, 아이 낳은 기계, 옷과 음식 만드는 인형 등은 조선시대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만 있었어도 나올 수 없는 표현들이다. 이러한 '날 것'의 언어들은 완장을 찬 근대주의의 전도사를

(7) 張膺震, 「먼저 敎育問題를 解決함이 急務」, 『開闢』 통권 4호, 1920.9.

연상케 한다. 그들이 규정한 조선여성과는 달리 조선후기 실학파의 지식인 순암 안정복(1712-1791)이 기억하는 어머니나 신광우가 기억하는 형수 임윤지당의 모습은 자기 수양이 깊은 도학자적 풍모를 보인다.

> 나의 어머니는 성품이 청렴결백하시어 어떠한 것도 남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으니, 채소 과일 등의 하찮은 물건조차도 함부로 받지 않으셨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간청하는 일이 없었다. 이익을 탐내어 의리를 잊어버린 채 시세에 붙좇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시게 되면 마치 자신이 더럽혀진 듯이 부끄러워하셨다.(8)

> 사색은 정밀하고 마음을 보존하는 것은 철저하며 지혜는 밝고 행실은 수양되어 표리가 한결 같으셨다. 순수하고 안정된 경지를 성취하신 것은 오래 덕을 쌓은 큰 선비와 같았다.(9)

근대 공간에서는 전통적인 가정교육을 받은 양반가의 여성들이 이른바 사회부적응자일 가능성이 크다. 가족과 가족, 가문과 가문의 교환으로 혼인이 성사되었을 때는 그들도 나름의 경쟁력이 있었다. 어디 감히 여아를 밖으로 내놓느냐는 양반가의 철학으로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문자 공부와 덕성 교육을 겨우 마친 그녀들은 가문과 가문의 인적 네트워크에 투입되었다. 혼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비슷한 가문의 그 남자, 신랑은 학교교육을 받은 소위 '신지식인'인 경우가 많았다. 결국은 가족적 배경이 든든했던 탓에 구여성이 된 그들은 '학교 출신'의 신여성에게 남편을 뺏기고, 고향에 남아 시부모를 봉양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신여성의 일거수일투족은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었지만 구여성의 일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았다. 그저 무식하고 시대에 뒤처진 여자로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었다. 순종과 희생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집안 살림에 충실하라고 가르치던 옛 교육은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매사 조심스럽고 매사 부드럽던 그 여자는 이제 답답하기 그지없는 여자가 된 것이다. 버림받아 무방한 여자가 된 것이다.

한편 '못생기고' '답답한' 여자, 부정적인 모습으로 표상된 구여성은 그녀들이 처한 삶의

(8) 안정복, 「先妣恭人李氏行狀」, 『順菴集』 제25권

(9) 신광우, 「允摯堂遺稿跋文」, 『允摯堂遺稿』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삶을 대하는 태도 즉 자의식이 없는 인생관이 그녀를 구여성이라 명명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림7. 『부인』 제10호(1923. 4.)에 게재된 「신구여자에 대한 나의 의문」

"나는 무엇인가 계집이다. 계집은 무엇인가 밥 짓고 옷 짓고 아이 낳고 남편 섬기고 시부모 잘 봉양하며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고 절대 구속되며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아무런 자유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남편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여자, 즉 자기 의식 없이 남에게 의지하고 복종하겠다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구여자이다.[10]

이에 의하면 이제 여성들은 구여성의 옷을 벗고 신여성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런데 구여성과 신여성, 조선시대 여성과 '현대'의 여성을 대비시켜 전자를 억압으로 후자를 해방으로 이해하는 구도를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한 사람도 있었다. 즉 조선시대 유교 윤리 하에서 자행된 여성 억압의 논리가 근대에서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여성 억압으로 바뀌었을 뿐 진정한 여성 해방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그림8. 『삼천리』 제4권 제1호(1932. 1. 1.)에 게재된 「무산부녀의 운동은 어대로 가나」

'남녀칠세부동석'을 가르친 유교의 논리는 가을바람에 시들어 떨어지는 오동잎 같이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 대신에 이 세상이 나온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여자는 남자와 같이 공장으로 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 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고, 남자와 같이 거리나 바다 혹은 산이나 들에

(10) 박달성, 「신구여자에 대한 나의 의문」, 『부인』 제10호, 1923. 4.

> 나가 노동하지 않고는 자기 입에 풀칠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옛적 봉건시대의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처럼 남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졌던 것처럼 현대의 여자 역시 하나의 소유물이 되어 다른 사람의 손에 얽매이게 되었다.(11)

이 글의 논자는 전통사회나 근대사회나 각각이 안고 있는 여성문제를 균형 있게 보려고 했다. 이에 의하면 전통 사회는 남녀를 분리시키고 여자를 집안에 한정시킴으로서 가부장의 관리 하에 두고자 했다. 이제 세상이 바뀌어 여자들도 자유롭게 바깥출입을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 가족의 가부장의 소속이었던 여성은 자신을 고용한 자본가의 처분에 구속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민지 근대 공간의 제국주의 자본은 여자들의 노동력에 주목하였다.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이 수행한 역할을 강조하며 그것이 곧 현재가 요구하는 부녀노동의 근원적 힘임을 주장하였다. 식민지 자본가는 견사 생산에 부녀들을 투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방적이란 여자 고유의 일로 유교문화권에서는 오래된 진리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칡을 삶아 베를 짜서 옷을 짓는 후비(后妃)의 노동을 노래한 『시경』「갈담(葛覃)」의 시를 인용하며, "왕업(王業)을 일으키고 천하를 보존하는 근본이 군자는 농사에 종사하고 부녀는 방적에 힘쓰는 데 있다"를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였다. 또 견우와 직녀의 속담도 여성이 방적에 힘쓰는 것을 천리(天理)에 순응하는 것이고, 하늘이 규정한 여자의 일[天功]에 충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2) 나아가 전통사회의 윤리 덕목은 노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되었다.



그림9. 「부덕의 본의」『매일신보』 사설(1932. 11. 17.)

(11) 金銀姬, 「無産婦女의 運動은 어대로 가나」, 『삼천리』 제4권 제1호, 1932.1.1.

(12) 「婦德의 本義」, 『每日申報』 사설, 1932.11.17.

> 남녀유별은 인류의 기본 원칙일 뿐 아니라 장려하고 권장해야 할 미풍이다. 그러나 그것은 남녀가 상면하지 아니함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로 조심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농촌의 남녀노소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는 것을 마치 남녀유별의 본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다. …… 부녀가 야외 노동을 피한다는 것은 요컨대 잘못된 사상에 기초한 누습인 것이다. 또 민족의 나태상을 드러내는 징표에 불과한 것이다. 부덕의 본의 또는 여성의 천직을 수행케 하는 동시에 잘못된 풍습을 혁파하게 된 것은 실로 일거양득의 소득이라 할 것이다.(13)

남녀유별이나 부덕(婦德)이 근대적 생산 노동에 장애가 될 때 그것은 언제든 폐기되거나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전통적인 유교사회를 움직이던 윤리와 가치는 그 자체 독립적인 위치를 점유하기보다 현대의 관심과 이해에 따라 선택되거나 배제되고,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더구나 자본가의 욕망은 도덕적 가치체계를 생산의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키는 변용을 부린다.

4. 다시 조선시대로, 일하는 여성들

조선시대의 여성이 모두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먼저 어떤 신분의 여성인가에 따라 생활은 물론 생각이나 하는 일이 다를 것이다. 상층부의 여성이라 하더라도 왕실이 다르고 사대부가나 양반가가 다르다. 같은 사대부가 양반가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 생활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를 것이다. 중인, 상민, 노비 등의 신분 또한 각 여성들이 사는 방식과 생각들을 다르게 한다. 게다가 동일한 신분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각자가 갖고 있는 내면의 차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이러저러한 서로 다른 물질적 조건과 서로 다른 의식의 차이가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을 구성한 것이라면, 작게 혹은 크게 그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들을 다 살펴볼

(13) 「婦德의 本義」『每日申報』 사설, 1932.11.17.

수 없다. 그렇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다. 어떤 여성의 어떤 행적을 볼 것이며, 어떤 시각으로 서술한 것을 볼 것인가. 근대의 창에 비친 무능하고 게으른 조선여성 이미지와 좀 다른 측면에 주목해보자. 자료의 성격에 따라 상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지만 생계를 책임지고 치산(治産)에 힘쓴 여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제문이나 실기(實紀)류의 글에서 여성들은 근면과 절약의 미덕을 갖고 생업과 생활을 위한 노동으로 동분서주하였다.

조선후기 이사주당(李師朱堂, 1739-1821)은 남편이 어린 네 자매를 두고 세상을 떠나자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동에 뛰어 든다. 사주당의 아들 유희(柳僖, 1773-1837)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어머니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기억하였다.

> 어머니는 부지런히 일해서 먹을 것을 구했다. 변변한 호미도 없으면서 밭을 일궜고, 촛불도 없으면서 길쌈을 했으니 그 고통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도 아들에게는 식량을 싸가지고 가서 멀리 유학하게 하였고, 딸에게는 아궁이 불 때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 손이 갈라져 터지도록 새끼를 꼬고 새끼로 돌쩌귀를 삼고 거적으로 문을 삼아 소금을 구워서 조강(糟糠)의 먹을 것을 얻었으니 심하도다 그 피로함이여! 어머니는 사사로이 이식(利殖)을 하여 서너 해만에 재물을 모으자 선영의 묘 가운데 멀리 있어 무너진 지 오래된 것을 보수했다. 다시 이식하여 서너 해만에 또 재물이 모이자 외조부 선영 안의 밭을 재물을 주고 되샀다. 다시 이식하여 서너 해만에 재물이 모이자 이종 조카에게 부탁해서 친정집을 위해 후사를 세우도록 했다. 다시 이식해서 서너 해만에 재물이 모이게 되자 외손 가운데 귀한 상을 가진 자에게 유언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라도 제수를 올릴 수 있게 했다. 어머니는 재간(才幹)이 있는데다가 또한 일에 순서를 잘 지키셨던 것이다.(14)

이사주당은 임신 · 출산에 관한 지식을 체계화하여 『태교신기(胎敎神記)』라는 저술을 남긴 분이기도 하다. 그녀는 의서(醫書) 등에서 태교관련의 지식과 정보를 뽑고, 네 자녀를 기르며 얻은 자신의 경험적 지식을 종합하여 그의 독자적인 태교 지식의 체계를 수립한 것이다.

(14) 柳僖, 「先妣淑人李氏家狀」(심경호, 『사주당 이씨의 삶과 학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재인용)

사주당은 아들 유희에게 과거 시험 보는 것을 극구 말렸고, 진정한 학문에 매진할 것을 원했다고 한다. 과거를 통해 출세에의 의지를 키우던 것이 조선시대 선비가의 보편적인 현상이었음을 볼 때 학문 그 자체의 추구를 지향한 이사주당의 의식은 탁월한 면모가 있다.
조선후기의 선비 원교 이광사(1705-1777)는 아내에 대한 실기에서 생전의 아내가 일군 살림과 내조를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그의 아내는 집안을 일으킨 유공자로 기억되었는데, 남편이 학문을 할 수 있도록 농사경영과 장사까지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남에게 신세지거나 남에게 부탁하는 것을 싫어하였음을 특별히 기억하였다. 그런 아내는 옷 만들고 음식 만드는 일에서도 전문가 이상이었다고 한다.

> 눈으로 보기만 해도 대번에 알았고 마음과 손이 다 재어서 남의 며칠 한 만큼을 하루에 해내었는데 옷을 지어 공요로움과 화려함을 일삼지 않아도 천연스레 좋고, 음식을 만들면 까다로운 사치를 안 떨거만 푸짐하고 깔끔하고 맛있었고 술빚거나 장 담거나 김치불티를 담가도 친히 검사만 하면 무엇이고 실수가 없고 유달리 향긋하고 맛있고 불들이기 쪽찌기 삼베를 찌는 일까지도 전문가보다도 나았다.(15)

특히 조선후기 사회에서는 공부하는 선비들의 경제적 무능이 자주 포착되었다. 18세기의 사회적 분위기를 담고 있는 『증보산림경제』「가정(家政)」에서는 물질적 조건을 만드는 일에 소홀한 선비들의 의식을 지적하였다. 일정한 자산이 없으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도학 정신이나 예의에 대한 마음까지도 따라서 없어지게 마련이라고 하였다.(16)

> 옛날의 군자들은 도(道)를 걱정하였을 뿐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않았으므로 생계를 뒷받침해주는 일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내려준 바가 없다. 지금의 선비들은 도를 걱정하는

(15) 이광사, 「亡妻孺人文化柳氏紀實」, 『斗南集』(강혜선,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경제활동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집, 재인용)

(16) "貧而樂道, 是君子之所能也. 山野凡氓, 如無恒産, 則禮義之心, 隨而亡矣."(유중림, 「家政 · 力農桑」, 『증보산림경제』)

> 마음은 예전의 군자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생계를 도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오히려 예전 군자들보다 지나친 점이 있다. 빈곤함이 극심함에도 도리어 의식(衣食)을 꾸려나갈 방도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17)

18세기의 성호 이익(1681–1763)이 관찰한 선비들의 생활도 유사한데, 즉 공부에 빠져 집안 살림을 등한시한다는 것이다.



그림10. 『성호사설』

> 내가 보니, 요즘 세상의 훌륭한 선비들이 혹은 한결같이 문학에만 뜻을 두고, 집안 살림살이를 버려서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조상을 받들고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여 아내와 자식들이 헐벗고 굶주리게 되면 뜻마저 따라서 변하니, 비록 후회하나 미칠 수 없다.(18)

19세기의 『임원경제지』에서도 생업이 없는 선비들의 의식 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17) 유중림, 「家政 · 治財用」, 『增補山林經濟』

(18) 이익, 『星湖僿說』 제7권, 「人事門」, '爲學治生'

> 우리나라 사대부가 스스로 고상하다고 표방하며 으레 장사를 비루하게 여긴 것은 본래 그러했다. 그러나 궁벽한 시골에서 자신을 닦으며 가난하게 사는 무리가 많은데, 부모가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도 알지 못하고 처자식이 아우성쳐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앉아 성리(性理)를 고상하게 이야기한다. 어찌 『사기』를 지은 사마천이 부끄럽게 여긴 자가 아니겠는가?(19)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아정 이덕무(1741–1793)는 선비의 아내들에게 생업을 위한 경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을 권유한다. 부인의 원래 본업인 길쌈과 생사(生絲) 생산은 물론 가축을 길러 내다 파는 일, 돈이 되는 부업도 적극 권장한다.

> 선비의 아내가, 생활이 곤궁하면 생업을 약간 경영하는 것도 불가한 일이 아니다. 길쌈하고 누에치는 일이 원래 부인의 본업이거니와, 닭과 오리를 치는 일이며 장 · 초 · 술 · 기름 등을 판매하는 일이며 대추 · 밤 · 감 · 귤 · 석류 등을 잘 저장했다가 적기에 내다 파는 일이며, 홍화(紅花) · 자초(紫草) · 난목(丹木) · 황벽(黃蘗) · 검금(黔金) · 남정(藍靛) 등을 사서 쌓아 두는 일은 부업으로 무방하다. 그리고 도홍색 · 분홍색 · 송화황색(松花黃色) · 유록색(油綠色) · 초록색 · 하늘색 · 작두자색(雀頭紫色) · 은색 · 옥색 등 모든 염색법을 알아 두는 것도 생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여공(女工)의 일단인 것이다. 그러나 이욕에 빠져 너무 각박하게 하여 인정에 가깝지 못한 일을 한다면, 어찌 현숙한 행실이겠는가?(20)

물론 선비가의 가정 경영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윤묵(1771–1849)은 놀고먹는 여자들에게 우려의 시선을 보내며 자기 집안의 여자들을 단속하고자 했다.

(19) 서유구, 「倪圭志序」, 『林園經濟志』 109~113

(20) 이덕무, 『靑莊館全書』 권30, 『士小節』 7, 「婦儀」 2 '事物'

> 요즘 아녀자들이 옷은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빌리고 삶고 익히는 일은 여종에게 맡기면서 하루 종일 언서(諺書)나 보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서도 오직 편안함을 취할 일만 생각한다. 이것이 내가 일찍이 걱정하던 일이다. 오직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힘써 일하며, 직분을 다할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고서 미리미리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쓰고 때때로 바느질하고 때때로 음식을 하여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며 내팽개쳐두는 근심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면 집안일을 주관하는 일은 거의 한 것이리라.(21)

집안 경제에 대한 선비의 무능력과 그 아내들의 적극적 활동, 그것이 반복되고 축적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길 법도 하다. 이덕무는 이 지점을 포착해내었다. 그는 "세상에 못난 남자 중에는 사나운 부인에게 제압되어 꼼짝 못하는 자"가 종종 있다고 하고, 이것을 "인륜의 큰 변괴로 왕법(王法)이 용서하지 못할 바"라고 하였다. 이런 현상은 곧 경제적 능력의 차이에서 온 것임을 시사 하였다.

> 대개 사나운 부인은 으레 재기(才氣)가 많아서 생리(生利)를 잘 경영하므로, 그 남편이 그것을 의지하여 생활하게 된다. 그런 때문에 부인은 남편을 제압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꼼짝 못하게 되니, 어찌 가련하지 않은가?(22)

부인들의 치산(治産)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도 나왔다. 이덕무는 부인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재화를 불리는 일을 하는 것은 어진 행동이 아니라고 하였다.

> 돈놀이하는 것은 더욱더 현부인의 일이 아니다. 적은 돈을 주고 많은 이식을 취한다는

(21) 박윤묵, 「勤女工」, 『存齋集』 권25
(22) 이덕무, 『靑莊館全書』 권30, 『士小節』 7, 「婦儀」 2 '事物'

> 그 자체가 의롭지 못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만일 약속 기일을 어기고 상환하지 않으면, 가혹하게 독촉하고 악담을 마구 하게 되며, 심지어는 여비(女婢)로 하여금 소송케 해서 그 일이 관청 문서에 기재되게 되어 채무자가 집을 팔고 밭을 파는 등 도산하고야 마니, 그 원성이 원근에 파다하게 되며, 또는 형제 친척 간에도 서로 빚을 얻거니 주거니 하여 오직 이익에만 급급할 뿐, 화목하고 돈후하는 뜻은 전혀 잃게 되는 것이다. 내가 볼 때 돈놀이하는 집은 연달아 패망하니, 그것은 인정에 가깝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 가장에게 알리지 않고 빚을 많이 얻어서 사치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 그를 이름하여 낭부(浪婦)라고 한다.(23)

이렇게 여성들의 적극성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혹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활발하게 이야기되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을 부정하든 긍정하든, 또는 어느 선까지 한계를 지어 긍정하든 그것은 남성이 여성을 서술함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실제와 얼마나 부합하는 것일까. 극히 소수의 사대부가나 재산이 풍성한 양반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부인의 노동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특히 관직에 나가지 않은 선비가의 살림과 그 아내의 노동이 어땠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식민지 근대 공간에서 이른바 '조선여성'은 소극적이고 나태하고 지극히 무능한 사람으로 그려졌다.



그림11. 「청장관전서」

> 부녀의 생활은 완전히 남자에게 의뢰하여, 등이 춥든가 따뜻하든가 남자를 쳐다보았고, 배가 고프거나 불러도 남자를 바라보았으니 가장 귀한 집의 부녀는 일생을 아무 노동을 하지 않고 먹었다. 고량진미라도 맛을 모르고 비단을 입어도 아름다움을 몰랐으니 그 행동을 보면 하나의 권축(圈畜)에 불과하니 동일한 수족과 동일한 근력으로 어찌 무용물이 되고자 하였는가.(24)

(23) 이덕무, 『靑莊館全書』 권30, 『士小節』 7, 「婦儀」 2 '事物'

(24) 「蠶業과 婦女子」, 『每日申報』 사설, 1912.3.31.

무기력하고 게으른 부인, 남편 의존적인 부인을 '가축'에 비유하였는데, 곧 전통사회 부인들의 특성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앞에서 '부공(婦功)에 힘쓰는 것이 천리(天理)'라고 하고 그 근원을 유교경전에서 찾아오는 등 조선여성의 몸과 의식에 각인된 방적일을 적극 지식화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렇게 조선사회를 전제한 전통이나 전통여성은 현재의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구성된다. 개별 사례를 통해 전체를 보는 우를 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사자 여성은 정작 말이 없고, 그녀에 대한 변론자 또는 서술자만 존재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서술된다는 것은 과장이나 축소 또는 왜곡의 방식으로 조작될 소지가 크다. 밖으로 드러난 태도나 업적은 물론 서술대상의 내면세계까지도 서술자의 판단에 구속될 수 있는 것이다. 남편의 의심으로 죄 없는 아내가 살해된 한 사건을 놓고 벌이는 남성 권력의 여성 심리 서술이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겠다.

1784년 서울 사는 삼한은 자기 처 구월(九月)이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한 것으로 의심하여 칼로 찔렀는데, 구월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다. 사건을 인계받은 형조(刑曹)는 "한집에서 18년을 함께 살았고 자녀가 4명이나 되는데, 성질이 나는 대로 칼로 찔렀으니 어쩌면 이리도 사납고 독합니까?" 하였다.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을 조사한 결과 삼한의 죄는 목숨으로 갚아야 할 만큼 무거웠다. 사건의 판결을 쥐고 있던 정조(正祖) 임금은 판부(判付)를 통해 이렇게 말하였다.

>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형률은 죽은 자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서이다. 지아비가 마음에도 없는 죄를 범하였는데 고의로 범한 죄에 적용하여 끝내 사형에 처하고야 만다면 죽은 여자의 마음에 반드시 흡족하지만은 않을 것이다.(25)

삼한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얼토당토않은 남편의 의심으로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사자(死者)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하지만 국왕 정조는 '죽은 아내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 삼한의 목숨을 되돌려주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없게 하겠다는 국왕의 율법 정신은 결국 남성 위주의

(25) 「京囚奴三漢獄」, 『審理錄』 제11권

의식으로 환원되었다. 이럴진대 여성들은 어떻게 서술의 대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될 것인가. 주체적으로 산 여성들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내고, 가능한 그들이 살았던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해내는 작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6. 나오는 말

여기서 소개될 조선시대 여성 여섯 분은 각 분야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분들이다. 가족 안에서 혹은 국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생각을 펼쳤던 이 분들은 여성에게 제공된 조선시대 삶의 보편적 조건들 속에서 각자의 고유하고 특수한 업적을 이루어낸 것이다.

먼저 기존에 유통되던 지식을 모으고 선택하여 『내훈』이라는 책을 지은 조선 최초의 저술가 소혜왕후가 소개된다. 소혜왕후는 유교적 지식에 입각한 저술서를 썼지만 내면으로는 불교적 세계를 간직하여 불경의 번역과 간행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녀의 지적 편력은 여성지식인이 처한 조선전기적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소개될 송덕봉은 16세기 조선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이념을 적극 수용한 여성으로 조명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지식이란 성리학이다. 그녀가 어떻게 '전통과 현대'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지, 그리고 말로만 듣던 처가(妻家) 거주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처가 거주에서 파생된 가족 감정이나 갈등은 시집문화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대부의 아내로서 병자호란을 맞아 피난길에 오른 60대 중반의 남평조씨가 소개된다. 그녀의 삶과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병자일기』는 조선 중기사회의 생활 및 여성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불과 수개월 전에 문희순 교수가 찾아낸 새로운 사실이 공개되는데, 바로 그녀의 이름이 조애중(曹愛重)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조애중은 인간경영에 대한 지혜와 방법을 구축한 여성 CEO로 조명되었다. 다음은 조선후기의 여성학자 강정일당이 '부부의 삶과 내조의 글쓰기'라는 주제로 새롭게 조명되었다. 정일당은 생활의 한 가운데서 가족에 대한 애정과 도학에 대한 열정으로 학문을 꽃피운 분이다.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거나 주목되지 않았던 자료를 통해 강정일당의 인적 · 물적 환경 등을 살뜰하게 복원하였고,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자료를 꼼꼼히 따져 그의 삶과 학문이 재구성되었다.

다음은 자신의 독자적인 논설을 남겨 조선 철학사에 의미 있는 작업을 수행한 성리학자 임윤지당이 소개된다. 윤지당의 철학 이론을 논증한 김현 교수는 "윤지당의 학문에는

퇴계 · 율곡의 철학이 조선 사회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 여성철학자로서가 아니라 '훌륭한 철학자'로 임윤지당이 역사에 기억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17세기 안동지역에 살았던 향촌사대부 여성의 삶과 지혜가 소개된다. '안동장씨'로 알려져 왔던 『음식디미방』의 저자 장계향이 그녀이다. 여기서 행간의 사연을 읽어내는 작가적 상상력으로 장계향의 새로운 지평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은 음식으로 우주의 지혜를 담아내고 음식으로 세상과 소통한 여성군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뽑은 여섯 분의 여성들은 장대한 스케일을 지니고서 일상의 구석구석에 혼과 기를 불어넣고 살려내는 일을 하였다. 여기에 그 지성과 삶의 의미를 살뜰하게 복원해내고 해석해낸 여섯 필자의 노력은 분명 조선여성 연구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한 희 숙 Han hee-sook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hhs@sm.ac.kr

소혜왕후, 최초의 여성 저술가

02

우리나라 여성 가운데 최초로 책을 만든 인물은 누구일까. 조선 초기 성종대 『내훈』의 저자인 소혜왕후 한씨(1437-1504)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왕실 여성들뿐만 아니라 사대부 여성들을 위한 교육서조차 제대로 없던 당시에 『내훈』이라는 훈육서를 만듦으로써 우리나라 여성으로서 최초로 책을 저술한 여성이 되었다. 엄격히 말하면 『내훈』은 기존의 책들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 · 인용하여 만든 책으로 소혜왕후 자신의 글은 단 한 줄도 없지만, 이 책은 여성에 의해 편찬된 최초의 편찬물이고, 소혜왕후는 여성 최초의 여성 편찬자이자 저술가라고 할 수 있다. 소혜왕후가 만든 『내훈』은 조선시대 여성상을 정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내명부를 비롯한 양반여성들을 훈육하는 기본 윤리서가 되었다.

또한 소혜왕후는 성종의 어머니이자 연산군의 할머니로 세조대와 성종대, 그리고 연산군대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녀는 시아버지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통해 세조로 등극하는 과정과 이에 친정식구들이 참여하는 것을 몸소 겪었던 세조의 큰 며느리이자, 세자였던 남편의 죽음으로 왕비가 될 희망을 잃어버렸다가 자신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만듦으로써 대비의 자리로 되찾았던 성종의 어머니이다. 또한 부덕을 잃었다는 이유로 며느리 폐비윤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엄격한 시어머니이며, 그 결과 손자 연산군의 원망을 한 몸에 받으면서 불행한 노년을 보내야만 했던 연산군의 할머니로서 정치사와 궁중사의 한 가운데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여성이다.

여기에서는 조선시대 여성 최초의 저술가인 소혜왕후 한씨의 가문과 생애, 그녀가

『내훈』을 편찬하게 된 배경과 목적 등등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이에 먼저 당대 최고의 가문을 자랑하던 청주 한씨 소혜왕후의 친정 집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소혜왕후의 생애와 그녀가 『내훈』을 편찬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초기 권력의 한가운데에서 억척스럽게 자신의 지위를 유지시켜간 소혜왕후의 생애와 『내훈(內訓)』이 만들어지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내훈』의 내용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소혜왕후의 친정, 청주 한씨의 집안

소혜왕후는 세종 19년(1437)에 좌의정을 지낸 청주 한씨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한확(韓確)의 딸로 태어났다. 당시 청주 한씨는 성종대 성현(成俔)이 지은 『용재총화』에 의하면 당대 대표적인 거가대족(巨家大族)이었다.(1) 고려말 조선초 청주 한씨들은 조선 건국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상당한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2) 그러나 소혜왕후의 아버지 한확은 조부 한녕(韓寧)의 형인 한안(韓安)이 고려말 공민왕 시해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다른 친척들보다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그의 아버지 한영정(韓永矴)도 그다지 높은 벼슬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한확과 손녀 소혜왕후의 영달로 추증되었다. 이러한 불운 속에서 한확은 비록 재능이 뛰어났지만 젊은 시절에는 대체로 그의 누이들을 매개로 출세를 하였다. 즉 소혜왕후의 고모 2명이 명나라 황실에 공녀로 가서 명황제의 후궁이 된 것을 계기로 빠른 출세를 하였다.

조선 초에는 명나라의 요구에 의해 공녀를 바쳐야 했다. 공녀는 고려후기 원나라의 요구로 시작되어 공민왕의 반원정책으로 끝났으나, 원을 이은 명은 조선에 공녀를 요구하여 왔다. 따라서 조선은 계속 공녀를 바쳐야 했다. 명나라에서 조선의 처녀를 요구한 이유는 명 황제의 시중을 드는 궁녀의 조달에 있었다. 이 때문에 명나라에서는 미모를 갖춘 어린 처녀들을 주로 요구하였다.(3)

---

(1) 성현, 『용재총화』 권10.

(2) 고려말 조선 건국 초 청주 한씨 가문과 한확에 대해서는 한희숙, 2012, 「조선 초기 韓確의 生涯와 政治活動」『한국인물사연구』 18 참고

(3) 명나라에서 공녀를 요구한 것은 태종 때부터 중종 때까지 약 110여 년간에 걸쳐 모두 12회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5회는 명나라의 사정으로 중지되고, 실제로는 공녀가 보내진 것은 태종과 세종 때에 걸친 20여 년간 7회였다. 태종 때 3회, 세종 때 4회였으며, 평균적으로 3년마다 1회의 공녀가 보내졌다. 이 기간에 명나라에 끌려간 공녀의 수는 처녀가 16명, 그녀들을 수종하는 여종이 48명, 요리를 잘 하는 집찬녀(執饌女) 42명, 노래와 춤을 잘 추는 가무녀(歌舞女) 8명 등 모두 114명이었다. 평균적으로 보면 1회에 16명씩의 공녀가 보내진 셈이다.(정구선, 2002, 『貢女 – 중국으로 끌려간 우리 여인들의 역사』 국학자료원, 117–118쪽, 167쪽 참고)

태종 17년(1417) 4월에 통사(通事) 원민생(元閔生)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와 황제가 미녀를 요구한다고 전하여 중외의 혼인을 금지하고.[4] 각도에 사람을 보내어 처녀를 골라 뽑게 하였다.[5] 5월에 한확의 누이 한씨와 황씨 등 두 명의 처녀가 선발되었다. 황씨는 부령을 지낸 황하신(黃河信)의 딸로 용모가 아름다웠고, 한씨 역시 용모가 수려하고 품위가 있었다.[6] 이어 태종은 7월 16일에 경복궁에 가서 황씨와 한씨 등 10여 인을 근정전에 모으고, 두 사신으로 하여금 직접 고르게 하였는데 한씨가 제일이 되었다.[7]

이후 한씨는 명나라의 3대 황제 성조(成祖)의 후궁이 되어 총애를 받았다. 한씨는 여비(麗妃)에 책봉되어 명황실 내에서의 지위도 높았다. 이 때문에 한확은 부사정(副司正)으로 명에 갔고,[8] 명 황제는 한확을 친히 후하게 대접하고 광록시소경(光祿寺少卿)이라는 벼슬을 내려 명에서 지내게 하였다. 명 사신들이 조선에 올 때 그의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문안을 드리기도 하였다.[9] 또한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사신을 보내어 고명(誥命)을 청하자, 명황제는 한확을 정사(正使)로 삼고 광록시승(光祿寺丞) 유천(劉泉)을 부사(副使)로 삼아 오게 하여 고명을 주었다. 한확은 황제의 명으로 명의 사신 황엄(黃儼) · 유천(劉泉) 등과 함께 고명을 받들고 돌아왔다.[10] 또 세종 2년 1월에는 예조참판 하연을 광록시소경(光錄寺小卿) 한확과 함께 북경에 보내 후지(厚紙) 3만 5천 장과 석등잔(石燈盞) 10벌을 바치고, 금 · 은을 바치는 것을 면제해 줄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11] 그 뒤에도 한확에게 북경에 들어오라고 명한 것이 3~4차례였으며, 심지어 황제가 인종황제(仁宗皇帝)의 딸을 아내로 삼아 주려 했으나 노모(老母)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 그리고 세종 6년 7월에 한확의 어머니가 죽자 명 황제는 사신과 제물(祭物)을 보내어 제사지내게 하였고, 그의 누이도 내관 왕현을 보내어 어머니 김씨의 신령에 제사지냈다.[12] 이와 같이 한확은 누이가 명황제의 후궁으로 들어가 총애를 받고 있었던 까닭에 명황제의 호의를 받으며 북경을 드나들면서

(4) 『태종실록』 권33, 17년 4월 경신
(5) 『태종실록』 권33, 17년 4월 갑자
(6) 『태종실록』 권33, 17년 5월 갑오
(7) 『태종실록』 권34, 17년 7월 기사
(8) 『태종실록』 권34 17년 8월 기축
(9) 『세종실록』 권1, 즉위년 9월 계축. 권24, 6년 5월 신축; 권24 6년 6월 기미; 권25, 6년 7월 정축
(10) 『세종실록』 권1, 즉위년 9월 경신; 권2, 즉위년 12월 계사; 권3, 1년 1월 갑자
(11) 『세종실록』 권7, 2년 1월 갑자
(12) 『세종실록』 권24, 6년 5월 신축; 권24, 6년 6월 기미; 권25, 6년 7월 정축

외교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여비는 세종 6년(1424)에 성조가 북정(北征) 길에 올라 타타르를 정벌하던 중에 죽자 순장을 당하였다.(13)

그러자 세종 10년에 또 누이를 명나라 공녀로 보냈다.(14) 이후 그의 누이는 선종의 후궁 공신부인(恭愼夫人)이 되고, 아보(阿保)의 공으로 후에 헌종에게도 총애를 받았다.(15) 이와 같이 누이들을 명 황제의 후궁으로 들여보냄으로써 부와 권력을 잡은 한확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16) 한확은 누이동생을 매개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오고, 이후 명나라 사신이 입국할 때마다 사신을 영접하는 선위사가 되어 접대하는 등 조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북경에 있을 때 명황제가 매일 불러서 환관 황엄과 같이 궁중에서 밥을 먹게 할 만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17) 조선에 머물 경우에도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한확은 국내에 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명에 사은사로 파견되어 외교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조선 정부에서 국내외적으로 큰 활동을 하였다.

또 한확은 세종 19년에는 딸을 세종의 후궁 소생인 계양군에게 시집보냄으로써 세종과 사돈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단종 1년(1453))에는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을 도운 공으로 정난공신 1등으로 서성부원군에 봉해지고 우의정에 올랐다. 곧이어 단종 3년에는 딸을 수양대군의 아들 도원군(桃源君) 장(暲)과 혼인시킴으로써 다시 왕실과 사돈관계를 맺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여 명황제의 매부가 되는 한확과 사돈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한확은 조선 조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곧이어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그는 다시 좌익공신 1등록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다시 고명사은사(誥命謝恩使) 겸주청사(兼奏請使)로 명나라에 가서 세조의 왕위계승이 찬탈이 아니라 양위라는 명분을 내세워 명황제를 설득하여 왕위를 인정받게 하는 등 세조의 집권에 큰 외교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세조 2년에 고명사은사로 명나라 조정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칠가령(七家嶺)에 이르러 병을 얻어 사하포(沙河鋪)에서 죽었다. 부음을 들은 세조는

(13) 『세종실록』 권26, 6년 10월 무오. 이후 여비(麗妃)에게는 봉작(封爵)과 시호(諡號)가 더하여져 어진 행실을 표하였다.(『세종실록』 권68, 17년 4월 정묘)

(14) 『태종실록』 권37, 9년 7월 정미.

(15) 그녀는 명나라로 끌려간 처녀들 가운데 가장 장수하여 74세까지 살면서 아보(阿保)의 공으로 성화황제(成化皇帝)에게 총애를 받았다. 환관 정동(鄭同)과 서로 결탁하여 황제를 권하여 자주 정동을 본국에 심부름시켜, 칙지로 옷·노리개·음식 등의 물건을 올리게 하고, 자질구레한 것까지 많이 거둬들여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성종실록』 권106, 10년 7월 무오) 또한 그녀는 명나라와 조선왕실과의 외교적인 문제에 많이 관여하여 조선 왕실에 도움을 주었다.(한희숙, 앞의 논문, 「조선 초기 韓確의 生涯와 政治活動」 참고.)

(16) 『세종실록』 권42, 10년 10월 임오; 권69, 17년 7월 기축.

(17) 『세종실록』 권8, 2년 5월 계유

놀라고 슬퍼하여 예관(禮官)을 보내어 압록강 가에서 널을 맞이하고, 도승지 한명회에게 명하여 장사(葬事)를 호송하게 하였다.[18] 한확의 관력과 생애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1 소혜왕후 아버지 한확의 관력과 생애

연 도	나 이	관 력 및 주 요 사 항	비 고
정종 2년(1400)	1	출생	
태종 17년	18	진헌부사(進獻副使) 부사정으로 명나라 성조의 후궁으로 선발된 한씨와 황씨를 데리고 명에 감. 광록시소경이 됨.	
세종 즉위년	19	세종 즉위 고명사신으로 명에 다녀옴	
세종 2년	21	북경에 가서 금은 바치는 것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함 고명을 받들고 옴	
세종 5년	24	어머니 김씨 죽음.	
세종 6년	25	북경에 가서 황비(皇妃) 한씨에게 진향함	
세종 7년	26	북경에서 돌아옴. 군 절제사를 담당함.	
세종 10년	29	여동생 한씨가 명나라 선종(宣宗)의 후궁으로 뽑힘에 따라 진헌사(進獻使)로 여동생을 데리고 명에 감. 광록시 소경	
세종 12년	31	선위사로 황주에 감	
세종 13년	32	선위사로 의주에 감	
세종 15년	34	중국 사신을 선위(宣慰)함	
세종 17년	36	중국 사신을 선위(宣慰)함.자헌중추원부사. 지중추원사	
세종 19년	38	2녀를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에게 시집보냄	세종과 사돈 맺음
세종 20년	39	장인 홍여방 죽음. 중추원사. 성문출입문제로 파면당함	
세종 21년	40	판한성부사. 경기도 관찰사, 의정부좌찬성	
세종 22년	41	지중추원사. 병조판서. 함길도도관찰사	
세종 25년	44	동지중추원사. 판한성부사	
세종 26년	45	의금부제조. 병조판서	
세종 27년	46	지중추원사 겸판병조사. 이조판서	
세종 29년	48	판중추원사. 평안도도관찰사	
세종 30년	49	평안도도관찰사 겸병마도절제사	
세종 32년	51	판중추원사	
문종 즉위년	51	아내 홍씨 죽음. 의금부제조	
문종 1년	52	사은사로 북경 다녀옴. 판중추원사.	
단종 즉위년	53	명사신을 맞기 위한 원접사(遠接使), 개성부 선위사 · 좌찬성	

(18) 『세조실록』 권5, 2년 9월 무인

연도	나이	관력 및 주요사항	비고
단종 1년	54	정난 1등 공신에 책봉됨. 우의정. 서성부원군(西城府院君). 단종비 간택에 참여함.	계유정난
단종 2년	55	우의정, 진헌사(進寶使). 종묘 추향대제(秋享大祭)의 종헌관(終獻官).	
단종 3년	56	우의정으로 중국사신을 맞이함.	
세조 1년	56	종묘의 집사(執事). 좌의정. 좌익1등 공신에 책봉	세조 즉위
세조 2년	57	사은사 고명사신으로 명에 감. 세자책봉도 주청함. 돌아오는 길에 죽음	
성종 1년		세조의 배향공신(配享功臣)에 정해짐	

한편 조선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청주 한씨 가문이 더욱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한확과 한명회가 세조의 왕위찬탈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를 주도하면서부터였다. 즉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성공시키고 나아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계승에 성공하자 이를 주도했던 한명회와 수양대군의 사돈이었던 한확을 중심으로 청주 한씨들이 대거 공신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세조와 매우 공생적인 관계에 있었던 한명회와 한백륜은 다시 세조와 사돈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관계로 인해 조선 초기의 청주한씨는 4명의 왕비를 배출하였다.

특히 한악의 아들 가운데 한공의(韓公義)와 한방신(韓方信)의 후손들이 조선 초기에 왕의 장인이 되었다. 즉 한악의 아들 한공의는 딸들을 예종과 성종에게 시집보낸 한명회의 증조가 되고, 한방신은 딸을 세조의 아들 덕종에게 시집보낸 한확의 증조이자 딸을 예종에게 시집보낸 한백륜의 고조가 된다. 따라서 세조 – 성종대 세자빈 및 왕비를 배출한 청주한씨 가문 출신의 한확(1400–1456), 한명회(1415–1487), 한백륜(1427–1474)은 모두 한악을 공동 조상으로 하는 친인척들이 된다. 이들 3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확은 한악의 4대손이 되고, 한명회와 한백륜은 5대손이 된다. 한확과 한명회는 9촌간이고, 한확과 한백륜은 7촌간, 한명회와 한백륜은 10촌간이다.[19] 세조 – 성종대 왕비의 가문을 보면 〈표 2〉와 같다.

(19) 조선 초기 청주한씨의 계보에 대해서는 한희숙, 앞의 논문, 「조선 초기 韓確의 生涯와 政治活動」 269쪽, 〈표 2〉 조선초기 청주 한씨 계보도, 참고

표-2 세조 – 성종대 왕비의 가문

왕	왕비	왕비 가문						
		본관	부		조부		증조	
세조	정희왕후 윤씨	파평	윤번	판중추부사	윤승례	판도판서	윤보	영평군
덕종	소혜왕후 한씨	청주	한확	좌의정	한영정	순창군사	한령	녹사
예종	장순왕후 한씨	청주	한명회	영의정	한기	감찰	한상질	평양윤
	안순왕후 한씨	청주	한백륜	우의정	한창		한계복	군사
성종	공혜왕후 한씨	청주	한명회	영의정	한기	감찰	한상질	평양윤
	성종폐비 윤씨	함안	윤기견	판봉상시사				
	정현왕후 윤씨	파평	윤호	우의정	윤삼산	검교중추	윤곤	우참찬

위의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세조대에서 성종대에 이르는 왕비는 파평 윤씨와 함안 윤씨, 그리고 청주 한씨 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 덕종비 소혜왕후는 한확의 딸이고, 예종비 장순왕후와 성종비 공혜왕후는 한명회의 딸이며, 예종의 계비 안순왕후는 한백륜의 딸로 4명이 모두 청주 한씨 출신이다.

또한 세조대에서 성종대에 이르는 시기에 공신에 책봉된 청주 한씨들을 살펴보면[20] 단종대에 수양대군을 도운 한확, 한명회, 한명진, 한서귀가 정난공신에 책봉된 이래로 청주 한씨 인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세조의 즉위와 관련하여 한확, 한명회, 한종손, 한계미가 좌익공신에 책봉되었고, 세조대에 이시애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한계미가 적개공신에 책봉되었으며, 예종의 즉위와 관련하여 한명회, 한계순, 한백륜, 한계희가 익대공신에 책봉되었으며, 성종의 즉위와 관련하여 한명회, 한계미, 한계순, 한백륜, 한계희, 한치형, 한치인, 한치의, 한보, 한치례, 한의 등 무려 11명이 좌리공신에 책봉되었다. 이로써 청주 한씨들의 정치적 지위와 영향력은 비약적으로 커져갔다. 그리고 특히 한확의 아들 즉 소혜왕후의 오빠들도 공신에 책봉되었다.

(20) 鄭杜熙, 『朝鮮初期 政治支配勢力硏究』 일조각, 1983 참고


그림1. 한확의 무덤


그림2. 한확의 신도비


그림3. 한확 무덤의 문인석

2. 소혜왕후의 생애

소혜왕후는 세종 10년(1437)에 한확의 6째 막내딸로 출생하였다.[21] 소혜왕후가 태어난 시대는 세종이 집권하던 때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고 문화가 발달하여 성리학적인 유교사상이 양반층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가던 시기였다. 그리고 명나라와의 외교적인 관계도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 개인적으로 그녀의 집안이 명황실과 사돈관계를 맺고 최고의 지위와 부를 누리던 전성기였다. 그녀는 두 고모가 명나라 황제의 후궁이 되었고 아버지가 명나라에서 벼슬을 지내기도 했던 매우 특이하고도 지위가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유교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의 힘을 경험하면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어머니 홍씨가 소혜왕후 나이 13살에 죽음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과 남편의 죽음 : 소혜왕후는 세조가 아직 수양대군의 신분으로 잠저에 있을 때인 문종 즉위년(1450)에 13살의 나이로 한살 아래인 수양대군의 맏아들 도원군(桃源君)과 혼인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르자 남편 도원군은 의경세자로 책봉되었고 자신은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어 수빈(粹嬪)이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조의 즉위에는 소혜왕후의 아버지 한확을 비롯하여 한명회 등 청주 한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때 그녀는 왕실 가족의 일원으로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계유정난, 단종의 폐위, 시아버지 세조의 즉위, 단종의 죽음 등 정치와 권력의 힘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남는 법을 배웠을 것으로 보인다.

(21) 소혜왕후에 대해서는 한희숙, 2005, 「조선초기 소혜왕후(昭惠王后)의 생애와 『내훈(內訓)』」 『한국사상과 문화』 27 참고.

세조 2년(1456) 4월에 명나라에 세자 책봉을 주청하는 표문을 받들고 명나라에 간 아버지 한확이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죽었다. 이때 소혜왕후는 19살이었다. 그녀는 결혼 직후 연이어 맏아들 월산대군과 명숙공주를 낳았고, 세조 3년(1457) 7월에 둘째 아들이자 후에 성종이 되는 자을산군을 출산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은 지 두 달도 안 되어 9월에 남편 의경세자가 질병으로 19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녀는 20세로 부모도 다 없는 청상과부가 되었다. 아버지와 남편이 연이어 죽는 불행을 겪어야만 했다. 더욱이 남편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요절함으로써 왕비가 될 희망을 접어야 했다. 남편 의경세자가 죽자 차기 왕이 될 세자의 자리는 8살 난 세조의 둘째 아들인 해양대군 즉 예종에게 넘어갔다. 따라서 소혜왕후는 자식들을 데리고 궁 밖 사가(私家)로 물러나야 했다. 왕세자빈으로서의 지위는 불과 3년 정도 유지되었을 뿐이었다.

궁 밖 사가에서의 생활 : 20살의 청상과부로 설움을 안고 궁궐을 떠나온 그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은 덕수궁[22]이 된 사가로 돌아왔다. 다시 궁궐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요원한 일이 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세조의 맏며느리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식들의 교육과 자신의 학문 연마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맏아들 월산대군은 평양군 박중선의 딸과 혼인시키고, 둘째 아들 자을산군은 세조 13년(1467)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예종의 장인이었던 한명회의 둘째 딸과 혼인시켰다. 한명회는 해양대군(예종)과 혼인하였던 자신의 딸이 죽자 또 다른 딸을 자을산군과 혼인시킴으로써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소혜왕후 역시 자신의 지위를 뒷받침해 줄 부모나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과 아들들의 지위를 강화시켜 줄 든든한 후원자가 필요했다. 이에 혈연적으로도 같은 청주한씨 가문의 먼 친척, 즉 10촌 관계에 있던 한명회와 사돈관계를 맺음으로써 가문의 지위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아들을 왕으로 만들다. : 예종은 재위 불과 14개월이라는 짧은 치세를 남긴 채 요절하였다. 예종의 죽음으로 인해 왕의 자리가 비게 되는 비상시국이 전개되었다. 이때 예종의 아들 제안대군은 불과 4살밖에 되지 않았다. 누가 주상자(主喪者), 즉 대통을 이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23] 소혜왕후 역시 이 문제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를 신임하던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세조비 정희왕후는 예종이 죽던 날 한명회의

(22) 덕수궁이 원래 월산대군의 사저가 있던 곳으로 보아 수양대군의 잠저이자, 큰 며느리인 수빈 한씨 즉 소혜왕후가 살던 곳으로 생각된다.
(23) 참고로 세조의 가계를 살펴보면 〈표3〉과 같다.

사위이자 소혜왕후의 둘째아들인 자을산군을 차기 왕으로 지명하였다. 이가 곧 13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성종이다.

정희왕후는 원상 고령군 신숙주 · 상당군 한명회 · 능성군 구치관 · 영성군 최항 · 영의정 홍윤성 · 창녕군 조석문 · 좌의정 윤자운 · 우의정 김국광 등을 불러 모았고, 정현조에게 명하여 전교하기를, "이제 원자(元子)가 바야흐로 어리고, 또 월산군(月山君)은 어려서부터 병에 걸렸으며, 자을산군(者乙山君)이 비록 어리기는 하나 세조께서 일찍이 그 도량을 칭찬하여 태조에 비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그로 하여금 주상을 삼는 것이 어떠하냐?"고 하였다.(24) 표면상의 이유는 제안대군이 아직 어리고 월산대군은 질병이 있는 반면에 자을산군은 타고난 자질이 특별히 준수하고, 기상과 도량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며 세조가 대단히 사랑하였다는 것이다. 정희왕후의 이러한 교지에 모였던 신하들은 모두 찬성의 뜻을 표하였고,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신숙주는 성종이 어린 관계로 정희왕후에게 수렴청정을 계청하였다. 이때 정희왕후는

표-3 세조의 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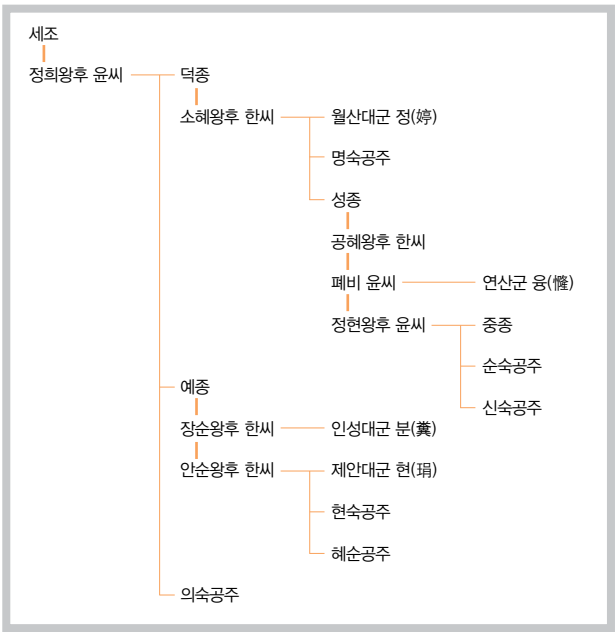



그림4. 세조 화상

(24) 『성종실록』 권1, 총서에는 성종이 남과 달리 왕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왕이 일찍이 동모형(同母兄) 월산군 이정과 더불어 궁중의 무하(廡下)에서 글을 읽고 있을 때 마침 요란한 천둥소리가 나고, 어린 환관이 곁에 있다가 벼락을 맞아 죽으니, 모시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넘어지며 기운이 쭉 빠지지 않은 이가 없었는데도, 왕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언어와 행동이 침착하여 평상시와 다름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를 기이하게 여겼다.」

"나는 이미 박복하여 일이 이와 같으니, 심신을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수양하려고 한다. 또 나는 문자를 알지 못하지만 수빈(粹嬪)은 문자도 알고 사리에도 통달하니, 가히 국사를 다스릴 것이다."(25) 라고 하며 성종의 어머니인 소혜왕후에게 정사를 들을 것을 권유하였다. 그 이유는 소혜왕후가 문자도 알고 사리에도 통달하였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정희왕후는 "국가의 기무를 내가 부득이하여 임시로 함께 청단(聽斷)하는데, 무릇 시위(施爲)가 천심에 합하지 않아서 이 한재(旱災)를 가져왔으니, 장차 어떻게 해야 가할 것인가? 인수왕비(소혜왕후)가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서 사체(事體)를 아니, 내가 큰일을 맡기고자 하는데 어떠한가?"(26) 라고 하며 소혜왕후에게 수렴청정을 맡길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27) 소혜왕후는 정희왕후가 수차례 수렴청정을 양보할 만큼 정치적 감각과 지식을 갖춘 당찬 여성이었다. 이것은 원상(院相)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이후 정희왕후가 7년간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 실제 소혜왕후의 영향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린 자을산군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데에는 정치적 내막이 깔려 있었다. 예종의 아들 제안대군이 엄연히 존재했고 또한 자을산군의 형인 월산군도 있었다. 예종의 아들인 제안대군은 4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세조의 장손으로 세조의 총애를 많이 받았던 16세의 월산군을 배제하고 동생 자을산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한 것은 정치적 결탁 때문이었다. 이때 정희왕후와 정치적 결탁을 한 사람은 한명회였다. 세조의 신임을 지극히 받았던 한명회는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동시에 바로 자을산군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다. 정희왕후는 장손인 월산군도 염두에 둘 수 있었지만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한명회와 손을 잡고 자을산군으로 결정한 것이다.

왕후가 되다 : 둘째 아들이 왕으로 즉위하자 소혜왕후는 사가로 물러난 지 12년 만에 다시 궁궐로 들어왔다. 이때 소혜왕후의 나이 32살이었다. 왕위에 오른 성종이 먼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아버지 의경세자의 위호를 높이는 것과 어머니의 칭호와 위차를 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궁궐에는 최고의 어른으로 대왕대비 정희왕후와 소혜왕후의 아랫동서이자 예종의 부인인 왕대비 안순왕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소혜왕후의 위차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

(25) 『예종실록』 권8, 1년 11월 무신

(26) 『성종실록』 권4, 1년 4월 무진

(27) 성종 초반 정치상황과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에 대해서는 金宇基, 2001, 「朝鮮 成宗代 貞熹王后의 垂簾聽政」 『朝鮮史硏究』10, 韓春順, 2002, 「成宗 초기 貞熹王后(세조비)의 政治 聽斷과 勳戚政治」 『朝鮮時代史學報』22, 참고

성종 1년 1월에 의경세자(懿敬世子)를 추숭(追崇)하는 일과 수빈의 칭호에 대한 일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수빈은 의경세자가 동궁으로 있을 때 배필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칭호를 올려서 비(妃)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대(大)라고 일컬을 수는 없는 것이 정리(情理)와 예문(禮文)에 합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비라 칭하지는 않았다.[28] 그러나 곧이어 다시 정승을 지낸 사람과 의정부 · 육조 · 춘추관의 2품 이상에게 명하여 아버지 의경세자의 시호(諡號) · 묘호(廟號) · 능호(陵號)와 어머니 수빈의 휘호(徽號)를 의논하도록 하여 의경세자의 시호를 온문의경왕(溫文懿敬王)으로, 묘호는 의경묘(懿敬廟)로, 능호는 경릉(敬陵)으로 하며, 수빈의 휘호를 인수왕비(仁粹王妃)로 하였다.[29] 그리고 예종비 왕대비와 인수왕비의 서차(序次)는 형제의 서열로 정하도록 하였다.[30]



그림5. 소혜왕후릉(경릉) 정자각





그림6. 소혜왕후릉(경릉)

(28) 『성종실록』 권2, 1년 1월 정유
(29) 『성종실록』 권2, 1년 1월 신축
(30) 『성종실록』 권4, 1년 3월 신묘

그러나 성종 3년 2월에는 정희왕후의 의지(懿旨)에 따라 인수대비의 위차를 왕대비 위에 두도록 하였다. 성종은 "왕대비의 서차가 일찍이 인수왕비의 위에 있었으나, 세조가 항시 인수왕비에게 명하여 예종을 보호하게 하고 시양(侍養)이라고 일컬었으며, 또 장유(長幼)의 차서(次序)가 있으니, 그 위차(位次)는 마땅히 왕대비의 위에 두어야 한다."[31]는 의지(懿旨)에 따라 소혜왕후의 위차를 예종비의 위에 두게 하였다. 이후 성종 5년(1474)에 중국에 사신을 보내어 의경세자를 덕종(德宗)으로 추봉(追封)하여 왕으로 삼기를 청하여 명황제로부터 회간(懷簡)이라는 의경세자의 시호와 인수왕대비의 고명을 받았다.[32] 그리고 성종 6년 1월에 의경왕(懿敬王)의 시호와 인수왕비의 존호를 다시 의논하여 의경왕(懿敬王)은 선숙공현온문의경대왕(宣肅恭顯溫文懿敬大王)이라 하고, 인수왕비는 인수왕대비라 하며[33] 의경왕의 시호와 인수왕대비의 존호를 새긴 도장의 크기를 정하여 각각 '회간선숙공현온문의경대왕지보(懷簡宣肅恭顯溫文懿敬大王之寶)'와 '인수왕대비지인(仁粹王大妃之印)'이라 하였다.[34]

인수왕대비는 성종 6년 2월에 선정전에서 책봉을 받았고.[35] 10월에 회간왕의 묘호를 덕종으로 올림에 따라[36] 덕종비라 하였으며, 회간왕비라 일컬어지게 되었다.[37] 이와 같이 소혜왕후는 수빈에서 인수왕비, 인수대비, 인수왕대비, 덕종비, 회간왕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후세에 알려지게 되었다.

(31) 『성종실록』 권15, 3년 2월 정해. 소혜왕후의 위차문제는 성종 6년 5월 12일(경신)에도 논의되었는데 정희왕후는 원상에게 말하기를, "세조께서 일찍이 인수왕비를 우대하시고 예종에게 '어머니처럼 섬기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왕대비가 인수왕비에게 굳이 사양하고 윗자리를 차지하지 않기에, 내가 세조의 유의(遺意)에 따라 왕대비가 바라는 대로 특별히 인수왕비를 왕대비의 위에 자리하게 하였더니, 인수 왕비도 굳이 사양하였으나, 내 명을 거듭 어기다가 드디어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다." 라고 하여 인수대비의 위차를 예종비보다 위에 두게 하였다.(『성종실록』 권55, 6년 5월 경신)

(32) 『성종실록』 권155, 14년 6월 계유, 『연려실기술』 권5, 덕종고사, 『성종실록』 권297 부록 성종대왕 지문(誌文)

(33) 『성종실록』 권51, 6년 1월 병진, 『광해군일기』 권25, 2년 2월 계축. 소혜왕후에게 인수라는 호를 올린 것은 생존하신 날이 오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

(34) 『성종실록』 권51, 6년 1월 임술

(35) 『성종실록』 권52, 6년 2월 병오

(36) 『성종실록』 60, 6년 10월 을유

(37) 『성종실록』 권110, 10년 10월 기미

3. 『내훈』의 편찬과 내용

1) 편찬 배경

소혜왕후는 현전하는 최초의 여성 저술가로 『내훈』을 편찬하기 이전부터 많은 불경의 간행에도 간여하였다. 그녀는 내면적으로는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일찍이 과부가 된 소혜왕후는 부처에 의지하여 남편의 명복과 자식들의 무고를 빌며 자신의 마음을 달랬던 것이다. 성종 3년(1472) 6월에는 세조, 예종 및 남편의 초생정계(超生淨界)와 어린나이로 죽은 예종의 맏아들 인성대군의 선지수생(善地受生), 정희왕후, 성종, 성종비의 수복을 빌기 위해 경판이 간직되어 있는 곳을 탐방하게 하여 29종 2,815부라는 방대한 양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별도로 『은중경』 10부를 인출하여 아버지 한확과 어머니 홍씨의 내세천도(來世薦度)를 기원하였다. 또한 성종 5년 5월에는 공혜왕후 한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상중하 권 1책을 내수사의 재물로 견성사(見性寺)에서 찍었다. 또한 8월에는 정희왕후가 주관하는 의경왕, 예종, 공혜왕후의 극락천도를 위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과 『예염미타도량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의 사성에도 관여하였다.(38)

소혜왕후는 사재로 사경(寫經)을 만들었다가 대간들의 비판이 크자 이에 대해 불평을 하였고(39) 또 불상을 만들어 정업원에 보내기도 하였다.(40) 그리고 불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시행하였던 세조와는 달리 성종이 도첩제를 실시하여 승려가 되는 것을 금하자 예종비와 함께 이를 폐지할 것을 간하는 언문을 올리기도 하였다.(41) 그녀는 왕실 여성으로서 불교와 경전 간행에 매우 관대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혜왕후는 유교적인 학식과 도덕을 몸소 실천하고자 한 왕실여성이었다. 성품이 곧고 학식이 깊어 성종의 정치에도 많은 자문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 소혜왕후는 궁중의 비빈과 부녀자들을 훈육하기 위하여 『내훈』을 펴냈다. 소혜왕후는 성종 6년(1475) 2월,

(38) 최연미, 2001, 「소혜왕후 한씨 『內訓』의 판본고」 『書誌學硏究』 22, 354~355쪽

(39) 『성종실록』 권78, 8년 3월 갑술

(40) 『성종실록』 권228, 20년 5월 무진

(41) 『성종실록』 권78, 성종 8년 3월 신미; 권271, 23년 11월 무자

38세의 나이로 왕대비에 책봉된 뒤 그해 맹동(孟冬) 즉 초겨울에 『내훈』을 편찬하였다. 아마도 그녀의 생애에 있어 가장 역사적 의미가 큰일은 이 책을 편찬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녀는 엄격한 유교적 부덕과 지식을 갖춘 왕실의 어른으로서 궁궐 내의 여성들을 교육시켜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다.

소혜왕후의 성품은 매우 곧고 엄했다. 세자빈이 된 다음에도 며느리의 도리에 힘써 몹시 조심스럽게 행하였고, 몸소 어찬(御饌)을 보살피며 세조 부부의 주위를 늘 떠나지 않았다 한다. 그래서 세조는 항상 효부라 칭찬하였으며, 효부라는 인장까지 만들어 하사하여 그 효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식을 양육하는 데에 있어 그들이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거나 잘못을 하면 즉시 정색을 하여 훈계하고 경계하였으므로 세조 내외는 희롱삼아 그녀를 '폭빈(暴嬪)'이라 부르기도 하였다.(42) 소혜왕후는 부모를 모실 때는 효부로서의 모습을, 자식들에게는 엄격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소혜왕후가 『내훈』을 편찬하기에 앞서 성종은 재위 3년(1472)이 되는 해에 교서를 내려, 백성에게 절제하고 검소할 것을 유시(諭示)하고, 역대의 제왕과 후비의 본받을 만하고 경계할 만한 것을 채택하여 정리해 책을 만들기도 하였다. 왕이 되기 위한 세자교육을 받지 못했던 성종은 자신과 왕비에게 귀감이 될 교육서를 편찬하게 하였으니 『제왕명감(帝王明鑑)』·『후비명감(后妃明鑑)』 등이 그것이었다. 특히 『후비명감』의 편찬은 소혜왕후가 『내훈』을 짓는 데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내훈』의 편찬 동기는 그 서문에서 잘 나타나 있다.

> 한나라 정치의 치란(治亂)과 흥망은 비록 남자 대장부의 어질고 우매함에 달려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 부인의 선악에도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 부인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개 남자는 마음을 호연 중에 단련하고 뜻을 여러 가지 오묘한 가운데서 익히게 하여 자기 스스로 시비를 분별하여 가히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 어느 누가 나의 가르침이나 기다렸다가 행할 것인가. 그러나 여자는 그렇지 못하다. 한갓 길쌈의 굵고 가는 것만을 달갑게 여기고 덕행의 높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가 날마다 한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42) 육완정 역주, 『내훈』 발문, 『연산군일기』 권58, 11년 6월 경신, 『연려실기술』 권5, 덕종고사, 소혜왕후

이와 같이 소혜왕후는 한나라 정치의 치란과 흥망은 비록 남자 대장부의 어질고 우매함에 달려 있다고는 하지만 부인의 선악에도 달려 있다고 하였다. 즉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실여성에게 선함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세자빈이 된 후 이전에 여러 차례 있었던 폐빈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소혜왕후가 세자빈이 되기 전에 조선 왕실에서는 여러 차례 세자빈이 폐해지는 일, 즉 폐빈사건(廢嬪事件)이 있었다.[43] 세자빈은 국모인 왕비가 될 인물이자 또 다음 대의 왕이 될 아들을 낳아야 할 인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도 높은 위상을 지닌 존재였다. 따라서 세자빈에게는 다른 여타의 왕자 부인이나 사대부 여성보다도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부덕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태조는 세자 방석의 부인인 현빈 유씨를, 세종은 세자(훗날의 문종)의 첫 번째 부인인 휘빈 김씨와 두 번째 부인인 순빈 봉씨 등을 부덕 상실이라는 이유로 내쫓았다. 조선 건국 직후 3대에 걸친 40여년 사이에 세자빈 폐출 사건이 3차례나 발생하였다.

태조의 막내아들이자 조선 왕조 최초의 세자였던 방석은 현빈 유씨를 세자빈으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태조 2년(1393) 6월 19일(계사)에 내시 이만을 목 베고, 세자빈을 내쫓은 사건이 일어났다. 조선이 건국되자마자 발생한 첫 번째 세자빈 폐출 사건이었다. 태조는 세자빈 폐출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었으나 내시 이만이 참형을 당한 것으로 보아 현빈 유씨와의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소혜왕후는 시백부인 문종이 어린 나이에 세자에 책봉되고 일찍 혼인하였지만 두 번이나 세자빈이 쫓겨나는 불운을 당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문종은 세종 9년(1427)에 14살의 나이로 김오문(金五文)의 딸과 혼인을 하였다. 그러나 휘빈 김씨는 결혼한 지 불과 3년 만에 쫓겨났다. 문종이 자신을 가까이 하지 않고 궁녀들에게 눈을 돌리자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갖가지 압승술(壓勝術)을 썼다가 이런 일들이 시아버지 세종의 귀에 들어가서 친정으로 쫓겨난 것이다.

세종은 세자빈 휘빈 김씨를 폐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새로운 세자빈으로 종부시(宗簿寺) 소윤(少尹) 봉여(奉礪)의 딸을 뽑았다. 김씨를 내쫓은 뒤 고르고 골라 다시 결혼을 시킨 순빈 봉씨였다. 그런데 세종 18년 10월 세자빈 봉씨는 책봉된 지 7년 만에 다시 폐출되었다. 봉씨 역시 여러 해 동안 세자와 사이가 좋지 못했다. 세종이 봉씨를 폐한 원인은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많았지만,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투기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43) 한희숙, 2010, 「조선 태조 · 세종대 세자빈 폐출 사건의 의미」『한국인물사연구』 14.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고, 셋째는 동성애를 비롯하여 성(性)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행동들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소혜왕후가 궁중으로 들어오기 전에 세자빈들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쫓겨났고 당연히 왕실의 가정사는 복잡하고 어지러웠다. 그리고 결국 어린 단종이 자신의 시아버지 세조에 의해 폐위가 된 것을 소혜왕후는 몸소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왕실의 안녕과 왕권의 안정을 위해 자신의 아들 성종이 거느릴 많은 후궁들, 즉 자신의 며느리들을 엄격하게 훈육하기 위해 이 책을 만들었다. 이러한 점은 역시 『내훈』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 나는 홀어미인지라 옥같은 마음의 며느리를 보고 싶구나. 이 때문에 『소학』·『열녀』·『여교』·『명감』 등이 지극히 적절하고 명백한 책이었으나 권수가 많고 복잡하여 쉽게 알아볼 수가 없었으므로, 이에 네 권의 책 가운데에서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르침을 취합하여 일곱장으로 만들어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아아! 한 몸에 대한 가르침이 모두 여기에 있다. 그 도를 자칫 한 번 잃게 된다면 비록 후회한다 하여도 쫓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이를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어 날마다 성인의 경지를 바라도록 하여라. 밝은 거울은 빛이 나는 것이다. 경계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소혜왕후는 옥같은 며느리들을 만들기 위해 이 책을 편찬한 것이다. 즉 비빈들의 부덕을 가르치기 위해 이 책을 만들었다.

당시에는 궁중에 왕의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 예종의 후궁 숙의 최씨, 남편 덕종의 후궁인 숙의 권씨와 윤씨, 특히 성종의 후궁 등 왕실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성종은 많은 후궁들을 들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소혜왕후는 궁중 여성들에게 부덕을 교육시킬 필요성을 느꼈고, 정희왕후가 철렴한 뒤 성종이 친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궁중여성들을 훈육하고 기강을 잡고자 하였다.

성종 6년은 한명회의 딸이자 성종의 첫 번째 부인인 공혜왕후가 죽고 누가 왕비가 되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남아 있던 시기였다. 성종의 첫 번째 부인인 공혜왕후는 세조 13년(1467)에 12살의 나이로 자을산군과 혼인하였다. 그리고 성종이 왕이 되자 왕비로 책봉되어 정희왕후와 예종비, 소혜왕후 등 3대비를 극진한 효도로 받들었고 후궁을 대접함에 있어서는 너그럽고 대범하여 중도(中道)에 맞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종 4년(1473) 7월에

병이 나서 다음해 4월에 죽었다.(44) 따라서 왕비의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었고 누가 왕비가 되느냐는 국가적인 큰 관심사였다. 특히 성종의 후궁들 사이에서는 누가 왕비가 될 것인가를 두고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소혜왕후는 성종의 후궁들 즉 자신의 며느리들을 훈육하고 기강을 잡을 필요를 느꼈던 것 같다.

또한 성종대에는 왕실의 종친과 외친의 수가 점점 늘어나 꽤 많았다. 자연히 그들의 부인과 첩의 수도 늘어났다. 조금 뒷 시기이긴 하지만 성종 17년 10월에 세조의 외친 중에서 사촌 이내 및 정희왕후와 인수대비 · 인혜대비(예종비)의 육촌 이내의 친족에게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수가 모두 2백여 명이나 되었다.(45) 또 17년 10월에 인수왕대비 · 인혜왕대비가 창경궁의 인양전에 나아가 육촌 이내의 친족에게 잔치를 베풀었을 때 세조의 사촌 이내의 외친과 정희왕후의 육촌 이내의 친족도 참여하였는데 그 수가 거의 1백여 명이나 되었다.(46) 또 성종 17년 12월에 정희왕후와 인수대비 · 인혜대비(예종비)의 족친에게 육촌까지 한하여 각각 1자급을 가하였는데 그 수가 무려 5백에 이르렀다고 하였다.(47) 이와 같이 족친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들의 부인과 자식들도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성종 6년 즈음에는 그 수가 이보다는 조금 적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소혜왕후는 이들 역시 유교적 부덕을 쌓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서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혜왕후는 비단 자신의 자식들과 궁중의 비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우매한 부인에 이르기까지 집안 다스리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 이 책을 만들었다. 이러한 점은 상의(尙儀) 조(曹)씨가 쓴 『내훈』의 발문에서 잘 나타난다.

> 계속하여 이를 언문으로 번역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으니 비록 우매한 사람일지라도 한번 살펴보면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서 익히고 외우기에 편하게 하시었다.... 이 책을 지음이 어찌 인수전하의 옥엽(玉葉)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겠는가. 민간의 우매한 부인들에 이르기까지 여자들 일손의 틈틈이 아침저녁으로 익히고 외어서 마음에 맛을 음미하여 간다면, 차차 집안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니 이 어찌 풍속과 교화에 주는 도움이 적다고 하겠는가.

(44) 『성종실록』 권43, 5년 6월 경신
(45) 『성종실록』 권196, 17년 10월 임오
(46) 『성종실록』 권196, 17년 10월 정해
(47) 『성종실록』 권198, 17년 12월 임오

이상에서 살펴본 바 『내훈』의 편찬 동기를 정리해 보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여말선초 『효행록』과 『삼강행실도』와 같은 윤리서의 편찬 과정에서 소혜왕후는 왕실 여성들 즉, 자신의 며느리를 비롯한 궁중 비빈들의 훈육을 위해 이것을 편찬했다. 둘째, 일반 여성들에게도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부덕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이를 편찬한 것이다. 셋째, 정희왕후와 함께 각종 불경을 국역하고 인쇄, 출판을 했던 경험에서 아울러 『내훈』을 편찬하였다.



그림7. 『내훈』 표지(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와 내지 권 제1, 언행장 제1

2) 『내훈』의 내용과 그 의미

소혜왕후가 편찬한 『내훈』에는 그녀의 글은 단 한 줄도 없다. 『내훈』은 『열녀』·『여교』·『소학』·『명감』 등등 여러 책에서 인용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48] 참고문헌에서 발췌한 116항목을 직접 인용의 형식으로 그 내용에 따라 7장 안에 적절하게 분류해 놓은 것이다.[49] 비록 소혜왕후가 직접 쓴 글은 없지만 그녀는 부녀자의 교육에 중요하다고 파악되는 내용을 뽑아서 3권 4책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소학』 은 송대에 주희가 편찬한 『소학』 을, 『열녀』는 명대(明代)에 해진(解縉)이 편찬한 『고고금열녀전(古今烈女傳)』을, 『여교』는 한대(漢代)에 반소(班昭)가 편찬한 『여계(女誡)』와

(48) 실제는 『내훈』의 서론에서 언급한 이 4종의 인용서책 외에도 『근사록(近思錄)』 등 다른 책들도 인용되어 있다.

(49) 이경하, 2008, 「『내훈』과 『여계』 『열녀』 『소학』 『명감』 관계의 재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권0호, 241쪽

송대의 『방씨여교(方氏女敎)』를 포함하는 확인 미상의 여훈서를 가리킨다. 그리고 『명감』은 아직 그 실체가 불명확하다.(50)

제 1권은 언행(言行), 효친(孝親), 혼례(婚禮)의 3장으로 하였고, 제 2권은 부부 1장을 상 · 하로 나누었으며, 제 3권은 모의(母儀), 돈목(敦睦), 염검(廉儉)의 3장으로 하여, 모두 7장으로 이루어졌다. 즉 제 1권 1장 언행장은 말과 행동요령에 대한 항목을 설정하여 『이씨여계』 · 『여교』 · 『예기』 · 『소학』 등에 나오는 일화와 공자를 비롯한 유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놓았다. 2장 효친장은 부모와 시부모에 대한 효도를 『여교』 · 『예기』 · 『소학』 등에서 성인들의 일화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3장 혼례장은 혼인에 대한 예절과 혼인과 관련된 현인들의 말을 『예기』 · 『소학』 등에서 인용해 놓았다.

제 2권 4장은 부부장인데 특히 부부의 도리에 관한 내용이 한 권으로 되어 있다. 중국 황후들이 지닌 높은 덕과 여성들의 예지에 대한 일화를 『여계』 · 『예기』 · 『소학』 등에서 인용하였다. 특히 『여계』의 2, 3, 5, 6장의 내용을 묶어서 부부장의 첫째 항목에 순서대로 편집하였다.(51) 부부장에서는 "남편이 어질지 못하면 아내를 거느리지 못하고, 아내가 어질지 못하면 남편을 섬기지 못한다." 면서 여성 교육을 강조하였다.

제 3권 5장은 모의장으로, 선인들의 훌륭한 어머니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이를 통한 올바른 모성관 학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6장은 돈목장으로 주로 『여교』의 내용을 인용하여 동서간이나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7장은 염검장으로 『여교』 · 『소학』 등에서 추린 청렴과 검소함으로 유명한 선인들을 소개하여 이러한 삶을 깨우치게 하였다.

『내훈』에 인용된 책들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장 언행장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소학』 의 '경신(敬身)'에 관한 항목인 내편 '경신(敬身)', 외편 '선행(善行)'의 실경신(實敬身), '가언(嘉言)'의 광경신(廣敬身)에 해당하는 항목 가운데서 인용한 것이다. 몇몇 내용은 『소학』의 입교에 관한 항목 가운데서 인용한 것인데, 그 내용 역시 언행을 삼가도록 가르치는 내용이다. 또 『소학』의 명륜에 관한 항목에서 인용한 내용도 있다.

2장 효친장에서 6장 돈목장까지는 『소학』과 『고금열녀전』에서 인용한 항목이 대부분인데, 그 가운데 『소학』에서 인용한 항목은 한 가지 즉 모의장에 『소학』의 입교(立敎)에 관한 항목 가운데에서 인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학』의 명륜(明倫)에 관한 항목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50) 김훈식, 2011, 「15세기 韓 · 中 『內訓』의 여성윤리」 『역사와 경계』 79, 77쪽

(51) 『여계』의 제4장인 부행(婦行)은 따로 언행장에 포함시켰다.

7장 염검장도 한 항목[52]을 제외하고는 『소학』의 경신에 관한 항목에서 인용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53] 이와 같이 『내훈』은 특히 『소학』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내훈』은 각 장의 주제에 해당하는 도덕규범에 대한 일반적 설명과 함께 그 규범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인물의 행실을 함께 실어두었다. 언행의 규범을 가르치고 효친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있으며, 혼인의 중요성과 부부의 도리를 강조하고 어머니의 자식 가르치는 의무를 환기시키며, 형제와 친척의 화목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내훈』은 조선사회의 여성들의 생활이 반영된 동시에 여성으로 하여금 그처럼 생활하도록 만든 교과서였다. 소혜왕후는 유교적인 원리에 따라 남녀의 기질차이를 전제로 하는 남녀유별관을 지녔으며, 따라서 음양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고 가부장적 체제 질서에 순응하는 여성을 길러내기 위한 내용으로 이 책을 편찬하였다.

소혜왕후가 『내훈』을 만들면서 『열녀』·『여교』·『소학』·『명감』 같은 중국의 서적들을 쉽게 접하게 된 것은 그의 친정이 명과 매우 빈번한 교류를 할 수 있었던 분위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버지 한확, 그리고 오빠들이 고모가 있는 명나라 조정을 자주 다녀왔으며 이때 중국으로부터 많은 하사품을 얻어 왔는데 서적들도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혜왕후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책들을 접할 수 있었으며, 결혼 후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뒤에는 이러한 책을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선에도 이러한 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소혜왕후는 당시 시대적 요구에 앞장섰던 여성이었다. 『내훈』은 조선시대 여성 이념 성립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여성의 손에 의해서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서가 되었다. 이 책은 성종대 조선시대 여성 이념 성립에 큰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후 조선 왕실 여성 교육의 지침서가 되었다.

(52) 명륜(明倫)에 관한 항목에서 인용한 것이 하나 있다.

(53) 김훈식, 앞의 논문 참고

참고문헌

- 金宇基, 「朝鮮 成宗代 貞熹王后의 垂簾聽政」『朝鮮史硏究』 10, 2001.
- 김훈식, 「15세기 한 중 『내훈』의 여성윤리」『역사와 경계』 79, 2001.
- 육완정 역주, 『내훈』『세조실록』『조선왕조실록』 『내훈』 열화당, 1985.
- 이경하, 「『내훈』과 『여계』『열녀』『소학』『명감』 관계의 재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권 0호, 2008.
- 鄭杜熙, 『朝鮮初期 政治支配勢力硏究』 일조각, 1983.
- 최연미, 「소혜왕후 한씨 『내훈』의 판본고」『서지학연구』 22, 2001.
- 韓春順, 「成宗 초기 貞熹王后(세조비)의 政治 聽斷과 勳戚政治」『朝鮮時代史學報』 22, 2002.
- 한희숙, 「조선초기 소혜왕후(昭惠王后)의 생애와 『내훈(內訓)』」『한국사상과 문화』 27, 2005.
「조선 태조 · 세종대 세자빈 폐출 사건의 의미」『한국인물사연구』 14, 2010.
「조선 초기 韓確의 生涯와 政治活動」『한국인물사연구』 18, 2012.

16세기 여류문사 송덕봉(宋德峰)의 삶과 성리학적 지향

03

이 성 임 Lee Sung-im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sungimlee@hanmail.net

1. 들어가며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관련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료의 부족은 절반 이상인 여성의 삶을 매몰시켰다. 그러나 16세기를 살다 간 양반가 여성 홍주 송씨, 송덕봉(宋德峰, 1521-1578)은 예외적인 존재이다. 개인적으로 문집을 남겼으며 일기 자료가 남아 있다. 송덕봉은 16세기 경사(經史)와 시문(詩文)에 뛰어나 여사(女士)로 알려져 있다. 즉, 그녀는 조카 송진(宋震)을 통하여 『덕봉집(德峰集)』이라는 시문집을 남겼으며, 그녀의 남편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이 작성한 『미암일기(眉巖日記)』(1567-1577)에 행적이 소상하게 드러나 개인적인 삶을 다양하게 조망할 수 있다.

송덕봉에 대한 연구는 한문학 · 역사학 · 사회학 · 여성사 분야에서 다각도로 진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서로 상이하게 이루어졌다. 한문학 분야에서는 송덕봉의 시문에 치중하여 평가 하였고,[1] 역사학 분야에서는 가정경제의 주도자로 이해하였으며,[2] 또한 사회학이나 여성사 분야에서는 젠더(gender) 역할에 주목하여

---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본고는 필자의 논문을(「16세기 宋德峰의 삶과 성리학적 지향」『歷史學硏究』 45, 2012) 저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1) 송재용, 「여류문인 송덕봉의 생애와 문학」, 『국문학논집』 15(1997); 「宋德峰의 生涯와 詩世界」, 『退溪學硏究』 17(2003); 정창권, 「『眉巖日記』에 나타난 宋德峰의 일상생활과 창작활동」, 『어문학』 78(2002); 「16세기 여성시인 송덕봉 작품집」, 『여성문학연구』 8(2003).

(2) 한효정, 「17世紀 前後 兩班家 婦人의 經濟活動 硏究」(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채민미, 「16세기 사대부가 여성의 家政運營과 生活」(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현대적인 모습을 부각하였다.(3) 그러나 우리가 송덕봉을 친근하게 느끼게 된 데에는 대중서의 역할이 매우 컸다.(4) 이에 의하면 송덕봉은 시댁에서 자신이 담당한 역할을 강조하고, 남편이 친정 일에 좀 더 적극적이기를 요청하는 당찬 여성으로 묘사되었다. 마치 16세기 여성에서 현대성을 찾으려는 듯하다.

그러나 송덕봉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그녀가 살아갔던 시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즉, 16세기라는 시대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시기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성리학적 삶을 지향하던 시기였다. 여기서 성리학적인 삶이란 『주자가례(朱子家禮)』·『소학(小學)』·『내훈(內訓)』 등 당대의 성리서(性理書)를 바탕으로 한 생활방식이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성리학은 퇴색된 이론체계이지만, 16세기에는 선진적인 이념이자 삶의 방식이었다. 송덕봉을 성리학적 이념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그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대하여 그녀의 남편과 주위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2. 송덕봉의 가계와 그의 남편

송덕봉은 1521년(중종 16) 홍주 송씨 송준(宋駿, 1477-1549)과 어머니 함안 이씨 사이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녀의 휘는 종개(鍾介)이고 자는 성중(成仲)이며 호는 덕봉(德峰)이다. 여성으로서는 흔하지 않게 휘와 자, 호가 모두 남아 전한다. 또한 덕봉은 그녀가 거주하던 곳인 담양군 대곡의 뒷산을 가리킨다.


그림1. 송덕봉 신주의 함중 모습(5)

송덕봉의 친가는 홍주 송씨이다. 홍주 송씨는 담양에

(3) 박미해, 「16세기 夫權과 婦權의 존재양식 -『眉巖日記』에 나타난 柳希春과 宋德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지』 18-1(2002); 「16세기 가족관계와 家父長權: 유희춘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1(2002); 김경미, 「조선여성의 또 다른 삶」, 『여성이론』 7(2002); 백승종, 「16세기 조선사회의 젠더gender 문제와 성리학 -송덕봉이란 여성의 입장에서 살핌」, 『歷史學報』 197(2008).

(4) 정창권,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사계절, 2003); 김경미, 「임금 앞에 서고 싶었던 규방의 부인, 송덕봉」,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돌베개, 2004); 정해은, 「남편과 일상을 공유하다, 송덕봉」, 『조선의 여성, 역사가 말하다』(너머북스, 2011).

(5) '고정부인송씨휘종개자성중신주(故貞夫人宋氏諱鍾介字成仲神主)'라고 되어 있다. 송덕봉의 휘는 종개(鍾介), 자는 성중(成仲)이었다. 흔히 조선시대 양반 여성은 이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함중에서 휘 종개와 자 성중이 확인된다. 즉, 홍주 송씨는 혼인하기 이전에 집안에서 종개로 불리었던 것이다.

근거를 갖고 있으며, 함안 이씨 · 선산 유씨 · 삭녕 최씨 등 당대의 유력 가문들과 중층적인 혼인관계를 통하여 호남의 중심적인 사족으로 성장한 가문이다.



그림2. 『국역 덕봉집』(6)

홍주 송씨는 송평(宋枰) 대에 순창에서 담양으로 옮겨간다. 아버지 송준은 1507년(중종 2)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음서로 사헌부 감찰, 단성현감을 지냈다. 그는 진주에 근거를 갖는 이인형(李仁亨, 1436-1497)의 딸과 혼인하여 3남 2녀를 두었다. 3명의 아들은 송정로(宋廷老) · 송정언(宋廷彦) · 송정수(宋廷秀)이며, 두 명의 딸은 변수정(邊守禎)과 유희춘(柳希春)에게 출가하였다. 송정로는 진사시에 합격하여 충순위를 지냈고, 송정언의 아들 송진(宋震)이 후에 송덕봉의 시 38수를 모아 첩으로 간행하였다.(7)

송덕봉의 외가는 함안 이씨이다. 함안 이씨는 경상도 진주에 근거한 뛰어난 명문거족이다. 이들이 근거를 함안에서 진주로 옮긴 시기는 이즐(李騭) 대이다. 외할아버지 이인형(李仁亨, 1436-1497)은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문인으로 학행이 뛰어났다. 그는 문과를 통하여 관직에 나아가 대사헌과 예조참판 · 전라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무오사화 당시 김종직의 문인이라는 이유로 부관참시 되었다.

이인형에게는 4남 5녀가 있었는데, 4명의 아들은 이핵(李翮) · 이분(李汾) · 이영(李翎) · 이고(李翺)이고 5명의 딸은 박유(朴榴) · 송준 · 조숙겸(曺叔謙) · 정난욱(鄭蘭郁 · 진한우(陳漢佑)에게 출가하였다. 이인형의 장남 핵은 김종직의 사위로 효행으로 널리 알려졌다. 어머니가 병이 걸리자 단지(斷指)하여 정려된 사실이 『해동삼강록(海東三綱錄)』에 실려 있다. 송준은 이인형의 둘째 사위이다. 송준이 어떠한 까닭에 이인형의 사위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호남에 근거한 최보(崔溥, 1454-1504)가(8) 이인형과 함께 김종직에게 동문수학하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유희춘은 자신의 외조인 최보 뿐만 아니라 처외조인 이인형에 대한 존경을 아끼지 않았다. 어쨌든 송준은 당시의 풍조에 따라 처가살이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 자녀들도 담양보다는 진주에서 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송덕봉의 교육과 학문형성에는 외조와 외삼촌의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6) 송덕봉의 친정조카인 송진이 편집하여 전해지고 있다. 송덕봉이 양반가 부인으로서 시문집을 남겼다는 것이 주목된다. 그녀의 시문집은 조선후기에도 알려져 널리 읽혔다. 최근에 조선대 고전연구원에서 그녀의 시문집을 번역하여 『국역 덕봉집』을 간행하였다.

(7) 이 문집은 최근에 번역 간행되었다(문희순 · 안동교 · 오석찬, 『국역 덕봉집』,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국역총서 1, 심미안, 2012).

(8) 崔溥는 한자음이 최부이나, 이름자이므로 최보라고 읽는 것이 옳다. 현재 탐진 최씨 가문에서는 최보라고 한다.



그림3. 『해동삼강록』(9)

송덕봉의 시댁은 선산 유씨이다. 그녀는 1536년(중종 31) 12월 16세의 나이에 8년 연상인(24세) 유희춘과 혼인하였다. 유희춘의 자는 인중(仁仲)이며 호는 미암(眉巖)·인재(寅齋)이다. 고조인 유문호(柳文浩) 대에 영남지방에서 전라도 광양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순천으로 옮기게 되는데, 관직은 감포만호 였다.

유희춘의 부 유계린(柳桂麟, 1478-1528)은 관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호남의 대학자 최보(崔溥)의 사위가 되어 이 가문이 호남에 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계린에게는 2남 3녀가 있었는데, 2남이 유성춘(柳成春)과 유희춘(柳希春)이다. 선산 유씨는 이들 형제의 관직진출로 인하여 명문거족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유희춘은 어려서 부 유계린에게서 수학하였다. 유계린은 호남사림의 거두 최보와 김굉필(金宏弼, 1454-1504)에게 수학하였다. 유희춘은 최산두(崔山斗, 1483-1536)를 거쳐 김안국(金安國, 1478- 1543)의 고제(高弟)가 된다. 김안국은 조광조와 더불어 중종대 정치에 혁신을 가져온 사림파 관료 중의 한 사람이다.

이러한 김굉필 계통의 기묘사림파의 학문적 영향으로 유희춘은 '귀경학(貴經學) 천사장(賤詞章)'의 학문경향을 견지하였고 경서를 널리 보아 선조대의 주자학연구 및 학문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유희춘은 성균관 유생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책 중의 신명(神名)'이요, '동방(東方)의 주자(朱子)'로 불리었다. 유희춘은 국왕 선조(宣祖)의 학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희춘은 25세 되던 1537년(중종 32)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이어 다음 해에 문과에 급제하여 그 해 성균관 학유로서 사환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홍문관 수찬으로 관료생활을 하다가 1543년(중종 38) 6월 무장현감에 부임하였다. 2년 후 인종(仁宗)이 즉위하면서 다시 홍문관

(9)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충(忠)·효(孝)·열(烈)로 이름난 인물의 행적과 전설을 수록한 책이다. 1805년(순조 5) 김성은(金性溵) 등에 의하여 편집, 간행한 것이다. 여기에 이인형의 장남 핵의 효행사실이 실려 있다. 이 책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수찬이 되어 상경하고 명종(明宗)이 즉위한 후로는 사간원 정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중종(中宗)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하여 일시 윤임(尹任, 1487-1545) 세력이 득세하였으나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죽고, 이를 이은 명종이 나이 어려 문정왕후(文定王后, 1501-1565)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부터 윤원형(尹元衡, ?-1584) 일파가 득세하였다. 이 때 유희춘은 파직되어 귀향하였는데, 다시 1547년(명종 2) 9월의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절도안치 되었다. 그러나 제주도가 그의 향리 해남과 가깝다는 이유로 다시 종성으로 유배되어 이곳에서 18년간 유배생활을 하였다. 1565년(명종 20) 문정왕후가 죽고 이어 윤원형이 축출되자 충청도 은진(恩津:논산)으로 유배되고 명종이 죽고 선조가 즉위하면서 성균관 직강으로 다시 관직에 나아갔다.

이후 유희춘은 10여 년 동안 내직으로 사헌부 장령, 사간원 사간, 성균관 대사성을 비롯하여 홍문관 부제학, 예조참판, 사헌부 대사헌을 지냈으며, 외직으로는 전라감사를 지냈다. 이 중 홍문관 부제학에 가장 오래 재직하였다. 유희춘에 대한 선조의 신임은 특별나서 1571년(선조 4) 10월 유희춘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 대사헌에 추천되지도 않았는데 특채하였으며, 1577년(선조 10) 3월 부제학이던 유희춘에게 자헌대부를 제수하였다.

3. 전통적인 친정살이

16세기는 본래의 전통적인 삶과 성리학적인 삶의 교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려시대 이래의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면서 성리학적인 삶을 지향하였다. 전통적인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혼인 후 거주형태를 들 수 있겠다. 혼인을 처가에서 치루고 처가에서 거주하는 것이 고려시대 이래의 전통이었다.

송덕봉 내외는 물론이고, 아들, 딸, 손자 대까지 이러한 원칙은 지켜지고 있었다. 이는 후대뿐만 아니라 선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희춘의 선대는 광양 → 순천 → 해남 → 담양의 순으로 옮겨가는데, 이는 처가를 따라 이주한 결과이다.

송덕봉과 유희춘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들은 1536년(중종 31) 12월 혼인하여(송덕봉 16세, 유희춘 24세)[10] 1577년(선조 10) 5월 유희춘이 사망할 때까지 40년 5개월을

(10) 유희춘은 당신의 어머니 탐진 최씨가 자신을 장가보낼 때 썼던 혼서를 꺼내보고 있다. 유희춘은 1536년(중종 31) 10월 6일 24살의 나이로 16살인 송덕봉과 혼인하였다. 어머니 탐진 최씨는 안극상(安克詳)의 처를 매파로 삼아 혼인을 성사시켰다.

해로하였다. 이 기간 동안 거주형태가 확인되는 기간은 35년 9개월(88%)인데, 이 중 유희춘 내외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한 기간은 17년 9개월로 전체의 49.8%에 불과하다. 조선시대 관직자의 부부동거율이 절반 이하였던 것이다. 유희춘 내외의 동거율이 더욱 낮아진 것은 유희춘이 오랫동안 유배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부부는 유배생활로 인하여 13년 3개월 동안 떨어져 살았다. 그나마 나머지 6-7년을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송덕봉이 시어머니 탐진 최씨의 상을 마치고 홀로 남편의 배소인 함경도 종성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유희춘이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관직생활을 시작하자 부인은 담양으로 돌아갔다. 즉, 유희춘은 서울로 올라가고, 송덕봉은 친정으로 갔던 것이다. 이는 송덕봉이 남편의 유배기간 줄곧 친정인 담양에서 생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유희춘이 해배되었을 당시 해남의 집은 다 쓰러져 가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신주도 해남에 사는 누이가 보관하고 있었다. 이어 송덕봉 내외가 해남에 집을 짓고 이주하지만,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을 계기로 창평 수국리로 옮기게 되었다.(11) 이후 선산 유씨의 근거지는 담양으로 정해졌다. 이로 인하여 현재 유희춘 내외를 기념하는 모현관과 미암기념관이 송덕봉이 출생한 덕봉(德峰) 아래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림4. 송덕봉 부부의 묘소(12)



그림5. 미암사당

이러한 거주형태는 송덕봉 내외의 아들과 딸 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잘 알려져 있듯이 아들 유경렴(柳慶濂)은 김인후(金麟厚)의 딸 울산 김씨와 혼인하였다. 유경렴의 장인이 대학자 김인후였던 것이다. 아들은 혼인과 함께 김인후의 집으로 들어갔고, 이들 사이의 2남 1녀도 처가인 장성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다. 며느리 울산 김씨는 시가의 대소사에 왕래할

(11) 지금 이곳의 행정구역상 주소는 전라남도 담양군 장산리이다.

(12) 이들 부부의 묘소는 전라도 담양군 장산리 종가 뒤편에 위치한다. 그 옆에는 첩 방굿덕의 무덤도 남아 있다. 방굿덕의 무덤은 그녀가 평생동안 남편 곁을 떠나지 않고 수절하였기 때문에 남편 옆에 묻어 준 것이다.

뿐 그녀의 근거지는 줄곧 장성이었다. 그러므로 손자들의 입장에서는 친가보다는 외가와 더욱 친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혈육의 정이 끌리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유희춘 내외는 항상 손자들을 보고 싶어 했다. 이들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담양을 방문할 때에는 손자를 대동하기를 기대하였다. 아들 내외는 장손 유광선(柳光先)이 혼인하던 시기에 담양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유광선은 친가로 돌아온지 얼마 안되어 혼례를 치루고 전라도 부안에 위치한 그의 처가로 들어가게 된다. 유광선의 거주방식은 외가에서 출생 · 성장하여 처가로 들어가는 16세기까지의 전형적인 형태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유희춘은 손자의 혼사를 주관하고 어린 손자 유광연(柳光延)의 과거공부를 독려하였다. 외가와의 친밀도는 광선의 혼례과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외삼촌 김종호(金從虎)는 광선의 혼인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돈댁을 방문한다. 외삼촌이 아버지와 함께 조카의 혼례에 위요로[13] 참석하는 것도 조선후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광경이다. 김종호가 사돈댁을 방문하자 유희춘은 일부러 어린 손자 광연을 불러 외삼촌을 만날 수 있게 배려하였다.



그림6. 『미암일기』 전사본[14]

송덕봉 내외는 며느리가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섭섭함을 느끼지 않았다. 1570년(선조 3) 4월 며느리 울산 김씨는 시댁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장성으로 돌아갔다. 그 이유는 친정어머니가 외로워서 불렀다는 것이다. 친정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딸 내외와 함께 생활하다가 이들이 시가로 가자 이들에게 빨리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13) 위요(圍繞)는 혼례식에 참석하는 대표자이다. 대개의 가문에서는 덕망 있고 관직이 높은 인물을 위요로 선정하고, 여기에 신랑의 아버지와 외삼촌이 함께 참석하였다. 당대에는 위요 수준을 가지고 반격(班格)을 판단하기도 하였다.

(14) 미암 유희춘의 일기로 1567년부터 1577년까지 작성되었다. 조선시대 가장 대표적인 일기자료로 손꼽힌다. 이 일기는 판본이 다양한데, 위 자료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송덕봉은 "이번 달에 며느리가 장성으로 돌아갔는데 친정어머니가 외롭게 살면서 불렀기 때문이지요."하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였다.

유희춘의 손자 광선의 혼인과정을 통하여 거주지 선정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광선은 나이 16세가 되자 남원의 김장(金鏘) 집안으로 혼처를 정하였다. 신부는 부안 김씨로 선전관 김대장(金大壯)의 손녀이며, 사과 김장의 딸 이었다. 혼례는 1576년(선조 9) 2월 19일 처가에서 진행되었고, 상객으로 부 유경렴 · 외삼촌 김종호 · 육촌형 유광문(柳光雯)이 참석하였다. 시어머니 울산 김씨는 이 혼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혼례를 치룬 후 손부는 친정에서 시아버지를 비롯한 참석자에게 술을 올리는 것으로 현구고례(見舅姑禮)를 대신하였다. 이것이 시댁어른과의 만남의 전부였다. 그녀는 이후에도 전혀 시댁을 방문하지 않았다. 광선의 혼례를 치룬 후 유경렴은 이틀 뒤에 담양으로 돌아와 유희춘에게 혼례의 전 과정을 낱낱이 보고하였다. 이에 유희춘은 신부의 생김새가 어떠하며 가계운영을 잘 할 것 같은 지를 챙겨 물었다. 광선이는 혼례를 치룬 지 4일째에 담양으로 돌아왔으나 이 행차에도 신부는 동행하지 않았다. 그저 광선이가 처가에서 마련한 음식을 싸가지고 오자 유희춘은 주위의 친인척을 불러 음식을 나누어 먹을 따름이었다.

혼례를 치룬 이후 신부는 자신의 집에 머물었으며, 대신 신랑이 처가와 본가를 왕래하였다. 광선이는 25일 외가를 들러 29일에 다시 처가로 들어갔다. 광선이는 다시 한 달 뒤에 본가로 돌아왔다. 이후 이곳에서 40여 일간 머물다가 다시 처가로 갔다. 이와 같이 몇 차례 처가와 본가를 왕복하더니 얼마 후에는 완전히 처가로 들어가게 되었다. 신랑이 처가로 들어감에 따라 이제 본가 가족들과는 이별할 수밖에 없었다. 일기에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밥을 먹은 후 광선이 남원의 장인 집으로 돌아갔다. 광연(光延)과 어린 누이동생 봉례(奉禮)가 울어 눈물이 줄줄 흐른다. 형제간에 지극한 우애의 정이 어려서부터 나타나니 우리 집안의 내력이다.(15)

(15) 『미암일기』, 1576년 4월 27일조.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하여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다. 즉, 광선이 혼례를 치르자 동생 광연과 봉례(奉禮)는 광선이 이제 본가를 떠나 처가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헤어짐으로 형제간에 눈물을 흘리자 유희춘은 이러한 지극한 우애의 정이 우리 집안의 내력이라고 하고 있다.

혼인 이후 사위가 처가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위에게는 처가살이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이는 사위가 처가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겪는 어려움을 말한다. 이는 조선후기 며느리가 시댁에서 쉽게 적응 하지 못하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다.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유광선의 처가살이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비슷한 시기의 자료인 『묵재일기(默齋日記)』(1535-1567)를 통하여 대체적인 경향을 알 수 있다. 1561년(명종 16)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은 손녀 이숙희(李淑禧)가 15살이 되자 1월에 계례를 치루고, 11월에 결혼을 시킨다. 상대는 한양에 사는 정언규(鄭彦珪)의 아들 정섭(鄭涉)으로 숙희와 정섭은 동갑나기이다. 거리상의 이유때문인지 정섭의 아버지 정언규는 혼례에 참석하지 않았고, 혼례 이후 신랑 정섭은 처가인 성주에서 곧바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어린 사위 정섭은 이러한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다. 그는 혼인 이후 5-6일이 지나면서 본가를 그리워하여 때때로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처조(妻祖)인 이문건에게 자신의 본가인 한양으로 돌아가겠다고 요청한다. 이문건이 허락하지 않자 정섭은 떼를 쓰기 시작하고 그래도 들어주지 않자 다시 울기 시작하였다. 이어 정섭은 자신은 과거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곳은 추워서 공부하기가 어려우니 한양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당시 성주가 한양보다 추웠을 리는 없을 것이다. 이문건의 입장에서는 실로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이문건은 사돈인 정언규에게 편지를 넣어 정섭을 올려 보내겠다는 뜻을 전하게 되고, 정언규가 허락하자 결국 정섭은 서울로 올라갔다. 이후 정섭은 올라간 지 3개월 후에 다시 돌아왔으며, 다음부터는 손자인 숙길(淑吉)과 함께 처가의 구성원으로 생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숙희는 임신을 하여 딸을 낳았고, 혼인한 지 3년이 지난 1564년(명종 19) 시아버지가 성주와 가까운 경산현감으로 부임하자 처음으로 시부모를 찾아뵈었다.[16]

이와 같이 딸이 혼인 이후 친정에 거주하게 되니 친정어머니와 딸의 서로 화목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였다. 이는 송덕봉의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하여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6) 김선경, 「공부와 경계확장의 욕망: 16세기 여성 이숙희 이야기」, 『역사연구』 17(2007).

> 부모는 딸자식에게 총애를 다 쏟으며 대우했는데 딸은 성품과 행실이 어그러져 어제 계집종에게 성을 내더니 어머니에게까지 욕을 해댔다. 내 꾸지람을 듣고도 또 스스로 지나친 말을 쏟아내자, 부인이 "이처럼 사납고 어그러진 딸년과는 함께 살 수 없다."하였는데 내가 크게 꾸짖어서 꺾어버렸다.(17)

하루는 딸이 계집종에 이어 어머니(송덕봉)에게 욕을 해대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송덕봉이 사납고 어그러진 딸년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한탄하였다. 여기서는 여류문사 송덕봉도 그저 생활인 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나이가 든 딸이 친정엄마를 허물없이 대하는 광경이 연상된다. 어쨌든 유희춘은 버릇없는 딸을 꺾기 위하여 엄하게 꾸짖었다.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하니 당연히 외손들과 친밀할 수밖에 없다. 딸은 해남 윤씨 윤관중(尹寬中)과 혼인하여 슬하에 은우(恩遇)라는 딸을 두었다. 은우는 매우 똑똑하고 영리했던 여성이었다. 한번은 송덕봉이 은우를 데리고 신문 밖에 사는 참의 김난상(金鸞祥, 1507-1570)의 회갑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돌아온 송덕봉은 당시의 정황을 남편에게 자세히 이야기 하였다. 좌중이 모두 송덕봉의 용모와 언사, 은우의 안색과 행동거지에 탄복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16세기 혼인 이후 처가거주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며, 이는 17세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송덕봉도 혼인 이후 친정인 담양에서 주로 생활하였다. 시댁에 대소사가 있을 때 왕래하였지만 친정거주라는 원칙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4. 성리학적 삶의 실천과정

1)시어머니 삼년상과 사당의 건립

16세기 혼인 이후 부인의 거주형태는 친정살이였다. 이러한 중에 송덕봉은 시어머니의 3년상을 치렀다. 조선 후기에 양반가에서 3년상을 치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16세기까지만 해도 이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

(17) 『미암일기』, 1574년 6월 29일조.

유희춘의 유배된 이후 송덕봉이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생활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황상 송덕봉이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생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시어머니 탐진 최씨는 오히려 해남에 살던 딸과 함께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유희춘의 누이 오천령(吳千齡)이 혼인 이후 해남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느리 송덕봉은 담양에서 생활하다가 시어머니의 말년에 해남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다음의 자료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부인이 꿈에 어머니를 뵈었다고 한다. 생각건대 어머니는 만년에 이 며느리의 효성에 감동하여 북쪽 유배지(종성)까지 편지를 보내신 적이 있었고, 또 민희남(閔喜男)의 처에게도 말씀하셨다.(18)

송덕봉이 꿈에 시어머니를 뵈었다고 하자 유희춘이 과거에 자신의 어머니가 며느리를 칭찬하던 일을 회상하고 있다. 탐진 최씨는 송덕봉의 효성에 감동하여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성까지 편지를 보내 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송덕봉이 시어머니를 모신 것은 어디까지나 말년에 한정되는 일이었다.



그림7. 모현관(19)



그림8. 유희춘의 『미암일기』 원본(20)

(18) 『미암일기』, 1572년 9월 17일조.

(19) 현재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군 장동길 76번지에 위치한다. 1959년 문중에서 미암 종가 앞에 세운 것이다. 최근에 바로 옆에 미암박물관이 건립되었다. 유희춘과 송덕봉의 생활과 학술을 기념하기 위한 양성평등의 박물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 『미암일기』 원본은 현재 미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는 임진왜란으로 사초(史草)가 불타버려 불완전한 『선조실록』을 편찬하는 주된 자료로 활용되었다. 1937년 탈초 간행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전되었다.

송덕봉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몸소 삼년상을 거행하였다. 즉, 1570년(선조 3) 6월 한양에서 관직생활을 하던 유희춘은 부인에게 자신이 몇 달 동안 혼자 지낸 것을 자랑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의 편지를 반박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구체적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 또한 당신에게 잊지 못할 공이 있으니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은 몇 달 동안 홀로 잤던 일을 두고 붓을 들어 편지를 쓸 때마다 글자 가득 공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순에 가까운 나이로 이처럼 혼자 잔다면 당신의 기운을 보기(保氣)하는 데 매우 이로운 것이니, 이는 결코 제게 갚기 어려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귀한 관직에 올라 도성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처지이니, 비록 몇 달 동안 홀로 잤다 할지라도 또한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옛날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사방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당신은 만 리 밖에 있어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슬퍼하기만 했지요. 그래도 지성으로 예법에 따라 장례를 치러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했는데, 곁에 있던 어떤 사람은 '묘를 쓰고 제사를 지냄이 비록 친자식이라도 이보다 더할 순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삼년상을 마치고 또 만리 길에 올라 험난한 곳을 고생스레 찾아간 일은 누군들 모를까요. 제가 당신에게 이처럼 지성스럽게 대한 일을 두고 잊기 어려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몇 달 동안 홀로 잤던 공과 제가 했던 몇 가지 일을 서로 비교하면 어느 것이 가볍고 어느 것이 무겁겠습니까. 바라건대, 당신은 영원히 잡념을 끊고 기운을 보양하여 수명을 늘리도록 하세요. 이것이 제가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 뜻을 이해하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21]

송덕봉은 유희춘에게 자신이 시어머니의 상을 당해 예에 따라 장례를 치루고, 삼년상을 마친 후 단신으로 종성 유배지를 갔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몇 달 동안의 독숙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무겁고 어느 것이 가볍냐고 하였다. 이는 남편의 어줍지 않은 편지에 부인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다는 측면에서 통쾌하게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내용의 본질은 송덕봉이 시어머니의 삼년상을 치름으로서 성리학적 삶을 실현하였다는 데에 있다.

(21) 『미암일기』, 1570년 6월 12일조.

성리학적 삶의 모습은 사당건립을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난다. 당시 조정에서는 종법적(宗法的) 가족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종자(宗子)의 집에 사당을 건립할 것을 강요하였다. 사당의 건립은 종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질서를 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희춘 집의 사당 건립모습은 집짓는 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유희춘은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모두 2채의 집을 지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역사로서는 매우 큰 일 이었다. 처음에 유희춘은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해남 서문 밖에 집을 짓기 시작한다. 해남의 옛 집은 허물어진 곳이 많아 사람이 거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유희춘이 유배에서 풀려났을 당시 부인은 담양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부모의 신주는 딸인 누이가 보관하고 있었다. 해남에 집을 짓고자 한 것은 유희춘 내외가 부계를 따라 근거지를 정하려는 뜻에서였다. 유희춘은 부인과 해남에 새로 집기로 의논하고 다음 해(1568) 3월부터 시작하여 1571년(선조 4) 4월까지 3년 동안 해남 서문 밖에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유희춘이 집안에 사당을 들여 자신이 종자로서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창평에 집을 지을 때에는 사당을 지어 유희춘이 종자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하였다. 해남에 집을 짓고 생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유희춘은 거주지를 처가 인근의 창평 수국리로 옮기기로 한다. 처가가 있는 담양 대곡은 시끄럽고 비좁으며, 해남은 왜구의 출몰이 잦은 곳이므로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어 물이 감돌고 산으로 둘러 싸여 안온한 창평으로 거처를 정하였다. 이전부터 해남에 왜구의 출몰이 빈번하였지만 1555년(명종 10)의 을묘왜변 때에는 그 피해가 매우 컸던 것이다. 그리하여 1575년(선조 8) 10월부터 1577년(선조 10) 2월까지 창평에 집을 짓는다. 이 집의 규모는 '유경렴분재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유희춘의 아들 유경렴은 그의 장자 광선에게 사당 · 와가 55칸 1좌를 나누어 주었다.



그림9. 유희춘 내외의 신주(22)

주목되는 사실은 집의 구조이다. 해남의 집은 북루 · 남루 · 중루 · 서루 · 중대청 · 동퇴 · 서퇴 · 대청 · 행낭으로 구성되어 안채와 사랑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반면에 창평의

(22) 선산유씨 집안의 사당은 1579년에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유희춘의 사후에 중건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라남도 담양 종가에 위치하며, 여기에 유희춘 내외를 비롯한 선대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사당 안의 채색화가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집은 내방 · 대방 · 중당 · 중간 · 고편 · 누편 · 북루 · 사당 · 남고 · 사랑 · 사랑청 · 사랑방 · 누하방 · 허간 등으로 구분하여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고, 여기에 사당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유희춘에게는 형 유성춘이 있어 큰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 유희춘의 선대를 배향하는 것이 예법에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유희춘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사당을 건립하고 있다.

> 내년 7 · 8월에 산역(山役)하고 즉시 사당(祠堂)을 세워야겠다. 희춘이 비록 중자이나 증승지공(贈承旨公)은 광운(光雲)에게는 고조가 되어 대가 다하여 제가 없으나 희춘에게는 대(代)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벼슬이 높은 친손으로서 사당을 세워 제를 지내는 것이 예에 합당한 연유이다.(23)

유희춘은 자신이 전라감사가 되면서 승지로 추증된 조 공준(公濬)이 종손인 광운(光雲)에게는 대가 다하여 제사가 끝났으므로 벼슬이 높은 자신이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에 합당하다고 하였다. 유성춘이 기묘사화로 일찍 죽자 현관(顯官)인 자신이 실질적인 종손의 역할을 대행하였다. 따라서 창평에 집을 지으면서 사당을 지어 선대의 위폐를 봉안하였다. 그 이유야 어찌되었던 이는 종자가 있는 상황에서 중자가 사당을 지어 가묘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16세기에 양반가에서도 여전히 3대 봉사가 행해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후 3대 봉사는 4대 봉사로 전환되었다.

2) 외손녀 교육과 첩의 가족질서 편입

유희춘은 본처인 송덕봉과 1남 1녀를 두었다. 그리고 첩 구질덕과 4명의 딸을 두었다. 아들 유경렴은 김인후의 딸과 혼인하여 2남 1녀(光先 · 光延 · 奉禮)를 두었으나 딸은 해남 윤씨인 윤관중과 혼인하여 은우(恩遇)라는 딸을 두었다. 송덕봉은 딸이 아들이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겨 아들 낳기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하여 조선후기에 보편화된 입양이라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다.

송덕봉은 평생을 딸과 함께 생활하였다. 송덕봉과 유희춘은 외손녀를 매우 사랑하였다.

(23) 『미암일기』, 1576년 3월 9일조.

이들은 은우의 영리한 모습과 성리학적 사고를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송덕봉은 외손녀 교육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자료의 한계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시기를 살아갔던 이숙희라는 여성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숙희는 이문건의 친손녀로 성리학적 교육을 실현한 여성으로 평가된다. 이문건은 자신의 일기에 '숙희가 배우고 싶어 했다' '가르쳐 달라고 청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숙희는 할아버지를 통하여 숫자 · 육갑(六甲) · 27숙(宿)을 익혔고, 천자문 · 열녀행실도 · 소학 등을 배웠다. 이러한 정도가 16세기 여자 아이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과정이었을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여성의 교육과정에서도 성리학이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숙희는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효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였다. 즉, 그녀는 할머니가 편찮으시자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적을 만들어 이를 죽엽수에 타서 할머니가 드시게 하였다. 숙희는 나중에 허벅다리에 난 상처로 많은 고생을 하지만, 이문건은 숙희의 이러한 행동을 주변에 널리 자랑하였다.

그러면 이제 은우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자. 송덕봉은 인근의 대소사에 은우를 데리고 다녔으며, 은우가 할머니를 꼭 빼닮았다고 칭찬하면 매우 기뻐하였다. 결국 은우의 유교화(儒敎化) 교육은 외할머니 송덕봉이 실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은우의 언행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자.

> 한번은 외손녀 은우의 영특함이 남달라 함께 놀던 소비(小婢) 말덕(末德)이 손가락을 다쳐 울자 옆에 있던 소비(小婢) 죽매(竹梅)가 말하길 "아기씨는 어찌 같이 울지 않습니까?" 하자 은우가 말하길 "만일 어머니가 우신다면 내가 당연히 울어야겠으나 비자(婢子)가 우는데 어찌 같이 울겠느냐?" 하였다 한다. 친소존비(親疎尊卑)의 구분을 분별할 줄 알아 식견이 높은 것이 보통이 아니니 어찌 기특하지 않겠는가?(24)

은우가 어린 비 말덕이 손가락을 다쳐 울자 옆에 있던 죽매(竹梅)가 아기씨는 왜 울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만일 어머니가 우신다면 나도 당연히 울어야 하겠지만 비가 우는데 어찌 같이 울겠느냐!"라고 하였다. 이에 유희춘은 은우가 친하고 먼 것, 높고 낮은 것을 구분할 줄 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였다.

(24) 『미암일기』, 1573년 2월 19일조.

해성(海成)의 재혼에 대한 은우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하자. 여기서 얼이모는 유희춘의 첩이 낳은 딸을 말한다. 유희춘의 4명의 얼녀 중에 첫째 딸이 해성이다. 해성이는 처음에 어란포 만호 정홍(鄭鴻)의 첩으로 출가하여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나이차가 많아 일찍 남편과 사별하게 된다. 본처가 아니라 첩이기 때문에 남편과 나이 차이가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셋째 딸 해명(海明)이는 병이 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에 유희춘은 얼녀들의 재혼을 적극 추진하였다. 결국 해성은 보성군수 오운(吳沄)의 첩으로 다시 시집갈 수 있게 되었다. 해성의 재혼은 16세기 첩의 딸이라는 상황에서 가능한 일 이었다. 그러나 성리학으로 무장된 은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이에 은우는 해성의 재혼에 대하여 "사람의 남편은 하나뿐이다. 이미 혼인했으니 어찌 두 남편의 이치가 있겠는가?" 하면서 얼이모를 질책하였다. 그러자 송덕봉 내외는 은우의 언행을 보고 참으로 기특하여 가문을 빛낼 아이임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송덕봉의 교육내용이 은우의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제 송덕봉과 첩의 관계를 보도록 하자. 유희춘은 송덕봉이라는 본처 이외에 15세 연하 구질덕(仇叱德)이라는 첩이 있었다. 그녀는 방씨가의 얼녀로 '방굿덕'으로 불리운다. 그녀는 유희춘의 종성으로 유배를 갈 때 개인적인 시중을 들기 위해 동행하게 된 것이다. 당시 방굿덕은 20여 살 정도로 일설에는 송덕봉이 직접 선택하였다고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러나 방굿덕은 유희춘의 자식을 낳기 시작하여 무려 4명의 딸을 낳았다. 멀리 남쪽 끝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자 송덕봉의 분노는 적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상을 치루고 나서 단신으로 남편을 찾아 나섰다. 해남에서 종성까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가 가는 도중에 마천령에 올라 지은 지가 잘 알려져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마천령 위에서	마천령상음(磨天嶺上吟)
걷고 또 걸어 마천령에 이르니	행행수지마천령(行行遂至磨天嶺)
동해는 거울처럼 끝없이 펼쳐있구나	동해무애경면평(東海無涯鏡面平)
부인의 몸으로 만 리 길 어이 왔는가	만리부인하사도(萬里婦人何事到)
삼종의리 중하니 이 한 몸 가벼운 것을	삼종의중일신경(三從義重一身輕)

이 시는 송덕봉이 시어머니의 삼년상을 치루고 남편과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해남에서 종성으로 가는 도중에 지은 것이다. 위 시 중에 주목되는 구절이 마지막이다. 여기서 송덕봉은 "삼종의리(三從義理) 중(重)하다"라고 하였다. 송덕봉은 부인이 남편을 찾아갔다는 점에서 삼종의 의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였다.

송덕봉이 종성에 도착하자 방굿덕은 그녀의 딸들을 데리고 해남으로 돌아갔다. 첩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제 송덕봉은 남편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유희춘의 처와 첩의 거주지는 담양과 해남으로 나뉘어 있었다. 송덕봉은 담양에 거주하고 있어 해남에 사는 첩과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다. 유희춘이 해남을 방문할 경우 첩과 함께 생활하였다. 1570년(선조 3)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유희춘은 첩과 함께 생활하였다. 이 때 부인 송덕봉이 해남으로 내려오게 되자 첩은 부인이 도착하기 전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즉, 첩이 부인을 대면하기 꺼려하여 피하였던 것이다.

당시는 유희춘이 취첩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때여서 첩에게서 성적인 욕망을 느끼지는 못하였다. 이제 첩과 얼녀는 거두어야 할 부담스런 식솔이었다. 유희춘은 첩가의 생계대책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는가 하면, 부릴 수 있는 노비를 지급하기도 하고, 자신이 배정받은 반인(伴人)을 첩가(妾家)에서 부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인의 허락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미처 허락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나중에라도 확인을 받았다. 유희춘은 첩가에 대한 일을 부인에게 일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처첩(妻妾)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존재하였다. 유희춘은 처첩간에는 질서가 존재하여 첩은 처에게 복종하고, 처는 첩과 자식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유희춘은 첩과 그 얼녀들이 송덕봉을 중심으로 가족질서에 편입되기를 바랐고, 송덕봉도 이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첩으로 하여금 남편의 옷을 지어 보내도록 하는가 하고, 얼녀들을 자상하게 보살폈다. 이에 얼녀들도 송덕봉의 배려에 감동하였다.

유희춘은 송덕봉에 대하여 여러 서자녀를 어루만지고 사랑하는 모습이 상곡부인(上谷夫人)과 같다고 칭찬하였다. 상곡부인은 당 문종 때 상서우복야를 지낸 이오(李晤)의 딸로 상곡군태부인(上谷郡太夫人)이 된 범양노씨 이다. 그녀는 시부모에게 효도가 지극했고 친족의 상을 정성껏 치러 칭송이 자자했다고 한다. 1575년(선조 8) 12월 19일 해복이 부인의 생일을 맞이하여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보내자 유희춘은 "부인이 얼녀를 다독이고 어루만져 친자식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해복 등이 감격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송덕봉은 남편의 유배 길에 시중들 여종을 동행시킬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식을 낳아 첩이 된 후에는 이들을 가족질서에 편입시켜 가계질서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5. 나오며

16세기는 고려이래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조선의 지배층이 지향하고자 했던 성리학적인 삶이 교차되었다. 즉, 성리학적인 삶이 정착되기 이전이어서 재산의 남녀균분상속, 혼인 후 처가거주, 친가 이상으로 외가와 처가를 중시하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유지하였다. 그러면서도 부모가 사망하면 삼년상을 거행하고, 종자의 집에 사당을 건립하여 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부계질서를 성립하고자 하였다.

송덕봉의 삶은 전통과 이상이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세기에는 혼인 이후 신랑의 처가거주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며, 이는 17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송덕봉 당대에는 물론이고 아들, 딸, 손자 대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손자 광선의 혼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부는 혼인 후 시댁에 왕래하지 않은 반면 대신 신랑이 본가와 처가를 왕래하였다. 그러다가 처가로 완전히 귀속되는 서류부가(婿留婦家)의 형태를 취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며느리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송덕봉은 이러한 전통적인 거주방식을 유지하면서 시어머니의 삼년상과 사당의 건립을 통하여 성리학적 삶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당시에만 해도 삼년상이 일반화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종성에 유배된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년상을 치룸으로서 성리학적 삶을 몸소 실천하였다. 당시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여자의 몸으로 예를 갖추어 삼년상을 치르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이었다. 이 사실은 송덕봉이 남편과 시댁에 당당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다. 친정에 거주하면서 시어머니의 삼년상을 치루는 모습은 당시의 상황이 성리학이 정착되기 이전 과도기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희춘은 10여년의 기간 동안 해남과 담양에 집을 지었다. 해남의 집은 거주하기가 곤란한 상황 이었고, 을묘왜변이 나자 처가와 가까운 창평 수국리로 거주지를 옮겨갔다. 주목되는 사실은 창평의 신축집에 사당을 건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형 유성춘의 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직접 사당을 지어 종손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하였다.

전통과 현대의 뒤섞이는 모습은 외손녀의 교육과 첩의 가족질서 편입과정을 통하여 이해된다. 송덕봉은 외손녀 은우에게 성리학적인 교육을 강화하였다. 즉,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어린 손녀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였다. 송덕봉이 친손녀가 있음에도 외손녀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혼인 이후 처가 거주라는 전통적인 방식 때문이다. 즉, 친손자와 손녀가 있지만, 이들은 외가에서 성장하여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친손녀 봉례도 은우와 마찬가지로 외가에서 동일한 교육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또한 송덕봉은 남편의 첩과 자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족질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다. 그녀는 남편의 뜻을 받들어 유배 길에 시중들 여종을 골라주고, 그녀가 첩이 되어 자식을 낳은 뒤에는 이들을 가족질서에 편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남편인 유희춘이 그녀에게 바라는 바를 실현한 것이다. 그녀는 첩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얼녀들을 자상하게 보살폈다. 그들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이에 유희춘은 송덕봉을 가리켜 성리학을 몸소 실현한 중국의 상곡부인과 같다 하였다.

송덕봉은 16세기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당시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선진적인 생활방식인 성리학적인 삶을 적극 수용하여 실현하고자 했던 성리학적인 여성이다. 그녀의 모범적인 행동은 성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당당함에 매료된 현대인들이 그녀를 끌어내어 지금의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具玩會, 「朝鮮 中葉 士族 孼子女의 贖良과 婚姻 -『眉巖日記』를 통한 사례검토」, 『慶北史學』 8, 1985.
- 국사편찬위원회,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두산동아, 2005.
- 宮嶋博史, 『兩班』(中公新書, 1995) : 노영구 역, 『양반』 강, 1996.
- 기시모토 미오 · 미야지마 히로시 저, 김현영 · 문순실 역,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 역사비평사, 2003.
- 백승종, 「16세기 조선사회의 젠더gender 문제와 성리학 -송덕봉이란 여성의 입장에서 살핌」, 『歷史學報』 197, 2008.
- 송재용, 「眉巖 柳希春의 生涯와 學問」, 『退溪學硏究』 10, 1996.
  「『미암일기』에 나타난 송덕봉의 일상생활과 창작활동」, 『語文學』 78, 2002.
  「宋德峯의 生涯와 詩世界」, 『退溪學硏究』 17, 2003.
  『『眉巖日記』연구』, 제이앤씨, 2008.
- 이성임, 「16세기 柳希春家의 海南造舍와 物力 동원」, 『仁荷史學』 10, 2003.
  「16세기 양반관료의 外情 -柳希春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古文書硏究』 23, 2003.
  「조선시대 兩班의 蓄妾現像과 경제적 부담」, 『古文書硏究』 33, 2008.
- 정창권, 『미암일기(1567-1577),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 2003.
- 채민미, 「16세기 사대부가 여성의 家政運營과 生活」,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한효정, 「17世紀 前後 兩班家 婦人의 經濟活動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문희순 Moon, Hee-Soon
배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moondaal@hanmail.net

17세기 여성 CEO 조애중(曹愛重)의 인간경영

04

1. 조애중과『병자일기』

조애중(曹愛重, 1574-1645)[1]은 춘성부원군 남이웅(南以雄, 1575-1648)의 부인이고,『병자일기』[2]의 저자이다.『병자일기』는 1636년(병자) 12월 병자호란을 당하여 황급히 피난길에 오르기 시작하여, 이 후 서울 집으로 돌아와 정착하여 생활한 1640년(경진) 8월까지 3년 9개월의 나날을 기록한 일기이다.[3]『병자일기』의 시작은 남한산성에 머물고 있는 남편 남이웅으로부터 "일이 급하게 되었으니 짐붙이는 생각도 말고 낮밤을 가리지 말고 빨리 청풍으로 가라"[4]는 화급한 편지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조애중은 양식을 담은 쌀 궤 하나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가지고 온 상자도 묻어야하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다.[5] 이 후 전쟁을 피하여 이 곳 저

(1) 조애중(曹愛重)은 그동안 '조애중' 이라는 이름을 대신해 '남평조씨'로 호칭되어 왔다. 필자는 조애중의 이름을 2013년 5월 4일 남산영당의 신주에서 찾아냈다. 현재 조애중과 남이웅의 묘소는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소재하고 있다. 후손 남대현씨는『병자일기』를 위시해서 선대부터 소장해 오던 남이웅가의 유물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기탁하였다. 건설청은 올 해 이 가운데 12점을 행복도시 제1호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남이웅의 후손들이 공주로 입향하게 된 시기는 1762년 전후 남필복(南必復, 남이웅은 필복의 6대조)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양에 세거하던 남이웅 후손들이 공주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남이웅 부부의 묘소가 공주 반포면에 있고 사패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남대현씨의 진술).

(2)『병자일기』는 1989년 5월 충남향토연구회에서 간행 한『향토연구』5집에 김영한 선생에 의해 자료가 소개되고, 1991년 전형대 · 박경신 교수에 의해『역주 병자일기』가 출판되면서(예전사, 1991.)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문학, 민속, 여성생활사, 국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3) 정확히 1636년 12월 15일부터 1640년 8월 9일까지이다. 조애중의 기록정신으로 유추해 본다면, 이 뒤로 운명하기 전까지의 일기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崇禎丙子日記』의 표제로 묶여진 내용은 여기까지이다.

(4) 1636년 12월 16일. "이리 급ᄒᆞ여시니 짐브티란 ᄉᆡᆼ각디마오 망듀야ᄒᆞ여 청풍으로 가라"

(5) 1636년 12월 16일. "량식이 만히이시…다 두고 다만 ᄲᆞᆯ각 ᄒᆞ나ᄒᆞᆯ 가져오다가…샹ᄌᆞ 다 게 뭇고"

곳 피난처를 바꾸며 겪는 노년기 양반 여성의 고난의 여정이 섬세한 정감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심리적 기저에는 남편 남이웅이 세자를 시종하여 1년 반 동안 심양에 볼모로 끌려가게 됨으로써[6]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무사귀환에 대한 불안감, 슬하의 4남 1녀를 모두 잃고 자식에 대한 애끓는 모정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전통시대의 여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다소 왜곡되어 있는 면도 없지 않다. 17세기 조애중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병자일기』에서 만나는 조애중의 삶은 능동적이고 담대하다. 난을 만나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담대함,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가족과 타인에 대한 이타적 인간경영의 모습, 빈틈없이 가산을 일구고 운영하는 생산자(生産者)로서의 역할 등에서 조애중의 창조적 인생경영 철학을 읽어낼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조애중의 가정 내 주체적 생산자로서의 삶의 모습과 일상을 '인간경영(人間經營)'의 시각으로 독해 하고자 한다. 조애중이 자신을 둘러 싼 타자들 곧 남편, 자녀, 며느리, 서자, 조상, 친족, 빈객 등과의 관계형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인간경영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1. 세종시 금남면 남산영당에 소장되어 있는 조애중의 신주
이 신주의 함중에서 조애중의 이름을 확인하였다.

(6) 1638년(무인)년 5월 18일 돌아왔다.(1638년 5월 21일. "오시는 하여 뎨쇠 드러오니 힝쳐 평안이 열 여듸랜 날 드러오셔 슉빅흐시다 흐니")

2. 호서지역으로의 피난과 귀환

『병자일기』는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크게 피난기(避難期) · 체류기(滯留期)(1636년 12월–1638년 6월 1일)와 귀환(歸還) · 안정기(安定期)(1638년 6월 2일–1640년 8월 9일)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로써 본다면 피난 기간은 18개월이고, 서울로 귀환하여 생활한 기간은 27개월이 된다. 아래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636년 12월부터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여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한 곳은 전북 여산이다. 여산은 형님 의주댁[7]이 거처하고 있는 곳이어서 서로 의지하여 살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8] 이 후 충주로 이동하여 서울로 귀환하기까지 체류하였는데, 충주로 이동한 주요 이유는 서울 가까이 가서 남편의 소식을 빨리 듣고 농사나 지을까함이었다.[9]



그림2. 『병자일기』 (출처 : 행복청)

피난 시기는 조애중의 일생에서 가장 커다란 수난기였다. 이미 슬하의 1녀 4남을 다 잃은[10] 상태였다. 서해안의 무인도 죽도(竹島)에 도착하여 정월 달 눈보라 속에서 연장도 없이 대나무를 베어 가까스로 명매기 새 둥지처럼 두 간 집을 얽었다. 그 집 아닌 집에서 열 네 사람이 생 댓잎으로 바닥을 깔고 지붕을 이어 은신하였고, 종들은 대나무로 막을 만들어 지냈다. 조애중 일행은 찬 밥 몇 숟갈씩 나누어 먹으면서, 물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없는 참혹한 지경에서 눈을 긁어모아 녹여서 먹기도 하였다. 아래의 일기가 그 긴박하고 처참한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다.

---

(7) 남이웅의 생가 큰 형 남이영(南以英)의 부인.

(8) 1637년 3월 9일. "녀산 가 의겨틱 형님이 계다 겨시다ᄒᆞ니 보덕 긔별 올 제 ᄒᆞᆫ가지로 가 디내려"

(9) 1638년 1월 26일. "길나다 녀산을 ᄠᅥ나니 ᄀᆞ이업시 섭ᄉᆞ고 대되 몯ᄌᆞ와 ᄆᆡ일 쇼일ᄒᆞ다가 이리 ᄠᅥ나가ᄆᆞᆫ 셔울히나 갓가이 가셔 긔별이나 듣고 녀름지이나 ᄒᆞ려 움ᄌᆞ기나"

(10) 1640년 1월11일. "나ᄂᆞᆫ 엇딘 팔ᄌᆡ ᄒᆞᆫ ᄉᆞᆯ 네 아ᄃᆞᆯ 나 하 종젹도 업서디건고"

> "튱이과 어산이 대를 븨고 연장이 업서 갓가ᄉᆞ로 이 간 길의예 문 ᄒᆞ나ᄒᆞᆯ 내여 명막의 집ᄀᆞ티 움ᄒᆞᆯ 무드니 ᄉᆡᆼ대닙 ᄉᆞᆯ고 대닙흐로 니여 세 딕ᄂᆡ 힝치 열 네히 그 안해 드러 새아고 죵들은 대를 뷔여 막을ᄒᆞ여 의지코 디내나 믈 업ᄉᆞᆫ 무인되라 대수픠 가 눈을 그러 노겨먹고……모ᄃᆞᆫ 냥반ᄃᆞᆯ 피란ᄒᆞ니 거러의 믈을 나가 기러오ᄃᆡ 우리 힝치ᄂᆞᆫ 거러도 업고 그릇도 업ᄉᆞ니 ᄒᆞᆫ 그릇 믈도 어더 몯머그나 ……(1637년 1월 17일)"

한편으로 적군의 침공으로 우왕좌왕하여 어디로 피난지를 정할지 의론이 통일이 되지 않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긴박한 상황도 발생하였다.(11) 조애중은 피난지에서의 궁핍과 남편과의 이별,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호란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넋을 잃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고,(12) 가슴속에는 늘 불이 붙어 있다고 토로하였다.(13) 일기의 여러 곳에서 "정신이 아득해서 다 기록할 수 없다"는 표현을 자주 하였다.

피난하여 체류한 지역은 호서 지역 전역을 거치다시피 하였다. 주로 친지와 노비 등이 거주하여 연고가 있는 곳을 택하여 이동하였다. 일기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이동경로는 아래의 그림3.【피난 · 체류지 이동경로 지도】와 같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피난 · 체류지역은 모두 호서 지역으로 남하하여 가장 남쪽으로는 여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 근처로 북상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호서 지역의 지명을 공간적 이동에 따라 거론해 보면, 신창 · 긴마루(당진) · 당진 · 서산 · 홍성 · 죽도(보령) · 대흥(예산) · 청양 · 여산(익산) · 유성 · 청안(괴산) · 충주 · 이안 · 월탄 등이다. 이 외에도 경유 또는 전답의 소재와 인물이 오고 간 정황으로 거론된 호서지역 지명도 '소허섬 · 계성(닭잣골) · 바리오디 · 뇽틀 · 덕산 · 니산(노성) · 공주 · 딘즘(진잠) · 쳥쥐(청주) · 년산(연산) · 회덕 · 시화 · 목계 · 님쳔(임천) · 금산 · 홍산 · 한산 · 청풍(청풍) 등이다. 이 가운데는 현재 알 수 없는 호서지역 지명도 많이 있다.

환도 · 안정기는 피난 · 체류기와는 물리적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 여전히 불완전한 시대이기는 하나 이 시기의 일기는 주로 남편의 안정적인 관직 생활기와 빈객접대 · 선물수수 · 농사운영 · 노년기의 질병, 변함없는 제사설행 등의 내용이 일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병자호란이라는 여진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남편의 벼슬살이가 심양에서

(11) 1637년 1월 13일. "도적이 녜산드다 소동으로 세 딕ᄂᆡ 힝츠ᄂᆞᆫ 셔산으로가고 진ᄉᆞᄂᆞᆫ 계셩으로 가 밀산군딕 ᄇᆡ 곳 어드면 셤으로 들고 ᄇᆡ 곳 몯어드면 홍쥐로셔 녀산으로 나가고져ᄒᆞ나 도적이 아ᄆᆞ드러 헤여딜줄 모ᄅᆞ고 큰 길의 나가기를 결단 몯ᄒᆞ여더니"

(12) 1637년 3월 25일. "이 난을 ᄉᆡᆼ각ᄒᆞ니 ᄀᆞ이업서 울고 안자더니"

(13) 1637년 3월 17일. "흉즁 회포ᄂᆞᆫ 블이 ᄆᆡ 양 브트니 엇디 이러아니 ᄒᆞ리오"

귀환한 이후 승진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노부인의 걱정은 끊일 날이 없다. 그 걱정 중의 하나가 '치자(置子)' 문제였다.

> "나죄 티ᄌᆞ 간 일ᄃᆞᆯ로 ᄇᆡ오개 녕감 병판 홍보 나옥ᄒᆞ신 긔별오니 의금부의 가 겨시다 밤듕만 오시다 글언 놀라온 일 업고 티ᄌᆞ ᄃᆡ신 보내기로 이러니 두림이 가게되니 ᄒᆞᆫ 아ᄒᆡ로 이목ᄀᆞ티 잇다가 뎌리 보내ᄂᆞᆫ 졍ᄉᆡ ᄀᆞ이업ᄉᆞ니 이런 시절이 녜도 잇던가 ᄀᆞᆸᄀᆞᄒᆞᆫ 이리로다(1640년 3월 9일)"

> "이 날 졍ᄉᆞ의 녜조판셔 ᄒᆞ시니 티ᄌᆞ 갈 일로 ᄀᆞ이 업ᄉᆞ니 별좌업ᄉᆞᆫ 후ᄂᆞᆫ 슈쵹이 업시 인ᄂᆞᆫ 사ᄅᆞᆷ이되여 디내다가 쳔남이 ᄌᆞ란 후ᄂᆞᆫ 온갖 이릐 이목ᄀᆞ티 잇다 뎌리 보내게 되니 이런 이리 업서ᄒᆞ노라 낸ᄃᆞᆯ 쳡ᄌᆞᄀᆞ티 녀기며 젠ᄃᆞᆯ 뎍뫼라ᄒᆞ랴 이리 늗고 병니예이셔 다시 보디 몯ᄒᆞᆯ가 ᄀᆞ이업서 ᄒᆞ노라"(14)

치자는 병자호란의 여파로 조선의 3공6경 대신들의 적자를 심양에 볼모로 억류시켜 두는 일을 말한다. 남이웅은 집안에 적자가 모두 사망하였기 때문에 서자가 대신 가야할 처지에 놓여 조애중은 마음을 조려 노심초사하였다. 위 1640년 3월 9일 일기는 남이웅의 4촌 배오개 영감 남이공(南以恭, 1565-1640)과 병조판서 홍보(洪霦, 1585-1643)가 적자 대신에 서자나 얼자를 대신 보낸 문제로 옥에 갇힌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네 명의 아들을 모두 잃은 조애중은 이 치자 문제로 이목(耳目)처럼 아꼈던 첩의 아들 두림(斗臨)이마저 멀리 적지에 보내게 될 상황이 발생할까 노심초사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항상 즐거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도 가슴 속 응어리는 자식을 잃은 한으로 맺혀있었고(15) 이 문제는 말년으로 갈수록 삶과 죽음에 대한 허무적인 자세로 고질이 되어 한으로 자리 잡았다. 일기의 후반부에 갈수록 자주 "인간 세상은 하 거짓 일이니 슬프고 괴로운 일이 많다"고 토로하였다. 화려한듯하나 쓸쓸하고, 채워져 있는듯하나 비워져있는 한 노부인의 심리 언저리를 아련하게 보는 듯하다.(16)

(14) 16440년 4월 26, 27일.

(15) 1639년 10월 3일. "샹시 즐거운 사ᄅᆞᆷᄀᆞ티 디내니 제 정녕이 나ᄅᆞᆯ 니ᄌᆞᆫ가 싱각ᄒᆞᄂᆞᆫ가 더옥 셜워 ᄒᆞ노라"

(16) 1639년 3월 18일. "인ᄉᆡ 하 거ᄌᆞᆺ일이니 슬프미 ᄀᆞ이 업고"
1639년 8월 1일. "인ᄉᆡ 하 거ᄌᆞᆺ거시니 인셰예 언머ᄅᆞᆯ 이시려 고로온이리 만ᄒᆞ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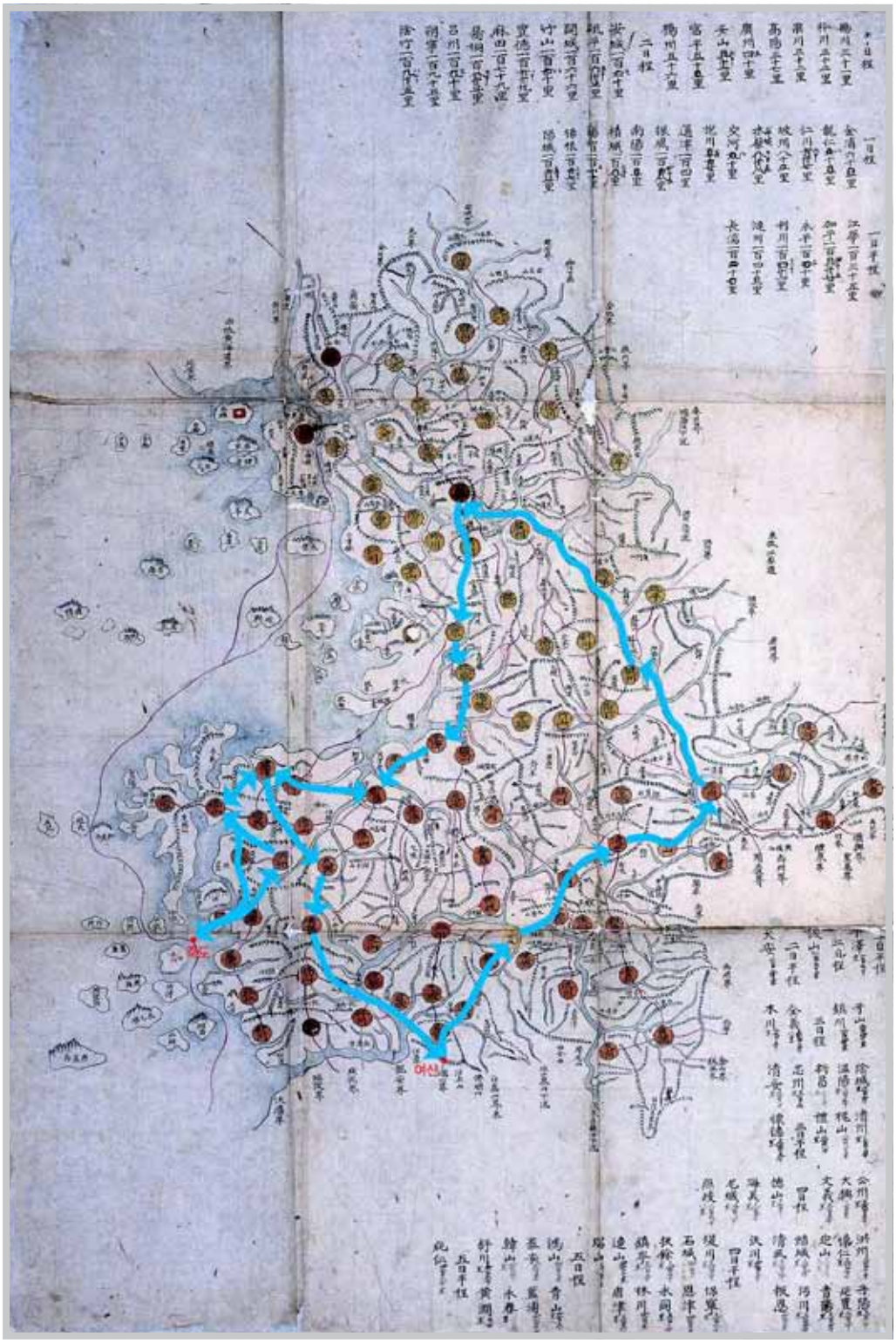


그림3. 피난 · 체류지 이동경로 지도

3. 조애중의 인간경영

『병자일기』 행간에서 읽혀지는 조애중의 삶은, 전통시대 대부분의 여성의 삶이 가정 내 '내조자(內助者)'로서만 존재했을 것이라는 우리의 편견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 그간 전통시대 여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가부장제도나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피동적이고 나약한 여성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여성은 이름도 없이 살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인식이 더욱 공고화되었던 시기로 인식되는 조선후기 사회에서 조차도 여성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다.

3.1 남편



그림4. 조애중의 남편 남이웅의 영정

"남방 추위도 이러하거든 저 쪽은 어떠한가. 무슨 일을 당하여도 생각하지 않는 일이 없다"(17)

심양에 볼모의 처지로 가 있는 남편에 대한 애타는 사랑의 표현이다. 조애중의 인간경영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남편 일 것이다. 남이웅의 심양볼모기 1년 반 동안

(17) 1637년 11월 30일. "청 극한이니 남방 치위도 이러커든 뎌 다히는 엇더ᄒᆞᆫ고 아ᄆᆞ일의 다ᄃᆞ라도 아니 싱각 ᄒᆞ올이리업다"

남편에 대한 심회는 이루 다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60 중반의 노부인이지만 남편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 걱정, 신뢰, 의지, 기원 등은 일기 도처에서 읽힌다. 매일 저녁 남편의 꿈을 꾸다시피 하고, 꿈속에 나타난 남편의 모습으로 길흉을 가늠해 보고 마음을 다독인다.[18] 남편이 언제 귀환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며 "졍신이 아득고"라는 진술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병자 이듬해인 정축년의 일기에서 이러한 표현은 더욱 자주 나타나 있다.[19] 남편 생각을 하면 늘 마음이 아프고, 무슨 일을 당하여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다.[20]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쏟아 내고 있다. 남편 생각에 미친 사람처럼 불안증에 시달리기도 한 조애중은 남편의 무사귀환을 위해 천지일월성신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한다. 꿈과 기도는 조애중의 남편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과 걱정의 해소 방법이었다. 한 밤중에 바깥 추운 뜰에 배석을 깔고 분향하고 엎드려 기도하다 방으로 들어와 옷 입은 채로 자기도 하였다.

> "텬디 일월셩신긔 절ᄒᆞ여 비오나 그러나 졍셩이 브죡ᄒᆞᆫ가 감텬을 아니ᄒᆞ시ᄂᆞᆫ가 평ᄉᆡᆼ의 하ᄂᆞ님 원망ᄒᆞ온 말을 입의 내디 아니ᄒᆞ고 평ᄉᆡᆼ의 사오나온 일을 아니코져 ᄒᆞ더니 ᄒᆞᆫ 자식도 업고 이리 ᄆᆡ양 가슴을 서기니 노ᄑᆞ시나 노ᄑᆞ시나 ᄉᆞᆯ펴보쇼셔(1637년 11월 22일)"

평생에 하느님을 원망하는 말을 입에 내지 않고, 평생에 사나운 일을 아니하였건만 이다지도 가슴을 썩이며 한 자식도 없이 지내는 자신을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굽어 살펴달라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호소이다. 남편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누워도 잠을 잘 수 없고, 밥도 먹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앉았다 일어섰다 날을 보내며 불안증이 극에 달한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21] 그러는 사이에 심양으로 옷과 각종 음식, 담배 등을 꼼꼼히 챙겨 보내기도 하였다.

(18) "ᄭᅮᆷ의 녕감 보오니 하여 외여뵈시니 념녀ᄒᆞ며 멀리 ᄉᆡᆼ각ᄒᆞᄋᆞᆸᄂᆞᆫ 졍이 ᄀᆞ이업서ᄒᆞ노라(1637년 5월 9일)"
"ᄭᅮᆷ의 녕감 보ᄋᆞᆸ고(1637년 6월 7일, 9월16일)"
"ᄉᆞ신 힝ᄎᆞ의 년ᄒᆞ여 긔별은 듣노라 ᄒᆞ여시되 유무ᄅᆞᆯ 몬보오니 답답기 ᄀᆞ이업고 짐다히ᄂᆞᆫ 니저겨신가 ᄒᆞ노라(1637년 6월 11 · 12일)"
"극한이니 남방치위도 이러커ᄃᆞᆫ 뎌다히ᄂᆞᆫ 엇더ᄒᆞᆫ고 아ᄆᆞ일의 다ᄃᆞ라도 아니 ᄉᆡᆼ각 ᄒᆞ올이리업다(1637년 11월30일)"

(19) "졍신이 간듸업고 긔력이 아조업서 누어 디내니 도듕 ᄎᆞᆫ듸가 들나아 경과ᄒᆞ고 흉즁 회포ᄂᆞᆫ 블이 ᄆᆡ양 브트니 엇디 이러아니ᄒᆞ리오 (1637년 3월 17일)"
"이 난을 ᄉᆡᆼ각ᄒᆞ니 ᄀᆞ이업서 울고 안자더니(1637년 3월 25일)"

(20) "오ᄂᆞᆯ은 어듸셔 디내시ᄂᆞᆫ고 ᄉᆡᆼ각ᄒᆞ니 굿브미 ᄀᆞ이업고 아ᄆᆞ일의도 닛ᄌᆞ온시업다(1638년 3월 25일)"

(21) "ᄭᅮᆷ마다 말리 밧긔 가 겨신 이ᄅᆞᆯ 보오니 진실로 수만ᄒᆞᆫ 뫼ᄅᆞᆯ ᄀᆞ리오디 몯ᄒᆞ미로다...가슴이 ᄐᆞᆨᄉᆞᄒᆞ여 어ᄂᆡ 약으로 고틸고 나오시ᄂᆞᆫ 긔별 곳 이시면 필연 ᄉᆡ훤ᄒᆞ려니 이리 혜고 뎌리혜니 졍신이 어림장ᄀᆞᆺ고 산이나 하ᄂᆞᆯ히나 ᄇᆞ라고 디내나 누운ᄃᆞᆯ 줌을 자며 음식이 비록 잇다 머글 ᄆᆞᄋᆞᆷ이 이시며 됴셕 밥도 먹디 몯ᄒᆞ고 향증은 심ᄒᆞ고 이ᄅᆞᆯ 엇디ᄒᆞ리 미친사ᄅᆞᆷᄀᆞᆺ틱여 안ᄌᆞ락닐락(1637년 11월 17일)"

표-1 심양에 억류 중인 남편에게 보낸 물목 내용

날 짜			물 목
정축년 (1637년)	4월	2일	모시천익, 모시겹옷, 홑옷, 겹바지, 적삼, 속옷누비배오로기, 버선(종 후복의 겹옷과 적삼)
	윤4월	16일	영초[22] 열 덩이
		26일	담배 다섯 덩이, 포육 두 접
	5월	22일	녕초 다섯 덩이, 조기 여섯 뭇
	6월	2일	녕초 여섯 덩이
		10일	검은 관대, 금띠, 흔니불 하나, 대구 여섯
	7월	16 · 17일	포육 두 접, 전복 네 곳, 민어 하나, 조기 한 뭇, 양ᄆᆞᆯ외니(?), 금은화, 차거리,
	12월	21 · 22일	사탕(버선하나크기), 편, 박산 한 당작. 건시 두 접, 건치 두 마리, 조기 두 뭇 반, 민어 세 마리, 대두 한 마리, 천초[22] 일곱 되, 영초 열 덩이, 양식

미칠 듯이 기다리던[24] 남편이 강을 넘었다는 귀환소식이 담긴 편지를 받고(1638년 5월 4,5일) 몸은 공중으로 날아 오른 듯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래서 그 심정을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남편의 환조를 밤낮없이 축원해오며 침식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노부인 조애중. 남편에 대한 무한 사랑의 감동이 다음 편지에 묻어있다.

> "녕감 월강ᄒᆞ시다코 유무ᄅᆞᆯ 가져오니 즐겁고 ᄉᆡ훤ᄒᆞ미 아ᄆᆞ라타업서 몸이 공듕의 오ᄅᆞᆫ듯 놀가 시브니 엇디 다 긔록ᄒᆞ리(1638년 5월 4,5일)"

1638년 6월 2일 남편이 귀환하여 함께 서울 집에 거주하게 된 뒤로는 남편의 벼슬살이 일정과 벼슬살이의 고단함, 사람들과의 잦은 음주, 음주로 인한 발병을 걱정하는 일상을 보냈다. 남이웅의 관직이동과 하루하루의 자세한 일정, 손님들과 마신 술의 잔 수 까지 상세히 기록하였다. 어떻게 마신 술의 잔 수를 기록할 수 있었는지는 미지수이다. 손님들의 술대접 자리에 함께 배석한 것인지, 아니면 차려 낸 술의 양을 보고 잔 수를 가늠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무튼 조애중은 매우 섬세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남편이 마신 술에 관련된 기록을 1639년을 중심으로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 영초(英綃). 중국에서 나는 비단의 한 가지.

(23) 천초(川椒). 초파나무 열매의 껍질. 성질이 따뜻하여 심복통, 구토, 설사에 씀.

(24) "ᄆᆞᅀᆞᆷ이 미칠듯ᄒᆞ니(1638년 4월 21일)"

1639년 1월 6일. “니쳠디딕의 가 쟘쥬ᄒᆞ시고 져물게야 드르시다”

1639년 1월 11일. “니대ᄉᆞ간 만경 가시다 식후 샤직골 니판셔딕의 가 취ᄒᆞ여 어둡게야 드르시다”

1639년 2월 19일. “나죄 뎡냥필 딕의 가 취ᄒᆞ여 드르시다”

1639년 3월 1일. “젼창군딕의 가 약쥬 잡ᄉᆞᆸ고 어둡게야 드르시다”

1639년 3월 23일. “심달 심졔시 ᄉᆞ도시 판ᄉᆞ와 아홉 잔석 자시니 쥬인도 취 손ᄃᆞᆯ도 다 취 어둡게야 파ᄒᆞ시다”

1639년 3월 25일. “연양군 홍승지 한좌윤 경샹감ᄉᆞ 변삼근 허국 니경엄 니경의 박황 다 와 취ᄒᆞ시고 남참봉 조감찰 삼형뎨 다 모다 밤드도록 말ᄒᆞ다”

1639년 4월 19일. “동교의 가 대취ᄒᆞ여 드르시다”

1639년 4월 23일. “박황 참판 와 다ᄉᆞᆺ 잔식 자시고 ᄯᅩ 젼창군 와 두 잔 자시다 월슉[25]”

1639년 4월 25일. 풍녕군[26]딕의 가 잠 쥬ᄒᆞ시고 ᄯᅩ 와 젼쥰민 네 잔 먹다”

1639년 6월 10일. “목승지 와 취토록 자시고 쥬인도 취ᄒᆞ시다”

1639년 7월 16일. “니슌 쇼쥬 ᄒᆞᆫ 병 가져와 니쳥숑 젼송 다 취ᄒᆞ시다”

1639년 7월 20일. “한셩부 좌긔 후 홍우윤 딕의 가니 진긔 정숑 영안위 겻 젼송 게와 ᄒᆞ시ᄂᆞᆫ딕 가 겨셔 져믈게야 반 취ᄒᆞ여 드르시다”

1639년 7월 26일. “호판 딕의 가 취”

1639년 11월 4일. “새배 문안 후 됴젼의 심도ᄉᆞ 여ᄉᆞᆺ식 새배 마로의 낙샹ᄒᆞ시다”

1639년 11월 5일. “새배 문안 후 권도 와 다ᄉᆞᆺ잔식”

대강 살펴 본 이상의 기록은, 어느 날 누구와 어디서 무슨 일로 술을 몇 잔씩 마셨는지 남이웅의 하루 일정 메모장을 방불케 한다. 남이웅이 술에 취해 새벽에 마루에서 낙상하는 일이 벌어진 다음 날도 손님이 찾아와 술을 마셨다. 잦은 술자리로 인해 곽란병을 자주 앓기도 했다.[27] 이로써 본다면 남이웅은 대단한 애주가에 애연가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렇듯 60

(25) 월숙(越宿). 밤을 새우다.

(26) 홍보(洪寶).

(27) 1639년 6월 3일. 7월 9일~10일. 12월 8일 등.

중반의 노년기에 접어든 남편의 고단한 벼슬살이와 음주를 바라보는 조애중의 시각은 비교적 여유롭다. 다만 백수를 기원[28]해 올릴 뿐이다.

첩이 아들을 낳아 남편이 기분 좋아 우쭐우쭐 거릴 때에도 다가 올 증조 기제 제물을 차려 보냈다.[29] 오히려 남편이 바쁜 일정으로 인해 자식을 낳은 첩에게 찾아가보지 못함을 민망히 여겼다.[30] 남이웅의 첩 곧 두림의 친모에 대한 태도도 질투보다는 상생의 가족관계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보게 된 조애중의 남편에 대한 태도는 무한 신뢰와 존경, 그리고 대승적 사랑이었다.

3.2 친자녀 및 서자

> "아이고 아이고 창텬아 창텬아!"[31]

이 한 맺힌 절규는 조애중이 일찍 죽은 자식들의 생일이나 제삿날에 술잔을 부어 올리며 자식에 대한 애끓는 사랑과 회한을 토해낸 말이다. 조애중은 슬하에 1녀 4남의 자녀를 두었으나 모두 어린 나이에 죽었다. 특히, 13세에 죽은 두량(斗亮, 천계)과 25세에 죽은 두상(斗相)은 특히 더 한 맺힌 자식이었다. "어엿블샤 내 ᄌᆞ식ᄃᆞᆯ 셜울샤 아이고"[32], "어엿블샤 내 ᄌᆞ식ᄃᆞᆯ 앗가올샤 내 ᄌᆞ식ᄃᆞᆯ "[33], 늘 그립고, 아깝고, 불쌍하고, 서러운 존재들이다. 조애중은 이 자식들이 살아있을 때에 '술ᄃᆞ리(살뜰이)' 사랑으로 훈육하였다.[34]

9월 26일은 조애중 본인의 생일날이다. 자녀들은 살아있을 때 어머니 조애중의 생일날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20일 즈음부터 어머니에게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28) 1640년 1월 22일. "녕감 ᄇᆡ세나 겨시게 ᄒᆞ쇼셔 ᄒᆞ니"

(29) 1640년 1월11일. "쳔남 어미 오시예 아ᄃᆞᆯ나타 녕감 ᄆᆞᄋᆞᆷ이 우ᄌᆞᆷᄉᆞᄉᆞᄒᆞ시도다 모ᄅᆡ 증조 긔졔ᄅᆞᆯ 뉴ᄉᆡᆼ원ᄃᆡ으로 ᄎᆞᆯ혀 보내여다"

(30) 1640년 윤 1월 4 · 5일. "차ᄌᆡᄅᆞᆯ하셔도 ᄀᆞ디 몯ᄒᆞ시니 민망타"

(31) 1639년 11월 8일.

(32) 1637년 11월 12일.

(33) 1638년 2월 15일.

(34) 1638년 4월 5일 "두 아ᄃᆞᆯ은 십삼셰식 이십오셰 나ᄅᆞᆯ 빌려 모ᄌᆡ되여 술ᄃᆞ리 ᄉᆞ랑ᄒᆞ여 다 업시ᄒᆞ니"

술을 따라 올리며 어머니 곁에서 화락하였다.[35]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이 꿈이 되어버린 지금 조애중은 가슴을 태우며 서러운 정이 복받쳐 올랐던 심회를 더욱 간절하게 기록하였다.

> "집안희 열 나믄 져븨 ᄌᆞ웅이 삿기쳐 ᄂᆞᄂᆞᆫ 양을 보니 삿기도 ᄂᆞᆯ며 아ᄂᆞ며 므내여 머기ᄂᆞᆫ 일을 보니 인간 사ᄅᆞᆷ은 뎌 즘ᄉᆡᆼ을 불워ᄒᆞ거니 엇디아니 슬프며 셜우리(1638년 4월 28일)"

따스한 4월 봄 어느 날. 조애중 집안에 제비 암수가 새끼를 쳐 가족 여남은 마리를 일구어 날고 들었다. 암수 제비는 새끼 제비를 안아 주고, 먹이를 물어다 먹여 주었다. 이 광경을 바라보게 된 조애중은 인간 사람으로서 저 짐승을 부러워하게 되니 어찌 슬프지 않으며 서럽지 않으리오? 라고 탄식하였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그리움이 사물을 대할 때 마다 한시도 마음속에서 떠날 날이 없었다. 한 해가 다 기울어 가는 12월 끝자락의 꿈속에서 만난 두상(斗相). 문득 꿈을 깨어 서러움이 밀려와 "다시 보이고 말이나 해 보아라"라고 통곡하다 지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창자 마디마디를 불태우니 어느 물로 이 가슴속의 불덩이를 끌까?"[36] 남편 귀환 이후, 항상 즐거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도 가슴 속 응어리는 한으로 맺혀있었다. 자식의 7년 째 기일되는 날 자식이 꿈속에서조차 잘 나타나지 않았다. 조애중은 그 자식이 '이제는 어머니가 나를 잊으셨는가?' 라고 생각하여 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서러워하였다.[37]

남편의 벼슬과 명예가 높고, 모든 조건이 만족한 듯 하여도 조애중의 가슴에 맺힌 한은 오로지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있었다. 남편의 귀환과 함께 피난기를 마감하고 서울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38] 남편이나 본인의 생일 등 즐거운 가족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자식들과 교통하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조애중 66세 되던 천계(斗亮)의 제삿날 남편과의 부부 생활 49년을 회고하며 한 자식도 남기지 못한 삶을 애태웠다. 매일 "어서

(35) 1639년 9월 26일. "듕쇼 안해오다 이 날이 ᄉᆡᆼ신일이라 ᄌᆞ식 ᄉᆡᆼ각ᄂᆞᆫ 졍ᄉᆡ 만ᄉᆞᄒᆞ니 어ᄂᆡ 일의 아니 셜우며 니준ᄉᆞ이 이시리 네날 내 알ᄑᆡ 부체이셔 스므날ᄇᆡ브터 머글것 ᄒᆞ여주고 됴모의 술 부어 머그라텬 이리 ᄭᅮᆷ이되니 ᄉᆞᆯ하 셜워ᄒᆞ며"

(36) 1637년 12월 25일. "ᄉᆡ여 흐뭇겁고 셜운 졍이 무ᄒᆞᆫᄒᆞ여 울며 닐온마리 다시 뵈고 말이나ᄒᆞ라 니ᄅᆞᆫᄃᆞᆯ 다시 즘을 일우디 몯ᄒᆞ고 ᄆᆡ양 촌댱을 슬우니 어ᄂᆡ 물로 ᄇᆞᆯ고"

(37) 1639년 10월 3일. "샹시 즐거운 사ᄅᆞᆷᄀᆞ티 디내니 제 정녕이 나ᄅᆞᆯ 니준가 ᄉᆡᆼ각ᄒᆞᄂᆞᆫ가 더옥 셜워 ᄒᆞ노라"

(38) 1638년 6월 2일. "지븨 드러오니 녕감 보ᄋᆞᆸ고 일개 모ᄃᆞ니 긔운이나 그만ᄒᆞ여겨시니 일가 일언 경ᄉᆡ 업ᄉᆞᄂᆞ 뉵년만의 내 지븨 도라오니 아기네 잇던 ᄃᆡ 종젹을 보ᄂᆞᆫᄃᆞᆺ 반갑고 셜운 졍을 엇디 ᄀᆞᄒᆞᆯᄒᆞ리"

죽어지이다"라고 신께 빌기도 하였다.[39] 조애중은 자식들을 대함에 있어서 비록 살아있지는 않으나 심정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더 가깝고, 그녀의 삶에 가장 큰 존재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첩의 아들 두림(斗臨)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쳡 ᄌᆞ식인ᄃᆞᆯ 엇디 아니 크리"[40] 이 말이 조애중의 서자 두림에 대한 일관된 생각이다. 조애중의 두림에 대한 사랑은 친자녀들의 사망으로 인한 결핍을 두림이 대리만족 시켜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보다는 남편의 자식이 곧 내 자식이라는 본원적 사랑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여겨진다. 두림은 조애중의 이목(耳目)같은 존재였다.[41] 조애중이 늙어 가면 갈수록 "낸ᄃᆞᆯ 쳡ᄌᆞᄀᆞ티 녀기며 젠ᄃᆞᆯ 뎍뫼라ᄒᆞ랴"[42] 곧 조애중도 두림을 첩의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고 두림 역시 조애중을 큰어머니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첩간의 심리적 갈등에서 본다면 보기 드문 사례로 여겨진다. 조애중 입장에서 두림은 적국[43]의 자녀이다. 그런데 적국의 자녀를 친자녀 이상으로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하였다.

두림은 조애중의 양손자 중소(重召)[44]와 사촌 두륙(斗六)과 함께 천렵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45] 수시로 조애중의 심부름으로 전국(남원, 회덕, 의주, 서울, 문의, 파주 등)을 다녔고, 남이웅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러 다녔으며 조애중의 친정어머니 곧 외할머니의 제사도 지냈다. 이러한 정황에서 두림에 대한 조애중의 사랑과 믿음은 절대적이었다.

① "오ᄂᆞᆯ 졍ᄉᆞ의 도헌을 ᄒᆞ시니 젼의ᄂᆞᆫ 대ᄉᆞ헌이 민망터니 이번은 이리 ᄉᆡ훤ᄒᆞᆫ 이리 업ᄉᆞ니 비록 후의 가나 안즉 ᄌᆞ이니 깃브미 만ᄉᆞᄒᆞ다 모다 티하오니 안즉 면ᄒᆞ나 엇딜고 ᄒᆞ노라(1640년 3월 11일)"

(39) 1639년 4월 5일. "텬계 긔일이라 디내니 엇디… 일주거 이리 내 간담을 ᄐᆡ오ᄂᆞᆫ고 내 나히 ᄇᆞᆯ셔 뉵십 뉵셰오 부뷔 동거ᄒᆞ완디 ᄉᆞ십구 년이라 ᄒᆞᆫ ᄌᆞ식이나 잇고 우리 이리 므던ᄒᆞᆯ 거시로ᄃᆡ ᄆᆡ양 두립고 무셔우니 ᄆᆡ일 으셔 죽거지이다 츅원ᄒᆞ노라"

(40) 1640년 1월 18일.

(41) 1640년 3월 9일. "두림이 가게되니 ᄒᆞᆫ 아ᄒᆡ로 이목ᄀᆞ티 잇다가 뎌리 보내ᄂᆞᆫ 졍ᄉᆡ ᄀᆞ이 업ᄉᆞ니"
1640년 4월 26 · 27일. "별좌 업ᄉᆞᆫ 후ᄂᆞᆫ 슈쪽이 업시 인ᄂᆞᆫ 사ᄅᆞᆷ이 되어 디내다가 쳔남이 ᄌᆞ란 후ᄂᆞᆫ 온갖 이릐 이목ᄀᆞ티 잇다 뎌리 보내게되니"

(42) 1640년 4월 26 · 27일.

(43) 김호연재(1681–1722)는『자경편』〈계투장〉에서 첩을 '적국'이라 표현하고, "첩은 집을 크게 어지럽히는 근본이고, 적국이라는 것은 결코 서로 가까이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妾也者, 大是亂家之本, 敵國者, 決然不可相近者也)

(44) 남이웅의 중형 남이준(南以俊)의 손자였는데, 두상(斗相)에게 양자 갔다.

(45) 1637년 4월 3일. "진ᄉᆞ 두륙 듕쇼 두림이 ᄀᆞᆲ 내ᄒᆡ 쳔렵ᄒᆞ려 몯다"

② "이 날 졍ᄉᆞ의 녜조판셔 ᄒᆞ시니 티ᄌᆞ 갈 일로 ᄀᆞ이 업ᄉᆞ니 별좌 업ᄉᆞᆫ 후ᄂᆞᆫ 슈쵹이 업시 인ᄂᆞᆫ 사ᄅᆞᆷ이 되어 디내다가 쳔남이 ᄌᆞ란 후ᄂᆞᆫ 온갖 이ᄅᆡ 이목ᄀᆞ티 잇다 뎌리 보내게 되니 이런 이리 업서 ᄒᆞ노라 낸ᄃᆞᆯ 쳡ᄌᆞᄀᆞ티 녀기며 젠ᄃᆞᆯ 뎍뫼라ᄒᆞ랴 이리 느고 병니예 이셔 다시 보디 몯ᄒᆞᆯ가 ᄀᆞ이 업서 ᄒᆞ노라(1640년 4월 26 · 27일)"

③ "두림이 ᄀᆡ셩부 가셔 ᄒᆞᆫ 유무보니 그 ᄉᆞ이도 반갑기 만ᄉᆞ타 가ᄂᆞᆫ 길히 졈ᄉᆞ 아ᄃᆞᆨᄒᆞ니 어엿블샤 부모 두고 어린 ᄌᆞ식 두고 어듸라 가ᄂᆞᆫ고 이런 시절이 녜도 잇던가(1640년 7월 3일)."

①②③의 일기는 두림의 치자(質子)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내용이다. ①은 남편이 대사헌의 직분에 임명된 일이 형조판서 보다는 직위가 아래이나 기쁘기 한량없고 시원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편의 직위가 내려가 아들이 치자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②의 일기에서 남편이 다시 예조판서에 임명되어 아들이 치자로 가게 되자, 이목같은 두림이와 헤어짐에 대한 두려운 생각에 한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 ③의 일기에서 급기야 두림은 심양으로 떠나게 되었다. 심양으로 가는 도중 개성에서 보낸 두림의 편지 한 통을 받고 '부모와 자식을 두고 어디로 가는고?'라며 불쌍하고 기막힌 상황을 기술하였다. 조애중은 두림이 비록 첩의 자녀이나 친자 이상의 사랑으로 품었고, 그로인해 두림은 조애중의 귀와 눈이 되어 하나의 열린 가족이 되었던 것이다.

3.3 며느리



그림5. 남산영당 제향 모습
남산영당에 남이웅의 영정이 보관되어 내려왔다.

조애중에게는 창골며느리 이씨와 여주며느리 신씨가 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스물다섯 살에 운명한 남두상(南斗相)의 부인이다. 자녀를 두지 못하고 모두 사망한 이 두 며느리의 생일과 제삿날에는 피난기인 1637년에도 거르지 않고 차례를 지내주었는데 자식과 똑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치러 주었다. 창골며느리 이씨의 경우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창ᄀᆞᆯ며ᄂᆞ릐 ᄉᆡᆼ일다례ᄒᆞ니 새로이 ᄉᆡᆼ각이 ᄀᆞ이업다.(1637년 5월 26일)"
② "창골며ᄂᆞ릐 긔졔디내니 새로이 슬허ᄒᆞ노라.(1637년 8월 25 · 26일)"
③ "창골며ᄂᆞ릐 ᄉᆡᆼ일이라 차례ᄒᆞ니 녜일 ᄉᆡᆼ각고다 엿 ᄒᆡ 이리 ᄇᆞᆯ셔 녜이리되여 슬프고 ᄉᆡᆼ각기 ᄀᆞ이업서 ᄒᆞ노라.(1638년 5월 26일)"
④ "창골ᄃᆡᆨ 긔일 디내고 새로이 슬프다.(1638년 8월 26일)"
⑤ "창골며ᄂᆞ릐 ᄉᆡᆼ일다례ᄒᆞ다.(1639년 5월 26일)"
⑥ "창골ᄃᆡᆨ 긔졔.(1639년 8월 26일)"
⑦ "창골며ᄂᆞ릐 ᄉᆡᆼ일이라 다례디내니 슬허ᄒᆞ노라.(1640년 5월 26일)"

여주며느리 신씨의 생일과 기제 날에도 변함없이 술을 올리고 젊은 사람들의 신주를 보고 슬픈 정을 표현하고 간담을 태웠다. 조애중과 두 며느리들과의 고부간의 인연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늘 그 젊어 죽은 며느리 자식들에 대한 생각이 끝이 없고 슬프다. 조애중은 아들 며느리들과 못다 한 사랑을 손자며느리 중소(重召)의 부인 이씨[46]에게 쏟아 부었다.

① "듕소의 안해 오니 슬프고 셜운 졍과 제 인물이 하 ᄀᆞᄌᆞ니 깃브고 든ᄉᆞᄒᆞ미 ᄀᆞ이 업ᄉᆞ니 ……나 ᄒᆞ나 ᄆᆡ일 병니예 이시니 인ᄉᆞ를 아디 몯ᄒᆞ여 밧비 ᄃᆞ려다가보니 졔ᄉᆞ 티개나 ᄒᆞᆯ 아기네니 내 주거도 엇덜고 ᄒᆞᆫ념이 업ᄉᆞ니 깃브기 ᄀᆞ이업다(1639년 4월 13일)"

(46) 첨지 이무림(李茂林)의 딸. 이무림은 남이웅과 자주 왕래하며 서로 양가에 들러 술을 마셨다.

② "며ᄂᆞ리를 ᄃᆞ려셔 보니 하 단아코 온갖 인ᄉᆡ 브죡ᄒᆞᆫᄃᆡ 업ᄉᆞ니 깃브기 만ᄉᆞᄒᆞ다……나죄 며ᄂᆞ리 가니 섭ᄉᆞᄒᆞ다 하 졍 표티 몯ᄒᆞ여 줄거시 업스니 스므 구 노비를 비희ᄒᆞᆫ 졍의 주어 보내다(1639년4월 15일)"

③ "며ᄂᆞ리 오니 반갑고 든ᄉᆞᄒᆞ다(1639년 5월 22일)"

④ "새아기 가니 섭ᄉᆞ고 그 방이 뷔니 ᄀᆞ이업시 굿버ᄒᆞ노라 아기 이실적ᄀᆞ티 든ᄉᆞᄒᆞ더니 ᄀᆞ이업시 섭ᄉᆞ다(1639년 5월 30일)"

⑤ "요ᄉᆞ이ᄂᆞᆫ 며ᄂᆞ리를 ᄒᆞᆫ듸이시니 든ᄉᆞ코 져희인ᄂᆞᆫᄃᆞᆺ 반갑고(1639년 10월 3일)"

①의 일기를 보면, 손자며느리가 죽은 자식들의 방에 있으니 자식들이 있는 듯 반갑고 기쁘고 든든하기만 하다. 그러나 조애중의 나이 66세. 그것도 매일 병속에 있는 노부인은 마음이 바쁘기만 한데, 손자며느리를 가까이 데리고 있어보니 '제ᄉᆞ 티개' 곧 '제사(祭祀)와 치가(治家)'를 할 만한 아이였던 것이다. '이제 죽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조금도 염려될 것 없이' 기쁘기 그지없다. 이 기록을 보면 조애중은 여성의 가정 내 역할로 '제사와 치가'를 중시하였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너무도 단아하고 예쁘기만 한 어린 손자며느리를 보며 기쁘기 한량없고, 헤어지는 슬픈 정을 표하지 못하여 ②의 일기에서는 노비 스무 명을 주어 보냈다.[47] 아마도 별급(別給) 형태의 특별 선물일 것이다. 그러나 몇 명의 노비도 아니고 스무 명씩이나 되는 노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다소 파격적인 규모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집안의 가산 규모로 볼 때, 이는 지나친 형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48] 노부인의 며느리에 대한 넘치는 사랑의 한 표현이다. 그리고 남이웅 가의 재산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엿볼 수도 있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손자며느리이다. 관리를 잘 할 능력이 있는 며느리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47) 민찬은 '스므구 노비'에서 '노비'를 '路費'로 풀었다.(앞의 논문, 37쪽) 아무래도 '줄 것이 없어서 스무 명의 노비를 주었다'는 말에 기인한 해석일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스므구'에서 '구'의 뜻을 미해결로 남겨 놓았다. 필자는 이 '구'를 노비를 세는 단위인 '구(口)'로 보고자 한다.

(48) 남이웅의 6세손 남필복(南必復)의 나이 25세(건륭18년, 1753년) 때 한성부에서 작성된 호구 문서에 노비명이 자세히 거론되어있다. 노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숫자만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솔노비(率奴婢):9명, 도노비(逃奴婢):11명, 경(京):6명, 광주(廣州):23명, 공주(公州):29명, 춘천(春川):19명, 금성(金城):6명, 면천(沔川):43명, 홍주(洪州):2명, 충주(忠州):4명, 평양(平壤):2명, 함종(咸從):3명, 용강(龍岡):4명, 황주(黃州):14명, 강릉(江陵):14명, 인제(獜蹄):5명, 제천(堤川):4명, 횡성(橫城):2명, 지평(砥平):2명, 성천(成川):4명 총 206명이다. 남이웅 가는 남이웅 이후 후손으로 내려오면서 변변한 벼슬살이를 하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남이웅과 조애중 당대에는 노비의 규모가 이 보다 더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3.4 친족 및 빈객



그림6. 남이웅의 취옹(醉翁) 인장

조애중의 친족은 친가나 시가 쪽 모두 긴밀히 내왕하며 정을 돈독히 하였다. 특히 피난기에는 함께 남하하여 혹독한 피난생활을 운명공동체가 되어 극복하였다. 여산 체류기에는 큰 동서 의주댁을 의지하여 도움을 많이 받았고, 닷젓골댁과 삼등댁 등 동서들과 긴밀히 의지하며 살았다. 여산체류를 마무리하고 충주로 옮기기 전에는 너무나 많은 일가친척들이 술과 떡, 선물을 장만하여 방문하여서 밤이 깊도록 그들을 대접하느라 상한(傷寒)하여 몹시 앓기도 하였다.(49) 친정 부모의 제사 등에는 조카나 동생들이 모여 와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50) 이틀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하여도 잠이 오지 않았다. 정축년 친정아버지의 대기를 치르기 전 날 친정 오라버니 조엄은 홍산으로부터 무주로 가면서 쌀 두 말과 민어 한 마리를 선물로 갖다 주었다. 황혼기의 오빠와 여동생 두 사람은 하염없이 울기도 하였다.(51) 서울 귀환기에도 많은 친척들의 방문은 계속 이어졌다. 1640년 3월 25일 남편의 귀환이후 맞이한 남편의 생일에는 시가나 친정 쪽 형제 조카들이 많이 모여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

> "나ᄉᆡᆼ원ᄃᆡᆨ 오시니 반갑ᄉᆞᆸ기 만々ᄒᆞ다 경황ᄒᆞᆫ 후 서ᄅᆞᆨ 무ᄉᆞ히곰 이셔 이리 보오니 그지업고 ᄉᆞ촌님 듕의도 ᄒᆞᆫᄃᆡ셔 길러난 ᄉᆞ촌님이니 졍이 엇디 각별티 아니ᄒᆞ리오 ᄃᆞᆶ이 우도록 말ᄉᆞᆷᄒᆞ오나 ᄌᆞᆷ이 업ᄉᆞᆫ거시로다(1640년 윤1월 7일)"

(49) 1638년 1월 22일. "손님내 년ᄒᆞ여 오시고 밤드도록 ᄃᆡ졉ᄒᆞ기예 샹한ᄒᆞ여 듕히 알ᄒᆡ니 닷샌날 길흘 몯나다"

(50) 1637년 9월 7일. "족해나 동ᄉᆡᆼ이나 이리곰 무ᄉᆞᄒᆞ여 만나보니 조샹 덕분인가 ᄒᆞ노라 이틀 밤을 새아 말을 ᄒᆞ되 ᄌᆞᆷ이 업더라"

(51) 1637년 9월 5일. "조엄 오라비 홍산으로셔 오니 반갑기ᄅᆞᆯ 다 니ᄅᆞ랴 둘히 우다가"

나생원댁은 조애중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사촌으로 난리를 치르고 난 뒤 무사하게 만난 정회가 남다른 듯하다. 닭이 울도록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다. 조애중은 시가나 친정 쪽의 많은 혈육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각별한 정을 나누고 그들을 대접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다. 늘 남이웅가를 중심으로 소식이 오고가는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빈객접대 및 관리는 조애중의 중요한 일과이다. 특히 남편은 1638년 6월 심양으로부터 귀환한 후 요직을 두루 겸하였는데, 노부인은 매일 손님치레를 하다시피 하였다. "손님내 죵일 오시니 다 몯 긔록ᄒᆞ다(1638년 6월 27 · 28일)." "죵일 손님네 ᄀᆞᄃᆞᆨ(1638년 11월 19일)." "손님야 그츨ᄉᆞ이 이시며 약쥬 아니 자시리 이시랴(1639년 9월29일)." "모ᄃᆞᆫ 손님내 년ᄒᆞ여 오시니 다 약쥬 잡ᄉᆞᆸ고 취ᄒᆞ시다(1640년 1월 5일)." 계속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은 약주 몇 잔 마시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술자리가 그러하듯이 마시고, 식사하고, 취하여 잠까지 자는 일이 많았다. 어떤 날은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손님들의 행차가 이어졌다.

찾아오는 손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애중이 초대하여 대접하는 경우도 있다. 남편의 생일은 물론이고, 내의원의 의녀와 약 짓는 사람들을 대단위로 불러 식사 대접을 하였다.[52]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내의원 직을 겸하고 있었을 때인 것으로 보인다. 손님의 범위는 의정부의 고급 관료로부터 각 고을의 지방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손님은 남편 쪽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애중을 방문한 손님도 있고, 조애중이 초대받아 간 경우도 있다. 『병자일기』에는 부인들의 친교 행차가 기록되어 있다. 충주 체류기에 월탄에 거주하는 홍판사 생일초대를 받았다. 홍판사는 조애중의 충주 체류기에 물적 ·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다. 홍판사는 조애중의 서울 귀환시에도 배가 정박해 있는 월탄 포구까지 나와 술을 대접하고, 높은 곳에 올라 배가 멀리 떠나가도록 지켜보는 등 곡진한 정성을 쏟은 사람이다.

> "월탄셔 교군 보내여겨셔 가니 니참봉ᄃᆡ 됴디평ᄃᆡ 니진ᄉᆞᄃᆡ 니ᄉᆡᆼ원ᄃᆡ 박ᄉᆡᆼ원ᄃᆡ 모다 겨시다 대되 몯ᄌᆞ와 잔밧조이 ᄒᆞ시니 홍판ᄉᆞ ᄉᆡᆼ일이시더라 난리 후 뎌리 일가 모다 디내시니 그지업서 뵈더라 됴디평 유무 드리시더라 게서 자고(1638년 2월 19일)"

(52) 1638년 12월 8일. "어제 오ᄂᆞᆯ 의녀 스물 다ᄉᆞᆺ 약진ᄂᆞᆫ 사ᄅᆞᆷ조차 다 밥ᄒᆞ여 머기다"
1638년 12월 9일. "ᄯᅩ 다ᄒᆞᆯᄒᆞ여 머기다"
1640년 5월 21일. "의녀 열 대되 열 다ᄉᆞᆺ 밥ᄒᆞ여 머기다"

홍판사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조애중에게 직접 찾아와 초대의 말을 전달하였다(2월 13 · 14일). 홍판사는 생일에 조애중에게 가마꾼까지 보냈는데, 모인 부인들은 이참봉댁, 조지평댁, 이진사댁, 이생원댁, 박생원댁 등이고, 홍판사에게 헌작하고 하루를 묵으며 친분을 나눴다. 조지평은 부인을 통하여 조애중에게 안부 편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조애중은 너무도 극진한 대접을 받고 감격스러워하였다. 이외에 피난기나 귀환기 모두 많은 부인과 별실들이 조애중을 방문한 기록은 일일이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부인이, 부인과 별실이, 별실과 별실이 함께 찾아와 위로하고 문안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였다.

조애중이 어디를 가서 거주하거나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들끓었고, 조씨를 극진히 대접해주었다. 조애중은 이 현상을 남편이 그들에게 곡진히 대접했던 탓이라 여겼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이웅의 탄탄한 관직생활과 폭넓은 교제 이면에는 부인의 지칠 줄 모르는 손님접대와 인맥관리가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전통시대 사교의 공간이 주로 '집'이었다. 남이웅 가의 집을 친교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서 소통하고 관계형성을 맺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부인 조애중이다. 조애중의 따뜻한 인성과 포용력, 이것이 남이웅 가가 전국규모의 인맥 넷트워크를 형성 · 유지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3.5 노비

조선시대 양반은 노비의 사역을 통하여 경제적 존립 기반을 형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노비 계층의 존재 없는 양반계층의 존재는 불가능한 일이다. 수많은 노비의 상전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양반은 양질의 의식주를 영위할 수 있었다. 양반들은 그런 노비들의 존재를 관리하고 부리는 일에 소홀할 수가 없었다. 조선 전기 묵재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의 『묵재일기』에는 상전이 노비를 관리하는 방편으로 자주 체벌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체벌에 관련된 수백 건의 기록이 실려 있다. 이문건 가문의 체벌 정책은 동시대 다른 사족들의 체벌정책과 비슷한 것이었다. 체벌 이유는 '상전이 부르는데 즉시 오지 않았다거나', '주인의 지시와 명령을 신속히,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부주의와 과실', 심지어는 '더운 물을 속히 대령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구타하였다.[53]

(53) 심희기, 「16세기 이문건가의 노비에 대한 체벌의 실태분석」, 『국사관논총』97, 2001, 155면.



그림7. 조애중, 남이웅 부부의 묘소에서 바라본 계룡산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노비들은 불완전한 자유를 찾아 도망을 꿈꾸었다. 특히 전쟁과 같은 국가 혼란기에는 도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이 기회를 포착하고 싶은 집단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애중 집안의 사례는 이문건 가의 사례와 매우 상이하다. 도망은커녕 각지에 흩어져 있는 외방노비들도 전쟁 중에 죽은 이 없이 무사히 살아남은 것을 '항것' 곧 상전(上典)의 덕분으로 돌리며 감사해 하고 있다. 1637년(정축) 11월 10일 일기에 의하면, 조애중의 솔거노비 창원이 수공 차 부안에 갔다가 호남과 영남에 거주하는 종들을 방문하였다. 이 때 양남(兩南)의 종들은 창원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상전 덕분에 다 살아남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남의 집 사람들(종)은 달아나거나 숨은 이가 많은데, 그 이유가 '상전이 종들을 심하게 다루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창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조애중은 "외방 종이나마 상전이 모질게 하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하였다.(54) 모진 상전을 피하여 달아나거나 숨은 사례가 많으나, 『병자일기』에는 단 한 차례도 도망간 노비에 대한 기록이 없다. 없을 뿐만 아니라 조애중도 피난 여정에서 종들에게 몸을 의지하였다. 그리고 "그래도 벗지 않고 얼고 데지 아니하니 모두 종들이 아니었으면 어찌되었으리?"라고 말하였다. 종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55) 조애중은 "종의 집에 몸을 의탁하여 마음이 편안하고,

(54) 『병자일기』 1637년 11월 10일. "챵원이 부안 슈공도ᄒᆞ며 가다 냥남 죵ᄃᆞᆯ이 브린 죵들을 보고 다 마조나와 항거ᄉᆡ 긔별을 뭇고 구ᄉᆞ히곰 나신이리 하ᄂᆞᆯᄀᆞᆺ다 우리 노비등도 항것님 덕분의 ᄒᆞ나도 주그니 업시 다 사란노라ᄒᆞ고 다 곰 즐겨ᄒᆞ더라ᄒᆞ고 갓던 죵ᄃᆞᆯ이 ᄂᆞᄆᆡ집 사ᄅᆞᆷ은 달화 쥬 보고 ᄃᆞ라나리 만코 숨으리 만호ᄃᆡ 저희 다 그러구로 고공이나 힘써ᄒᆞ여주더라ᄒᆞ니 외방 죵이나 항거시 모디리 아니ᄒᆞᄂᆞᆫ 다시로다 ᄒᆞ노라"

(55) 1638년 4월 24일. "덕남이 셔울 가 녀러오니 무ᄉᆡᆼ이 ᄇᆞᆫ 것 ᄒᆞᆫ 필 마젼ᄒᆞ니 몬져오고 청배집 혜아 어믜 뵈 ᄇᆞᆫ 것 가져오다 난리 나 갈제 몸의 브튼 것만 디녀 나셔 녀산 가 의쥐ᄃᆡ 면화로 쉬나히 여러 필 나코 기령 면화 가져다가 질삼들을 ᄒᆞ니 그려도 벗디 아녀 얼고 데디 아니ᄒᆞ니 다 죵 곳 아니면 엇디리"

어디를 가도 종이라는 것이 우연치가 않다"[56]고 말하였다. 부리는 자와 부림을 당하는 자의 관계설정이 상하 주종관계를 너머 상호 의존관계임을 알 수 있다. 노비는 조애중 가문의 운명 공동체이면서 재산이기도 하다. 비록 재산권의 일부인 노비들이나마 그들의 수고로움과 존재의미를 깊이 성찰한 것이다. 종을 대하는 휴머니즘의 철학이 있었다.

한편 남이웅 가의 노비와 전답은 전국적 분포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평안도, 영남(김천), 호남(여산 · 부안) 충청도(노성 · 서산 · 보령 · 신창 · 당진 · 충주 · 청풍), 경기도(수원 · 광주 · 평택), 서울(동막논, 마포), 삶고지(뚝섬근처)밭, 삼개(마포), ᄆᆞ젼(麻田, 종로구 와룡동, 권농동, 봉익동 근처), 강원도(춘천) 등이다. 거론된 종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션탁, 대복, 덕싱(비), 의봉, 냥운, 긔츈, ᄇᆞ리츈이 (서울종), 눈솔(니산, 현 공주 노성면), 후복, 이남,(심양으로간종), 업동(평택), 한뉼(신창), 막산, 막셕, 막ᄃᆡ(서산종), 늣쇠(보령), 셰미, 굿쇠(청풍), 후명, 슈길, 귀싱, 구일, 은동3형제, 슈필 3형제 (여산 종), 션탁, 대복, 녹홰 등 8명(수원), 튱일, 명옥, 망남(충주), 튱이, 어산, 튝이, 막난, 희뵈, 쉬, 일봉, 향싱, 덕경이(김천), 春伊2, 介叱知, 乙介, 莫介, 日隱介, 日今, 香春伊(1633년 3월 19일 진무3등 공신으로 하사받은 비) 등이다.

이러한 규모로 본다면 조애중의 집안의 가계 운영은 가히 중소기업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규모의 토지와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57] 그리고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노비와 전답을 일사분란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점은, 조애중의 인권 존중적 노비경영법이 그 비결이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애중은 조선시대 여성CEO라 말할 수 있다.



그림8. 병자일기 해체 복원 과정중에 추가 발견된 한글편지. 편지를 쓴 사람은 비이고 수신자는 상전이다. 비가 흉년을 당하여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상전에게 하소연 하는 내용

(56) 1638년 2월 2일. "죵의 지븨오니 편ᄒᆞ다……아ᄆᆞᄃᆡ 가도 죵이란거시 우연티 아니ᄒᆞ다"

(57) 앞의 주 50)에서 남이웅의 6세손 남필복(南必復) 25세 때 한성부에서 작성된 호구 문서에 기록된 노비가 총 206명이었음을 볼 때, 조애중 당대에는 규모가 이 보다 훨씬 더 방대하였을 것이다.

4. 맺으며

이상 『병자일기』 3년 9개월의 기록을 통해 17세기 조애중의 인간경영법을 살펴보았다. 조애중은 단호하면서도[58], 부드러운[59] 성격을 겸비하였고, 어려운 상황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내는 힘을 가졌다. 특히 병자호란이 발발한 직후 서해안 지역에서의 피난기는 물 한 모금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도 하였으나, 매일 매일의 생활상을 기록해 낸 기록정신은 매우 높게 평가받을 일이라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조애중의 가정(家政)은 '주체적 생산자(主體的生産者)'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이는 전통시대 대부분의 여성의 삶이 가정 내 '소극적 내조자(消極的內助者)'로서 존재했을 것이라는 우리의 편견 너머에 있다. 조애중의 제사설행(祭祀設行)은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의미를 지닌다. 슬하의 1녀 4남과 두 며느리를 다 잃은 어머니의 애끓는 모정을 지녔고, 조상의 기일 및 생일다례를 철저히 설행하면서 그들의 존재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다. 남이웅 가의 토지운영(土地運營)은 경제적 생활보장의 한 근거이다.

그런데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토지와 노비는 남편의 벼슬살이에 의해 형성된 물적 토대이지만, 그 물적 토대를 확대 재생산 해내어 가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 낸 사람은 조애중이다. 그리고 수시로 행해지는 선물수수(膳物授受)는 가정의 실질적 생활물자를 조달 받고 각종 인사에 환원시키기도 함으로써 남이웅가의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주는 행위였다. 전통시대의 선물수수는 상대에 대한 마음 씀이면서 '남'이 '우리'가 될 수 있는 의식을 형성해 주는 중요한 행위로 파악된다.

둘째, 조애중은 인간경영자의 측면에서 따뜻한 감성을 지닌 휴머니즘의 소유자로 파악된다. 3년 9개월의 기록으로 만나는 조애중의 나날은 부덕(婦德)의 실현이었다. 그 부덕은 적어도 조선시대에 쓰인 수많은 여훈서류가 강조한 여성의 부덕보다 한 차원 더 고양된 형태를 보여준다. 남편, 친자녀 및 서자, 며느리, 친족 및 빈객, 노비 등 조애중의 삶과 맞물려 있는 타자들과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이타적 사랑과 포용, 인권 존중의 따뜻한 마음을 지님으로써 열린 가족관계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이렇듯 조애중의 타인에 대한 전폭적 배려와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환원되어 그녀에게 돌아오기도 하였다.

『병자일기』 3년 9개월의 기록에서 만난 17세기 여성 조애중의 인격과 처세.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한 오래된 미래이다.

---

(58) 뒷날 피난처에서 종들을 시켜 서울 집에 가보게 하였는데 모든 가산을 잃어버린 정황을 보고 받고 "일가드리나 므ᄉᆞᄒᆞ고 녕감이 평안이 ᄃᆞᆫ녀나 오시ᄅᆞᆯ 듀야 원이며……"라고 말하며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ᄉᆡᆼ각도업다"고 일축하기도 하였다(1637년 4월 6일).

(59) 1640년 윤 1월 10일. "형조 좌긔ᄒᆞ시니 비록 시비ᄅᆞᆯ 분간ᄒᆞ실 소임이나 ᄆᆡ양 유죄인이나 듕형ᄒᆞᄂᆞᆫ 긔별을 드ᄅᆞ니 ᄆᆞᄋᆞᆷ이 편티 아니코 슷그러ᄒᆞ여 ᄒᆞ노라니"

참고문헌

- 국립공주박물관, 『공주의 명가』, 2009.
- 김경화, 「『병자일기』에 대한 여성문학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4.
- 김선기, 「연재 송병선가 수증 선물단자에 대하여」, 『인문학연구』 75, 충남대인문과학연구소, 2008.
- 김성진, 「『瑣尾錄』을 통해 본 사족의 생활문화 - 음식문화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2 4, 2007.
- 김신연, 「〈병자일기〉에 나타난 조선조 노부인의 생활상」, 『한양여전 논문집』20, 1997.
- 김영진, 「『병자일기』의 기후와 농업」, 『조선시대 농업사연구』, 국학자료원, 2003.
- 김영춘, 「『병자일기』에 나타난 17세기 국어 연구」, 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 남광우 편저, 『고어사전』, 교학사, 2009.
- 문희순, 『충청의 여성문학유산 답사』, 이화출판사, 2009.
- 민 찬, 「문헌자료 주해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 『인문과학논문집』 44 · 45, 대전대 인문과학연구소, 2008.
- 박경신, 「〈병자일기〉의 수필적 성격」, 『울산어문논집』 7, 1991.
  「『병자일기』에 나타난 1630년대 후반의 민속」, 『울산어문논집』 9, 울산대 국문과 1994.
- 박성순, 「병자호란 관련 서사문학에 나타난 전쟁과 그 의미」, 동국대 석사논문, 1996.
- 변순희, 「일기체 문학 〈병자일기〉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심희기, 「16세기 李文楗家의 노비에 대한 체벌의 실태분석」, 『국사관논총』 97, 2001.
- 이성임, 「16세기 李文楗家의 수입과 경제생활」, 『국사관논총』 97, 2001.
  「16세기 양반사회의 膳物經濟」, 『한국사연구』 130, 2005.
- 이순구, 「조선후기 양반가 여성의 일상생활 일례 Ⅰ -『丙子日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1998.
- 장경남, 「병자호란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여성 수난을 중심으로」,『어문연구』 31권 3호, 2003.
- 전형대 · 박경신 역주, 『역주 병자일기』, 예전사, 1991.
- 정하영, 「조선조 '일기'류 자료의 문학사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65, 1996.
-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2, 역사비평사, 2000.
  『의식주-살아있는 조선의 풍경』 조선시대생활사3, 역사비평사, 2006.
- 함정옥, 「남평조씨 〈병자일기〉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06.

강정일당의 삶과 내조의 글쓰기

이 종 묵 Lee jong-mook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mook1446@snu.ac.kr

05

1. 머리말

강정일당(姜靜一堂, 1772-1832)은 어떤 인물인가? 이규경(李圭景)은 조선의 유일한 여사(女師)를 들면서 정일당의 삶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 바 있다.

> 근세 정일당 강씨가 있는데 윤광연(尹光演)의 아내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정일당집(靜一堂集)』 1권이 세상에 전한다. [강씨는 본관이 진주로 호를 정일당이라 하였고 탄원(坦園) 윤광연에게 시집갔다. 유질(乳疾)이 있어 자식을 두었지만 기르지 못하였다. 집이 매우 가난하였지만 글을 잘하였으며 예학(禮學)에 특히 뛰어나 그 남편을 권려하였다. 집은 네 벽만 휑하였는데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쳐 생계를 꾸렸다. 약현(藥峴)의 김씨 자제들이 많이 나아가 배웠다.(1) 죽음에 이르러 탄원이 도모하여 문집을 간행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들 부조를 하여 『정일당집』 1권을 찍었다. 노호(鷺湖)의 처사 오희상(吳熙常)이 그 문집에 발문을 썼다. 윤군은 노호의 문생이다.](2)

(1) 약현의 김씨가 누구인지는 자세하지 않지만, 김익(金熤)이 약현 재상으로 일컬어졌으므로 이 집안일 가능성이 높다.

(2) 『五洲衍文長箋散稿』의 「女師徒辨證說」에 실려 있다.

이 글에서 정일당은 집안이 매우 가난하였지만 문학과 예학에 뛰어났으며 이로써 남편을 권려하고 서당을 열어 학생을 가르쳤다는 점을 강조하였다.[3] 우리 역사에서 서당을 열어 학생을 가르친 여성은 거의 정일당이 유일하다 하겠다. 이 점에서 정일당의 삶은 큰 관심을 끈다. 위의 글에서 보듯 정일당이 세상을 뜬 후 남편 윤광연은 정일당의 문집을 간행하였다.[4] 그 문집을 볼 때 가장 놀라운 점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를 주고받았다는 점이요, 남편과 짧은 쪽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으며 남편을 위하여 많은 글을 대신 지어주었다는 점이다.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학문과 문학, 예학에 뛰어나고 시어머니와 문학으로 소통하였으며 남편과 학문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남편을 권려(勸勵)와 책선(責善)의 도리로 내조하였다. 정일당은 현대적 의미에서도 이상적인 여성상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일당의 가정에서의 삶을 복원하고 특히 남편과의 부부생활을 구체적으로 살피며 글쓰기를 통하여 어떻게 내조하였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5]

2. 삶과 부부생활

정일당은 1791년 스무 살의 나이에 윤광연과 혼인하였다.[6] 정일당의 친정은 진주 강씨로 명문가이지만 조선 후기 들어 가세가 기울었다. 증조부 강주우(姜柱宇)가 소론의 견제를 받아 평생 벼슬길이 막혔고 조부 강심환(姜心煥)과 부친 강재수(姜在洙)가 연이어 일찍 작고하여 집안이 무척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7] 또 외가로 권상하(權尙夏), 권섭(權燮) 등이

(3) 이규경은 이 글의 앞부분에서 중국의 경우 晉의 위부인(衛夫人)이 왕희지(王羲之)에게 서법(書法)을 가르쳤고, 같은 시대 위령(韋逞)의 모친 송씨(宋氏)가 붉은 휘장을 치고 학생을 가르친 사례를 들면서 세상에 드문 기이한 일이라 하였으며, 유몽인(柳夢寅)의 누이요 홍서봉(洪瑞鳳)의 모친인 유씨(柳氏)가 경사(經史)에 통달하여 이현영(李顯英)이 그에게 배웠다고 하였다.

(4) 『정일당유고(精一堂遺稿)』의 간행 경위는 박무영, 「여성시문집의 간행과 19세기 경화사족의 욕망 – 정일당유고의 간행을 중심으로」(『고전문학연구』 33집, 2008)에서 밝혔다. 그런데 신위(申緯)의 「제윤탄재광연철배강씨탄원기후(題尹坦齋光演哲配姜氏坦園記後)」(『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 291:518)에 따르면 문집이 30권이고 「經說」 3권이 있는데 지금 모두 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일당이 죽은 후 윤광연이 문집을 간행하기 위하여 정리한 것이 『정일당유고』 초간본이라는 점에서 신위의 이 지적은 의심스럽다. 정일당의 「坦園記」를 직접 인용한 후 시를 지어 붙였으므로, 그 문집을 직접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탄원기(坦園記)」만 따로 사대부 사이에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또 위의 글에서 오희상(吳熙常)이 발문을 썼다고 하였지만 지금 전하는 『정일당유고』에는 오희상의 발문이 전하지 않고 오희상의 문집에도 보이지 않는다.

(5) 이영춘 선생은 『정일당』(가람기획, 2002)에서 정일당의 삶과 문학, 학문을 자세히 살피고 뒤에 『정일당유고』를 번역하여 붙여놓아 크게 참조가 된다. 이 글은 주로 이 책의 번역문과 원문을 참조하였다.

(6) 「행장」에 따르면 정일당이 태어날 때 모친 권씨의 꿈에 두 명의 성비(聖妣)가 나타나 시녀 한 명을 가리키면서 "이 아이는 지덕(至德)이 있어 이제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권씨는 그 꿈대로 이름을 정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정일당은 천상 옥황상제 부부를 모시는 시녀의 환생이요, 또 꿈대로 이름을 정하였다고 하였으니 지극한 덕 지덕이 정일당의 아명이었던 듯하다. 『한국문집총간』에는 편자를 강지덕(姜至德)이라 표기하였다.

(7) 이하 정일당의 생애는 강원회(姜元會)의 「행장(行狀)」과 홍직필(洪直弼)의 「유인진주강씨묘지명(孺人晉州姜氏墓誌銘)」를 주로 참조하여 재구하였다. 기존의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어졌기에 상술하지 않는다.

연결되고 이들이 정일당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 듯하다. 또 윤광연의 집안 역시 명환(名宦)을 배출한 명문이지만,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아 제천의 한미한 향반으로 전락한 듯하다.

정일당이 스무 살에 혼인을 한 것은 당시로는 매우 늦은 것이라 하겠는데 이는 양가의 가난 때문이었다. 정일당의 친정은 제천 근우면(近右面) 신촌(新村), 지금의 봉양읍 어딘가로 추정된다. 정일당은 가난 때문에 혼인 이후에도 신행을 하지 못하고 친정에서 살다가 1793년 시아버지 상을 당한 이듬해 비로소 친정을 떠나 시집으로 들어갔다. 윤광연의 부친 윤동엽(尹東燁)이 한양의 반석방(盤石坊) 도저동(桃楮洞), 지금의 후암동에서 태어났으므로 시집 역시 이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1798년 과천으로 이주하였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 것으로 보아 온 식구가 함께 옮긴 듯하다. 정일당은 과천에서 남의 빈집에 세 들어 살았는데 낮에는 범이 울고 밤에는 허깨비가 휘파람을 불었고 일곱 끼니를 굶은 적도 있었다 하니 그 궁핍함을 짐작할 수 있다. 정일당은 5남 4녀를 두었는데 어린 나이에 모두 잃은 것도 이러한 가난 때문이었던 듯하다. 큰 시숙 윤광국(尹光國)이 남의 오두막집에 세를 얻어 살면서 막일을 하였지만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웠다. 윤광연 역시 상민의 복장을 하고 충청도와 경상도 지방을 떠돌면서 돈벌이에 나서야 했다.

정일당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남편과 시어머니 지일당(只一堂) 전씨(全氏)였다. 정일당은 지일당과 함께 바느질과 길쌈을 하여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였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여러 해 동안 길쌈을 하여 동전 수십 꾸러미를 모았다. 남녀를 막론하고 돈벌이에 나선 탓인지 정일당 부부는 얼마 있지 않아 광주 둔퇴리(遁退里) 금곡(金谷), 지금의 성남 청계산 자락 금토동에 약간의 선영을 마련하였고 도성 안 약현리(藥峴里), 오늘날 약현성당이 자리한 중림동에 집을 구할 수 있었다. 그 집 이름을 탄원이라 하였는데 윤광연은 이를 호로 사용하였다.

이 무렵 형편이 조금 좋아진 듯 해보이지만 가난은 지속되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일당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삶을 참으로 훌륭하게 살았다. 정일당의 남편에 대한 내조 역시 지일당의 영향이 컸다. 윤동엽이 산수 유람으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지일당이 생계를 책임진 것처럼, 정일당 역시 가난하여 한 항아리의 쌀도 비축해놓은 것이 없었지만 남편의 학업을 위하여 생계를 도맡았다. 정일당은 "사람이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절로 정해진 운명이 있는데 빈한한 선비를 따라 사는 아내들은 가난을 싫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비방하기까지 하니, 이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 하여 가난을 불평하지도 않았다.



그림1. 『정일당유고』

이처럼 지일당은 정일당의 삶의 전범이었다. 『정일당유고』의 첫머리에는 1797년 정일당이 지일당과 수창한 시가 실려 있다. 지일당이 "봄이 와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니 사람은 점차 늙는다. 탄식한들 무엇하리요? 그저 한 가지 선을 행할 뿐(春來花正盛 歲去人漸老 歎息將何爲 只要一善道)"이라 하였다. 정일당은 이 시에 화답하여 "낮은 공부는 인륜을 돈독히 하는 것이라, 어린이를 아끼고 노인은 편하게 하는 것. 고삐를 바로 하여 이 길로 나아가면, 절로 탄탄대로가 열리지 않겠나요.(下學須敦倫 慈幼且安老 直轡從此行 自是坦坦道)"(「敬次尊姑只一堂韻」)"라 하였다. 이를 보면 정일당이 시집간 이래 1809년 지일당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일당을 모시고 함께 살면서 학문과 문학을 익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일당이라는 호 역시 지일당과 관련이 있다. 지일당의 호가 "지요일선도(只要一善道)"에서 나온 듯하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허둥대지 말고 한 곳에만 마음을 전일하게 하라는 뜻에서 이른 주자의 "지일심(只一心)"의 공부를 모범으로 하겠다는 의지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정일당의 '정일(精一)'이 바로 '지일'과 비슷한 의미이니, 시어머니의 '지일'을 배워 '정일'의 삶을 지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일'은 『서경』에 나오는 말로 마음을 정심(精深)하고 전일(專一)하게 가진다는 뜻이다. 이의현(李宜鉉)은 훗날 지은 만사 「추만(追挽)」에 따르면 정일당이라는 호는 남편이 평소 숭상하던 바를 좇아 지어준 것이라 하였으니, 윤광연이 모친 지일당의 뜻을 이렇게 연결하여 정일당이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일당은 학문에 뛰어나 정일당의 학문에 큰 영향을 끼친 듯하다. 홍직필(洪直弼)은 「애사(哀辭)」에서 지일당은 현모(賢母)라 칭송하고 경사(經史)의 대의(大義)를 통하고 가끔 옛 그림과 서적을 열람하였다고 하였으며, 「유인행장(孺人行狀)」에서 지일당이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하였고 『소학』을 좋아하여 매일 밤 한 번을 통독한 후 잠자리에 들었으며 새벽 일찍 일어나

소제하고 길쌈을 한 후 여가에 경서와 『사략』, 『중용』과 『대학』을 수천 번 읽었다고 하였다.[8] 정일당이 시집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학업을 익혔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용』에 뜻을 둔 것 자체도 시어머니의 가르침에 힘입은 듯하다. 「행장」에 따르면 정일당은 젊은 시절 『중용』의 「계신장(戒愼章)」을 읽었는데 정미한 뜻을 분석한 것이 주자(朱子)의 뜻에 맞았다고 한다. 또 주자가 이른 "들려오는 종소리가 끊어지기 전에 이 마음이 벌써 도망가 버렸다."는 구절을 읽고 매일 종소리가 날 때면 조용히 앉아서 이를 체험해 보고자 하였다. 글방 아이가 수표(水杓)를 치는 놀이를 하는 것을 듣고 소리의 간격에 절도가 없자, 그 소리를 고르게 치도록 하고서 마음의 변화를 느껴보고자 하였다. 바느질을 하면서도 마음의 움직임이 없도록 노력하였다."고 술회한 바 있다. 이러한 자득(自得)의 공부 방식 역시 지일당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었으니 그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정일당은 시어머니 지일당의 지원 아래 가사 노동의 여가에 학업을 익힐 수 있었다. 사대부들의 필수적인 텍스트인 13경(經)을 두루 읽어 심오한 뜻을 연구하고 매일 글을 읊조리고 외웠으며, 전적을 널리 보아 고금치란(古今治亂)의 사적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알았다고 한 「행장」의 칭송도 지일당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리라. 삼종질 강원회(姜元會)의 「뇌문(誄文)」에 따르면 『이아(爾雅)』와 『좌씨춘추(左氏春秋)』, 『근사록(近思錄)』, 『격몽요결(擊蒙要訣)』 등을 즐겨 보았다 하니, 여성으로서 그 학문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2. 『근사록』

(8) 윤동엽, 「孺人行狀」(『自齋遺稿』, 규장각 소장본).



그림3. 『이아』





그림4. 『격몽요결』

정일당의 학문과 문학은 지일당의 영향 아래 남편 윤광연과 함께 이룬 것이다. 〈행장〉에 따르면 남편은 책을 들고 글을 읽고 아내는 그 곁에서 가위와 자를 들고 바느질을 하면서 글 읽는 소리를 들었으며 가끔 글자의 획도 물어보고 음과 뜻도 묻곤 하였다고 한다. 슬쩍 책을 넘겨보면 바로 암송하였고 심오한 뜻도 바로 이해하였으니, 윤광연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곤 하였다고 한다. 마침내 두 사람은 학문에 대해 강론을 펼치며 식견을 넓히게 되었으니, 부부가 학우(學友)가 된 셈이다. 정일당의 문집에는 남편에게 보낸 짧은 쪽지 편지 「척독(尺牘)」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린 글 중에 이들 부부가 나란히 공부를 하는 모습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 교외에서 시원한 기운이 막 들어옵니다. 이제는 정말 등화가친(燈火可親)의 계절입니다. 반드시 손님을 접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등 부득이한 것 외에는 전념하여 독서를 하소서. 저 또한 바느질을 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여가에 한밤중 휘장을 치고 글자를 보고 깨우칠 계획입니다. 접때부터 사서를 읽고 있는데 『맹자』의 마지막 세 편은 아직 마치지 못하였지만 오래지 않아 끝을 내고 올 겨울부터는 서방님을 통하여 『주역』을 읽을까 합니다. 다만 객이 오래 머물고 계시면 할 수 없겠지요.(577면)(9)

(9) 이하 『정일당유고』는 『한국문집총간』(속편 111)에 실린 판본의 면수를 밝힌다. 규장각에 소장된 중간본을 영인한 것이다.

가을을 맞아 가사노동의 여가에 공부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남편에게 《주역》을 배우고자 하는 뜻을 말하였다. 이를 보면 가끔 한 자리에 앉아 함께 공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사랑채에서 다른 학자들과 공부한 것을 쪽지에 적어 보내줄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

> 밥을 짓지 못한지 이제 사흘이 되었습니다. 글 배우는 아이가 마침 호박 덩굴을 걷어서 왔는데, 그 안에 주먹만한 호박을 몇 개 찾아서 썰어서 죽을 끓였습니다. 술을 한 잔 구하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죽만 올리게 되어 황공하고 개탄할 뿐입니다. 덕은 정말 하루라도 닦지 않을 수 없고 학문도 역시 하루라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학문을 할 때 독서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없는 법입니다. 제가 듣자니 서방님께서 『주역』을 읽고 계시는데 은하자(銀河子) 이만영(李晩英) 선생이 와서 머물며 겨울을 나실 것이라 합니다. 이 분은 젊은 시절부터 경학을 익힌 선비이니, 함께 학문을 강마하시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원컨대 매일 토론한 것을 쪽지에 기록하여 내려주시면 큰 다행이겠습니다.(577면)

가난하여 사흘 밥을 짓지 못하고, 서당을 출입하는 아이가 가져온 호박 넝쿨에 붙은 작은 호박으로 죽을 끓여 남편에게 바치는 광경이 안쓰럽다. 그러나 남편의 학문을 권려하는 한편, 함께 공부한 바를 쪽지에 적어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하였다. 정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다. 또 이진연(李晉淵)이 홍석주(洪奭周)와 『중용』에 대해 강론한 『용학차의(庸學箚義)』와 『산야문답(山野問答)』에 대한 정보를 듣고 윤광연에게 빌려다 달라고 하였다. 찾아오는 학우와의 토론 내용을 묻고 참고할 만한 것이 많을 것이므로 베껴다 보여 달라고도 청하였다.



그림5. 『산야문답』

정일당은 윤광연을 통하여 학문을 이루었다. 「행장」에 따르면 정일당은 천지, 귀신, 괘상(卦象), 정전(丁田)에서부터 곤충과 초목, 그리고 경사(經史)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조목별로 열거하여 남편에게 질문하였고 이에 윤광연은 아는 대로 답해주고 모르는 것은 스승과 친구에게 물어서 답을 해주었다고 한다. 또 윤광연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정일당에게 물었고 정일당은 성실하게 답을 하였다고 한다.[(10)] 부부가 나란히 학문에 전념하는 이채로운 풍경이라 하겠다.

정일당은 남편과 짧은 편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예학과 문학, 인물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예학을 두고서 편지를 통하여 의견을 주고받았다. 선비의 아내가 제사 때 흰 단의(褖衣)를 입는 제도의 연원을 물었고, 심의(深衣)나 화관(花冠) 등의 제도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정일당은 "저는 일개 부인으로 몸은 집안에 갇혀 있고 들은 것도 아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바느질하고 소제하는 여가에 옛 경전을 살피고 그 이치를 탐구하며 그 행실을 본받아서 옛사람의 경지에 함께 이르고자 합니다."(579면)라고 선언하였다. 또 임윤지당(任允摯堂)이 이른 "나는 부인이지만 하늘에서 받은 성품은 애당초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말을 들어 부인이라도 큰 실천과 업적이 있으면 성인의 경지에 들 수 있는지, 남편에게 문의한 바 있으니, 여성으로서 성인의 경지에 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정일당은 "탄원은 그윽하고 고요하니, 지인(至人)의 집으로 딱 맞네. 홀로 천고의 서적을 탐독하니, 몇 칸 집에서 고고하게 누웠노라(坦園幽且靜 端合至人居 獨探千古籍 高臥數椽廬)"(「坦園」)라고 노래한 1824년의 작품에서처럼, 산수에 은거하여 학문에 전념하는 산림의 학자가 되고자 하였다. 이때 시는 중요한 남편과의 학문적 권려의 수단이었다. 정일당은 1798년 지은 시에서 "서른에 비로소 학문에 입문하여, 배움에 동서를 알지 못하였네. 이제 반드시 노력을 더하여, 고인과 같게 될 수 있기를.(三十始課讀 於學未東西 及今須努力 庶幾古人同)"(「始課」)이라 하였다. 「행장」에 따르면 윤광연은 1799년 이직보(李直輔)를 만났을 때 이 작품을 보여주었고 이에 이직보는 "어진 부부 사이에 서로 경계하는 말이다."라고 크게 칭찬하였다고 한다. 이를 보면 이 작품은 정일당 자신의 공부가 부족하므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막 공부를 시작한 남편에게 늦게 시작한 학업이므로 더욱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는 뜻을 말한 것이라 풀이할 수 있다.

젊은 부부가 본격적인 학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뜻을 함께 하고 서로를 권려하였다는 것은

(10) 그 문답과 언행을 기록한 것을 모아 『問答篇』과 『言行錄』 등으로 엮었다. 그러나 불행이 이 책은 지금 전하지 않는다.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다음 짧은 편지 역시 이러한 부부가 함께 이루어나가는 학문의 풍경을 살필 수 있다.

> 보여주신 당신의 절구 한 편(“공자와 안자는 내가 배우고자 함이요, 태임과 태사는 당신이 기약하는 것이지요. 학문의 뜻은 함께 권면하는 법, 이렇게 늙어가는 노년 역시 그러해야지요. 孔顔吾願學 妊姒子攸期 志業且相勉 況玆衰暮時”)은 크게 읊조려 그치지 않습니다. 본성이 원래 선하다는 것과 성인은 본성에 충실한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본성이 선한지, 어떻게 충실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안다고 한 것이 정말 아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 혹 알아서 실천하는 이도 있지만 뜻을 세운 것이 굳지 않아 했다 말다 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세월이 급하게 흘러가서 마침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는 예전 슬프게 여긴 바입니다. 이제 권면하는 글을 받아보니 감히 가슴에 새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590면)



그림6. 『강정일당』



그림7. 국역 『정일당유고』

이처럼 윤광연과 정일당은 서로 시를 주고받으면서 학문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지금 윤광연의 문집이 전하지 않고 또 『정일당유고』에도 윤광연의 시가 따로 실려 있지 않지만, 『정일당유고』에 실려 있는 작품만 보더라도, 이들 부부는 제법 많은 시를 주고받았다. 지금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조선시대 부부가 시를 주고받는 일이 그리 드물지는 않았다.

16세기 유희춘(柳希春)과 송덕봉(宋德峯) 부부, 19세기 김삼의당(金三宜堂) 부부 등의 사례가 알려져 있다. 다만 후세에 규방의 글이 바깥에 전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작품이 전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러하였듯이 규방의 글이 밖으로 전해지는 것을 큰 부끄러움으로 알았다.

「학업을 시작하며(始課)」를 두고 이직보가 칭찬하였다고 한 말을 전해들은 정일당은 크게 부끄러워하고 그 뒤로는 작은 시문이라도 숨기고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하니, 정일당 역시 당시의 관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정일당유고』에 남편에게 보낸 시가 그리 많지는 않고 또 전하는 몇 편의 작품 역시 학문의 권려를 주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쉰 살을 앞둔 1821년 섣달 그믐날, 남편에게 시를 지어 보인 작품을 보아도 역시 그러하다. "아무 일 하지 않고 허송세월하였으니, 쉰하나 이 나이가 내일 아침 일이라. 한밤에 비탄한들 무슨 소용 있으랴? 남은 생애 내 몸 수양이나 하여야지.(無爲虛送好光陰 五十一年明日是 中宵悲歎將何益 且向餘生修厥己)"(「除夕感吟」)라 하였다. 학업을 게을리 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학문과 수양에 전념하겠노라는 선언을 남편에게 한 것이다.

이들 부부가 근엄하게만 산 것은 아니었다. "꽃은 정원에 심는 것이 마땅하고 안뜰에 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동암(東巖)과 월담(月潭) 사이에 옮겨 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봉선화는 손톱을 물들이는 것인데 저는 원래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옮겨 심었으면 하는데, 어떠하신지요?"(576면)라 한 데서, 부부의 다정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정일당은 남편과 함께 학문과 문학, 교육을 하면서 다정하게 살았지만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부부유별(夫婦有別)의 윤리를 준수하였다. 부부 사이의 유별은 거처를 달리하는 데서 출발한다. 물론 정일당은 안채에 기거하면서도 사랑채에 있는 남편의 일을 훤히 꿰고 있었다. 정일당의 문집에 실려 있는 짧은 쪽지 편지는 정일당이 사랑채 출입을 하지 않으면서 남편과 소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음식을 올리면서 넉넉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지 말고 다 먹으라는 쪽지를 함께 넣기도 하였으니, 내외를 엄격히 하면서도 끊임없이 글로 소통하였던 것이다. 또 정일당은 남편이 사랑채에서 잘못 처리하는 일이 있으면 급히 쪽지 편지를 보내어 중지시키곤 하였다.

정일당의 이러한 태도는 남편을 손님 대하듯 공경하여야 한다는 조선시대 아내의 도리를 잘 지킨 것이라 하겠다. 정일당은 여섯 살이나 아래인 윤광연을 극진한 공경으로 섬겼다. 남편이 출타하여 하룻밤을 묵고 오게 되면 반드시 절을 하여 전송하고 돌아오면 다시 절을 하여 맞았다고 한다. 남편을 위한 책선을 꺼리지 않고 또 남편을 대신하여 많은 글을

지었지만 남편을 결코 경시하지 않았다. 환갑을 바라보던 1830년 설날 아침에 지어 바친 시에서 "사람이 정말 도를 듣지 못하였으면, 죽지 않은들 또한 경사가 아니라네. 오직 부자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일심으로 성(誠)과 경(敬)을 다하겠소.(人苟未聞道 不死亦非慶 惟將夫子訓 一心盡誠敬)"(「元朝敬呈夫子」)라 하여, 평생 남편의 가르침을 받들어 성실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였다.

정일당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평생 견지하였다. 1832년 음력 9월 14일, 정일당 병이 깊어져 약현 탄원의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보다 사흘 앞서 시를 한 수 지었다. "여생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성현이 되기로 한 기약 부끄럽게 저버렸네. 늘 증자를 사모해 왔으니, 이제 자리를 바꾸어 떠나야 하겠네.(餘生只三日 慙負聖賢期 想慕曾夫子 正終易簀時"(「壬午冬, 夫子示余五絕, 一道勉志業之進 就余未及仰和矣. 忽於昨夜夢中, 追次前韻, 旣寤而猶記, 遂錄以存之」)라 하였다. 1822년 윤광연은 학업의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하자는 뜻으로 오언절구를 지어 정일당에게 보인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화답의 시를 짓지 못하다가 문득 꿈에서 그 시에 답하는 시를 짓게 되었다고 한다. 죽음을 앞둔 시점, 자신의 공부를 돌아보고 이렇게 답하였으니, 평생 남편과 함께 학문과 수양에 힘을 쏟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권려와 책선의 내조

18세기의 학자 송명흠(宋明欽)은 『규감(閨鑑)』이라는 책을 편찬하여 자신의 딸이 시집가서 가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책에 쓴 서문에서 "예전에 여자는 여덟 살이 되면 『효경』과 『논어』를 읽어서 큰 뜻을 대략 깨우친다. 일상의 음식과 거처, 의복을 여기에서 본받지 않음이 없다. 이 때문에 익숙해져 올바른 성품이 이루어지고 교화를 받아 지혜가 자라나게 된다. 안으로 그 행실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 남편을 보필하며, 위로 시부모를 봉양하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며, 아래로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식들을 교육한다."라 하였다. 송명흠은 바른 몸가짐, 남편을 위한 내조, 시부모 봉양과 조상의 제사, 노비의 관리 자식 교육 등을 들었다.[11]

(11) 송명흠, 「閨鑑序」(『櫟泉集』 212:272). 이하 조선시대 부부의 생활에 대해서는 필자의 『부부』(문학동네, 2012)에서 다룬 것을 적절히 이용하였다.

정일당은 역시 이러한 아내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으니 조선시대는 물론 현대에까지 가장 바람직한 여성상이라 할 만하다. 정일당의 가장 뛰어난 아내로서의 덕목은 남편을 위한 내조라 할 것이다. 조선시대 가장 일반적인 내조는 이덕무가 『사소절』에서 든 대로 "가장이 밖에 나가서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등불을 밝히고 화로에 불씨를 담아 놓고 그릇을 정리해 둔 다음 엄숙하고 공손하게 기다려야 한다. 가장이 돌아와 옷을 벗고 자리에 앉으면, 반드시 국을 데우고 찬거리를 익혀서 올려야 한다. 게으름을 피워 근실하지 못하다는 책망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 한 것이다. 앞서 본 대로 정일당은 학생이 보낸 호박넝쿨에서 딴 작은 호박으로 죽을 끓여 보내면서 술 한 잔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으니, 이러한 일상의 내조 역시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 문중자(文中子)의 의복은 검소하면서도 정결하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의복이 검소하기는 하지만 정결하지는 못합니다. 검소한 것은 당신의 덕이지만 때가 묻어 더러운데도 빨지 않거나 터졌는데도 꿰매지 않은 것은 저의 죄입니다. 잿물을 풀고 바늘에 실을 꿰고 기다리고 있으니, 옷을 벗어주세요.(576면)

정일당은 이러한 일상의 내조를 뛰어넘어 남편의 학문을 위하여 스스로 가정 경제를 도맡았던 데서 빛을 발하였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생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유롭게 바깥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내조였다. 조선시대에는 학자가 학문에 전념하여 큰 뜻을 이루었다고 칭송할 때 좋은 처가 있었기 때문이라 하였으며, 청렴결백하게 평생을 산 맑은 선비라는 이름을 얻은 것도 좋은 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기록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앞서 본 대로 정일당은 시어머니 지일당과 함께 남편으로 하여금 집안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다. 직접 돈벌이에 나서는 남편을 붙잡고 정일당은 울면서 한 말이 「행장」에 인용되어 있다.

>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사람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의리를 버리고 살기만을 도모하는 것은 도리를 배우고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는 것만 못합니다. 제가 비록 재주가 없지만 바느질과 길쌈은 대강 할 줄 아니,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여 죽은 잡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성현의 글을 읽으시고 집안일에는 관심을 갖지 마소서.

바느질과 길쌈으로 가정경제를 책임질 것이니 남편은 독서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고 다시 "소첩이 재덕이 없어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 바느질을 배웠으니, 당신은 모름지기 학업에 전념하시고, 의식에는 관심을 두지 마소서(妾愧無才德 幼年學綿針 眞工須自勉 衣食莫關心)"(「呈夫子」)라 시를 지어 거듭 당부하였다. 또 정일당은 지일당과 함께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벗을 정성껏 대접을 하여 윤광연의 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윤광연이 손님을 좋아하여 신발이 늘 뜰에 가득하였는데 정일당은 가난한 살림에도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잡곡밥에 나물국, 변변찮은 술과 안주일망정 정결하게 내어놓았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부인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작은 일이니, 이것도 못한다면 그런 부인은 어디에 쓰겠는가?"라 하였다. 윤광연이 사우(師友)를 찾아나서는 데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지 않게 하였다. 심지어 "스승을 찾아뵙는 일은 어버이를 찾아뵙는 일과 같습니다. 어찌 저의 질병 때문에 여행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 병은 심하기는 하지만 꼭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바른 도를 들으신다면 제가 죽더라도 영광입니다."라 하여 자신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학문을 위한 여행을 재촉하였다.

이처럼 남편으로 하여금 집을 떠나 큰 스승과 좋은 벗을 만나 큰 공부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행장」에는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성현의 교훈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대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독학하여 사우가 없으면 고루함을 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스승을 따르고 벗을 사귀어 도움을 받으소서."라 하여 정일당의 말을 빌려 내조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윤광연으로 하여금 스승에게 나아가 수업을 청하고 학우들과 노닐게 한 것은 모친 지일당의 뜻이기도 하였다. 「유인행장」에 따르면 지일당은 김필태(金必泰)가 산중에서 학문의 자득을 이룬 것을 높게 평가하여, 직접 짠 면포를 쥐어 보내 그에게 학문을 익히게 하였다. 재물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운명이므로 대장부가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면서 학업에 전념하게 하였다. 지일당이 이러한 뜻에 정일당이 적극 호응하여 내조를 하였을 것은 틀림이 없다. 이에 따라 윤광연은 송환기(宋煥箕), 송치규(宋穉圭), 홍직필(洪直弼) 등에게 나아가 수학하였다. 1809년 모친을 잃고 홍직필에게 부탁하여 「애사」를 청하여 받았는데 그 글에서 홍직필이 윤광연을 처음 만나는 대목이 나온다.



그림8. 『매산집』

직필이 어려서부터 고질병이 있어 교유를 끊고 지냈고 늘 이목구비를 닫고 살았다. 하루는 내가 살던 남산 기슭을 들러서 상견례를 청하는 이가 있기에, 맞아서 마루에 올리니, 검은 갓에 흰 옷을 입고 단정하게 나아와서 읍(揖)을 하고 앉았다. 그 외모가 침착하고 공경스럽고 그 낯빛이 따스하고 부드러우며 그 말이 느리면서도 이치에 맞았다. 그 원하는 바가 안연(顔淵)이 되고자 하고 공자(孔子)를 배우고자 함이었다. 그 성명을 물었더니 곧 윤명직(尹明直) 광연이라 하였다. 명직은 내가 염치없음에 구애되지 않고 자주 내 방으로 찾아왔고 가끔 편지를 보내어 경전과 예학의 뜻을 두고 논란하였다.(12)

이어지는 글에서 홍직필은 윤광연이 일찍 부친을 여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뜻을 두게 된 것이 모친 지일당의 덕에 힘입었다고 하였다. 송치규 역시 모친의 뜻에 의하여 윤광연이 찾아왔다고 하였지만 스승에게 나아가면서 아내의 뜻이라 할 수는 없기에 모친의 뜻이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정일당이 유자의 복장인 현관호의(玄冠縞衣), 곧 검은 갓에 흰 도포를 입혀서 홍직필에게 나아가게 한 것인 듯하다.

이리하여 윤광연은 여러 스승에게 학업을 익히기 위하여 집을 나섰다. 이때 정일당은 "이른 새벽 울면서 당신을 보냅니다, 멀어지는 강산을 잊지 않으시겠지요. 떠나실 제 한 마디만 고할 것 있으니, 세상사 돌고 도는 것 저 창천과 같다고.(淸晨灑泣送君子 去去湖山應不忘 臨行唯有一言告 世事循環如彼蒼)"(「敬呈夫子行駕」)"라는 시를 지어 보내면서 권려의 뜻을 담았다. 저 푸른 하늘에 해와 달이 떴다 지는 것과 같은 순환의 이치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부탁한 것이다. 멀어지는 강산을 잊지 않을 것이라 한 것은, 두고 간 고향집의 가족을 말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권려의 글이 바로 내조의 글쓰기라 하겠다.

(12) 홍직필, 「尹明直慈夫人哀辭并序」(『梅山集』 296:118).

> 엎드려 여쭙니다. 밤새 병세가 어떠하신지요? 바람과 눈이 거센데 방구들이 얼음처럼 차니 병세가 심해질까 우려됩니다. 달포 전에 근진(謹鎭)이 동산에서 밤을 주워 큰 것을 한 되 남짓 고르고 육포 몇 조각을 잘라 와서 바치기에 받아두었습니다. 이제 꺼내보니 밤은 반이나 쥐가 갉아먹었고 육포는 상했습니다. 칼로 깎고 물로 씻어 화로에 구웠습니다. 종이 값으로 동전 두 닢을 받았기에 술을 사서 데워 함께 올립니다. 이 물건이 별것 아니지만 얼마나 어렵게 가져온 것인지를 잊지 마소서. 잠시 허기를 채우시고 바로 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소서. 천만번 엎드려 축원합니다.(576면)

정일당은 학생이 보내온 밤과 육포를 정성껏 손질하여 구워 올리고 술을 조금 받아 남편에게 보내었다. 남편에게 음식을 올리는 일상의 내조를 하는 한편, 밤과 육포로 허기를 달래고 바로 책을 펼치라고 당부하였다.

정일당은 이러한 권려와 함께 책선의 내조를 잘 하였다. 조선시대 아내의 중요한 내조 중 하나가 책선이었다. 부인에 대한 추억을 담은 글에는 부인의 책선으로 허물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는 조선 문인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아내의 역할이 내조이기에 아예 아내를 내조라고 부른 바도 있다. 18세기의 문인 남유용(南有容)은 죽은 아내의 행장을 쓰면서, "나에게 허물이 있으면 당신은 반드시 스스로를 탓하면서, '고인이 처를 일러 내조라 불렀는데, 당신에게 허물이 있는 것은, 내가 내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지요.'"라 하였다.[13] 정일당은 사랑채에 있는 남편에게 자주 쪽지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 대부분이 책선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 오늘 아침 한 노파가 쌀 한 말과 고기 한 근을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그 까닭을 물어보았지요. "전에 교외로 나갔다가 무뢰한에게 잡혔는데, 마침 서방님이 지나가시기에 울면서 서방님 말 앞에 읍소를 하였습니다. 서방님께서 엄한 말로 타일러 마침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은혜에 깊이 감사하여 이 때문에 이렇게 정성을 표하게 된 것입니다."

(13) 남유용, 「亡室恭人杞溪俞氏行狀」(『雷淵集』 217:524).

이때 사랑채에 손님이 있는 것을 듣고 감히 번거롭게 알릴 수 없어 안에서 돌려주었더니, 노파가 굳게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말하였지요. "부군께서는 일찍이 이레를 굶었는데도 천 냥의 돈을 물리쳤는데, 이제 어찌 자네의 물건을 받을 수 있겠는가?"
노파가 탄식을 하고 쌀과 고기를 가지고 막 돌아갔습니다. 노파가 비록 성의를 표하기 위하여 와서 바친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받는다면, 은혜를 팔아먹었다는 혐의가 있을 것 같기에, 이처럼 처리하였습니다. 어떠하신지요?(573면)

아무개 아이의 집은 나흘간 밥을 짓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집은 사흘 밥을 짓지 못하였으니, 이 아이가 보낸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부모의 뜻도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들고 온 것입니다. 비록 한 됫박의 별것 아닌 쌀이지만 의리를 볼 때 편안치 못합니다. 지난 번 김가 아이가 보내온 것은 한 섬이나 많은 것이지만 주고받은 것이 형편에 합당합니다. 또 부모 명으로 한 것이니 사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576면)

윤광연이 길을 가다 불쌍한 노파를 도왔는데 그 때문에 노파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였지만 이를 물리침으로써 남편의 덕을 높였다. 또 가난한 살림에 서당을 열고 학생들이 가져온 먹을거리를 가지고 생계를 꾸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정일당은 학생의 형편을 고려하여 받거나 거절할 것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의로움은 다스림의 근본이요 이익은 어지러움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채에 와서 이익에 대한 말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서당의 어린 문생들이 자꾸 그러한 말을 듣다보면 어느새 그러한 데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찌 이러한 사람을 미리 멀리하지 않습니까? 멀리하는 도리는 미워하지 않지만 엄하게 하는 데 달려 있으니 의관을 바르게 하고 눈빛을 준엄하게 하소서. 예의가 아닌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저러한 사람들이 절로 멀어질 것입니다.(576면)

사랑방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정일당이 훤히 꿰고 있었기에 편지를 보내어 바른 행실을 하도록 권하였다. 문객들이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서당에 출입하는 아이들이 볼까 겁난다 하였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방법도 자상하게 일러주었다. 이것이 진정한 내조다. 정일당이 남편에게 보낸 쪽지 편지는 대부분 이러한 책선의 내조로 채워져 있다. 남편이 술을 먹으러 밤에 외출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도 편지를 보내어 책선을 하였다. 또 스승이 될 만한 벗이 오면 오래 잡아두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집안이 가난하고 자신은 몸이 아프지만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니, 좋은 손님을 오래 붙들어두고 배우라 하였다. 낮잠을 잔다고 꾸짖고 과음을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담배를 피운다고 꾸짖었다. 윤광연도 아내의 이러한 따뜻한 책선을 고맙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지은 제문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제망실유인강씨문(祭亡室孺人姜氏文)」이라는 이름으로 『정일당유고』의 부록으로 실려 있다.

> 내가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는 것을 보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하여 더 힘쓰게 하였고, 내가 허물이 있는 것을 보면 근심할 뿐만 아니라 질책까지 하였으니, 반드시 나로 하여금 바른 땅에 서서 천지 사이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였다. 내가 비록 어리석어 다 따를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아름다운 말과 바른 논의는 종신토록 감복하여 새겼다. 이 때문에 부부 사이라도 마치 엄하기가 스승과 같았기에 엄숙하고 공경하여 소홀함이 없었다. 그대와 함께 앉아 있노라면 천지신명을 마주한 듯하였고, 그대와 함께 말을 하다보면 눈이 어찔하곤 하였다.

윤광연이 정일당을 대하는 태도는 어린 자식이 부모를 모시듯, 제자가 스승을 모시는 듯하다. 여섯 살 나이차가 있기는 하지만 강정일당은 남편을 바른 길로 이끌었고, 또 윤광연은 아내의 책선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바른 길로 나아갔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조선의 선비들은 살림만 잘 하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으로 하여금 속물이 되지 않고 고상하게 살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며, 남편의 잘못을 바로잡고 큰 학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내를 이상적으로 여겼다. 곧 가장 절친한 벗이요 인생의 반려자를 원하였던 것이다. 18세기의 학자 민우수(閔遇洙)는 열다섯 살에 한 살 많은 칠원 윤씨(漆原尹氏)와 혼인하여 금슬 좋게 살다가 환갑을 넘긴 62세에 처를 잃고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지은 제문에서 "내가 혹 말을 할 때 마땅하지 않은 것이 있거나 일을 처리할 때 좋지 못한 것이 있으면, 드러내어놓고 말하지는 않으면서도 문득 개탄하는 얼굴빛을 보였소. 이는 내가 당신을 규방에 있는 두려워할 만한 벗(畏友)라고 여긴 것이라오."라 하여 순종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서로의 뜻을 이해해 주었기에 외우(畏友)라 불렀다.(14) 비슷한 시기의 문인 이인상(李麟祥) 역시 아내가 집에 있으면 의리로써 사우(師友)를 겸하여 어리석음을 바로잡아주고 슬픈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고 하였고,(15) 박윤원(朴胤源)은 아예 아내가 동지와 지기였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 때문에 매번 안방에 거처하면서 의리에 대해 말하고 고금의 역사에 대하여 논하면 땔감이나 쌀, 간장, 소금과 같은 살림살이에 대한 이야기보다 좋게 여겼다. 예의에 대한 글의 같고 다른 것이나, 학술이 높고 낮은 것에서부터 미세하고 오묘한 성(性)과 명(命)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더라도 유인은 기쁜 빛으로 알아듣는 듯하였다. 내가 이 때문에 아침저녁 따지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방에 있는 즐거움으로 삼았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나를 바보라 여기겠지만 나는 이를 즐겁게 여겼다.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늘 밖에 나가면 동지가 적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좋은 지기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겼다. 이제 하루아침에 유인을 잃게 되었으니, 그 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이에 좋은 벗을 잃게 된 것이다."라 하였다.(16)



그림9. 『근재집』

정일당은 전통으로 흐르는 조선 여성의 이러한 내조를 따랐다고 하겠다. 다만 다른 여성에 비하여 정일당이 보여준 가장 특징적인 내조는 남편을 위한 글쓰기였다. 정일당이 약현에 마련한 집 탄원에 붙인 아래의 기문 「탄원기(坦園記)」도 남편을 위한 글이다.

> 탄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탄재의 동산이다. 동산은 예전 서원(徐園)이라 불렀는데 동산의 주인 성이 서씨(徐氏)였기 때문이요, 또 서원(西園)이라고도 하는데 한양의 서쪽이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탄재 부자께서 거처하니 어찌 탄원이라 하지 않겠는가? 정현(鄭玄)의

(14) 민우수, 「祭亡室文」(『貞菴集』 216:69). 이하의 예는 필자의 앞책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15) 이인상, 「祭亡室文」(『凌壺集』 225:541).

(16) 朴胤源, 「祭亡室文」(『近齋集』 250:524).

정공향(鄭公鄕)이나 순숙(荀淑)의 고양리(高陽里), 소식(蘇軾)의 소재(蕘堤), 구양수(歐陽脩)의 구정(歐亭) 등은 그 사람을 따라 이름을 붙인 것이니, 동산을 탄원이라 한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탄재라는 호는 누가 준 것인가? 강재(剛齋) 선생이 준 것이다. 탄재의 뜻은 무엇인가? 『논어』에서 이른 대로 군자는 마음이 평탄하여 여유롭다는 뜻이다. 탄원을 한번 보자면, 그 땅은 척박하고 그 나무는 구불구불하며 그 집은 좁다. 그 가운데 우뚝하니 높다란 것은 부앙대(俯仰臺)와 중화단(中和壇)이고, 가파르게 치솟은 것은 기돈(起墩)과 문부(文阜)이다. 훈패경(薰珮徑)이 으슥하게 굽어 있고 소곤계(小崑溪)는 비딱하게 꺾여 있다. 그러니 동산을 평탄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인이 탄탄(坦坦)의 마음으로 탄탄의 도를 행하니, 황량하고 궁벽한 골짜기도 험악하지 않고 나지막한 사립문도 좁아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곧은 채찍으로 말을 몰아 인의(仁義)의 경지로 평안하게 나아가면, 척박한 땅과 구불구불한 나무, 좁은 집, 그리고 우뚝하고 가파른 곳, 으슥하거나 비딱한 땅도 어느 하나 평탄한 길이 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바위를 쌓아 산을 만들고 개울물을 끌어들여 못을 만들며, 꽃을 가꾸고 과일을 접붙이며, 채소를 심고 약초밭을 김매면 한가함 속의 경제(經濟)가 될 것이다. 거문고와 술과 책 사이에서 날마다 시골 벗과 어울려 소요하면서 안분자족하리니, 이 모든 것으로 공경대부를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그들의 작록(爵祿)도 경시하게 될 것이다. 이는 탄원의 주인이 누리는 진정한 즐거움이다.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것을 입고서 넓은 길을 걸어 다니면서 멋대로 노는 저들이야말로 한 번 풍파를 만나면 거꾸러져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니, 어찌 동산 가운데서 한가하게 살아가면서 탄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만 같겠는가? 『주역』에서 "탄탄대로를 걷는다"라 하였고 또 "은자의 동산을 꾸민다."고 하였다. 탄원 주인은 이 길을 걸으소서.

이 글을 보면 탄원은 약봉 기슭 척박하고 가파른 땅에 지은 조그만 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일당은 이러한 황량하고 궁벽진 땅을 탄탄(坦坦)의 공간으로 바꾸었다. 한가하게 세월을 보내는 부앙대, 중용의 도리를 생각하는 중화단, 흥기의 돈대 기돈, 문장의 언덕 문부, 아름다운 꽃향기가 풍기고 고운 바람 소리가 울리는 훈패경, 곤륜산 옥소리가 나는 개울 소곤계 등 명명을 통하여 운치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으니, 『주역』에서 이른 "은자의 동산을 꾸민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또 윤광연이 『논어』에서 이른 "군자탄탕탕(君子坦蕩蕩)"의 마음으로 탄탄의 도를 행할 것을 당부하여 마지막 "탄탄대로를 걷는다"는 말과 호응을 이루게

하였다. 문장의 솜씨가 범상치 않음을 이러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17] 정일당은 이처럼 뛰어난 글쓰기 능력을 발휘하여 남편의 뜻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 정일당이 남편을 대신하여 「탄원의 노래 세 편(坦園三章)」을 지은 것 역시 그 의도는 다르지 않다.

이와 함께 정일당은 남편의 이름으로 여러 편의 시와 산문을 지었다. 정일당은 영의정에서 치사한 김재찬(金載瓚)과 같은 고관대작이 선물을 보낸 데 대해 감사의 뜻으로 지은 시를 대신 지었고, 또 스승이 지은 시에 차운한 작품도 정일당이 대신 지었다.[18] 다른 사람들의 회갑이나 잔치에서 요청한 작품 역시 정일당이 대신 지은 것이 많으며, 동년의 벗들에게 보내는 작품도 정일당이 지어 주었다. 그뿐 아니라 『정일당유고』에 실려 있는 대다수의 간찰 역시 남편을 대신하여 쓴 것이다. 윤광중이 종중이나 친척에게 보내는 편지는 물론이요, 처가인 정일당 집안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도 정일당이 대신 썼다. 더욱이 남편의 스승인 송치규나 김횡(金鐄)과 주고받은 편지조차 정일당이 대신 쓴 것이 많은데 예학(禮學)과 이학(理學)에 이르는 복잡한 내용이다. 윤광연의 선영 조성에 대한 기문이나 벗이 청탁한 기문조차 정일당이 썼다.

「행장」에 따르면 정일당은 남편에게 글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 미처 지어주지 못할 경우에 대신 지으면서 "이는 부인이 하는 일이 아닌데 혹 남이 보고 알까 두렵습니다."라 하였으니, 남편을 대신하여 글을 짓는 것이 자주 있었던 듯하다. 조선시대 남편의 글을 수정해주는 예는 제법 있었다. 유희춘은 자신이 지은 글을 아내 송덕봉에게 보여주고 수정을 받기도 하였으며, 책을 저술할 때에도 자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아예 남편을 대신하여 글을 짓는 일은 흔하지 않았다. 정일당이 남편을 대신하여 글을 자주 지은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지만 정일당이 남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단서가 보인다.

> 판서 윤광보(尹光普)가 공이 보여준 「시비음(是非吟)〉은 정말 감탄스러운 것입니다. (중략) 다만 시 가운데 지적한 시비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즉시 화답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우선 재주가 없다고 사양하심이 어떨지요.(590면)

(17) 19세기의 문인 申緯는 이 글의 전문을 문집에 직접 인용하고 이어 칭송의 시를 붙인 바 있다. "난초 핀 물에는 여린 패옥 소리 들릴 듯한데, 옥 같은 개울은 작은 곤륜산 개울 옮겨놓은 듯(蘭澤微聞薰佩徑, 玉流方折小崑溪)"이라 하여 훈패경과 소곤계의 운치를 높게 평가하였고 이어 "문장을 펼친 솜씨 班昭에 짝하는데 잠언은 邵缺의 아내보다 나았다네.(文章展也班昭匹, 箴警賢於邵缺妻)"라 하여 뛰어난 문장력과 내조의 공을 칭송하였다.(「題尹坦齋光演哲配姜氏坦園記後」, 『警修堂全藁』 291:518).

(18) 「謹次丈席涓灘詩韻」에서 몇몇 번역자들이 涓灘을 호로 보았지만 잘못이다. 스승 송치규가 갑신년(1824) 혹은 병신년(1836)에 지은 시에 차운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광보가 시를 보내고 윤광연에게 답시를 요구하였는데, 윤광보의 시에서 지칭하고 있는 시비 자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바로 답하지 말라고 충고하였지만, 그 이면을 보면 정일당이 답시를 짓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다. 좀 더 유추해보면 윤광연이 글을 짓고자 할 때 부부가 함께 의논하였고, 이때 정일당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듯하다. 물론 윤광연의 이름으로 지은 글 자체도 정일당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윤광연이 아내의 문집을 간행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지은 글 중에서 정일당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은 아예 정일당의 대작으로 표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19] 부부가 나란히 힘을 합하여 글을 짓고 남편은 아내의 정성이 깃든 글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지 않고 당당하게 대작(代作)임을 밝혀 정일당의 글이 다채롭게 후세에 전해질 수 있게 하였다. 정일당의 내조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었을 것이다.

4. 맺음말

정일당은 윤광연과 결혼하여 살면서 시어머니 지일당을 받들어 생계를 꾸리고 지일당과 시를 주고받으면 함께 강학을 하였다. 이와 함께 정일당은 윤광연과 서당을 열고 학생을 가르쳤다. 부부유별의 윤리를 따라 안채와 사랑채에 따로 거주하면서도 쪽지 편지나 시를 통하여 함께 학문을 익혔다. 그 과정에서 학문적인 토론을 자주하여 서로의 학우가 되었다. 그리고 정일당은 남편의 사소한 일상을 두고 권려와 책선의 내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때로는 남편을 위하여 시문을 짓는 일도 맡았다. 이렇게 하여 이들 부부는 나란히 단정한 학자의 삶을 살았다. 이러한 점에서 정일당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바람직한 여성의 표상이라 할 만하다.



그림10. 강정일당의 사당(경기도 성남시)



그림11. 강정일당 묘(성남시 향토유적 1호)

(19) 김남이, 「정일당의 代夫子作에 대한 고찰 : 조선 후기 사족 여성의 글쓰기와 학문적 토양에 관한 보고로서」(『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집, 2005)에 代作에 대해 자세히 따진 바 있다.

김 현 Kim hyeon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예술학부 교수
hyeon@aks.ac.kr

여성 철학자 임윤지당

06

우리의 역사 속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수많은 인물들에 대해, 후세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행적에 어울리는 호칭을 부여하곤 한다. 조선왕조의 군왕가운데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내었다고 평가받는 세종은 '대왕'이며 16세기 말 일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이순신은 '장군'이고, 선진 문물의 적극적인 수용을 주장한 박지원, 홍대용은 '실학자'이다. 이제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윤지당(允摯堂) 임씨(任氏)에게 그러한 류의 타이틀을 붙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리학자', 좀 더 넓은 의미의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철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철학자라고 불릴 수 있는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지만, 여성으로서 그 범주에 들 수 있는 사람은 극소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학문적 성취를 이룬 이가 윤지당 임씨이다.

여성이면서 예외적으로 학술적 논설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윤지당은 주목받을 만하다. 이 자체가 매우 드믄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윤지당이 한 학문이 과연 후세의 주목을 받을 만큼 의미 있는 것인지, 그냥 글 좀 쓸 줄 알았고, 몇 편 안되는 그의 글을 유족들이 책으로 역어 주어서 운 좋게 후세에 알려진 여인 정도가 아닌지 판단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윤지당의 학설을 세세하게 살펴야 할 뿐 아니라, 그 이전의 학문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성리학 전공자가 아닌 독자들에게는 이 작업이 다소 지루하고 골치 아픈 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윤지당의 철학이 왜 특별한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여성 철학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훌륭한 철학자'로서 임윤지당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1. 윤지당의 생애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은 노론계 기호학파 사대부 집안에서 부친 노은(老隱) 임적(任適, 1685-1728)과 어머니 파평 윤씨의 딸로 태어났다. 조선 후기의 이름 있는 성리학자였던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 1711-1788)와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 1727-1796)는 윤지당의 친형제들이다.

윤지당의 부친 임적(任適)은 도암(陶庵) 이재(李縡, 1680-1746), 수암(遂庵) 권상하 (權尙夏, 1641-1721)등과 교유한 학인이었으나 윤지당이 8살 때에 돌아갔으니, 윤지당이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배울 기회는 없었다. 그러나 윤지당의 형제들은 부친이 안 계신 가운데에도 가정의 의례를 엄격히 하여 가풍을 보존하며, 형이 아우의 학문을 훈도하는 등 학문 연구에도 진력하였는데, 이때 윤지당은 둘째 오빠인 임성주의 각별한 총애를 받으며 그에게서 경사(經史)의 지식을 익혔다. 이때의 윤지당의 모습을 동생 임정주는 이렇게 회고하였다.

> 유인(孺人)[1]은 단정하고 한결같으시며, 성실하고 장엄하셨다. 어릴 때부터 빠른 말이나 황급한 거동이 없었고, 천성이 총명하고 영리하셨다. 형제들을 따라 경전과 역사 공부하는 것을 옆에서 배웠고, 때때로 토론을 제기하였는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말이 많았다. 둘째 형님(임성주)께서 기특히 여기시고 『효경』, 『열녀전』, 『소학』, 『사서(四書)』 등의 책을 가르치셨는데, 누님이 매우 기뻐하셨다. 낮에는 종일토록 여자의 일을 다 하고 밤중이 되면 소리를 낮추어 책을 읽으셨다. 뜻이 목소리를 따르는 듯하고, 정신이 책장을 뚫을 듯하셨다. 그러나 학식을 깊이 감추어 비운 듯이 하였기 때문에 친척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2]

윤지당은 19세에 원주 지방의 신씨 집안에 출가하였으나 8년 만에 남편이 죽어 젊은 나이에 홀몸이 되었다. 그의 남편 신광유(申光裕)는 큰아버지 댁의 양자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는

(1) 유인(孺人): 9품 문무관의 아내에 대한 외명부 품계. 여기서는 벼슬하지 않은 선비의 부인에 대한 존칭. 윤지당을 말함.

(2) 任靖周, 「姊氏允摯堂遺事」, 『雲湖集』 권6 遺事; 『允摯堂遺稿』 下. (이영춘, 『임윤지당』, 서울:혜안, 1998. p.277~278)

생가와 양가의 두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고, 또 그 자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친동생 신광우(申光祐)의 자식을 양자로 들였다. 이로 인해 윤지당은 남은 생애를 시동생 집에서 보냈는데,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그의 지위에 어긋남이 없는 품행을 보여 가족들의 존경을 받았다. 시동생 신광우는 노년의 윤지당의 모습을 이렇게 전한다.

> 유인께서는 부인의 덕성과 부인의 용모와 부인의 일에 있어서 하나도 완비되지 않으신 것이 없었다. 성품은 장중하고 단정하였으며, 말씀하시거나 웃으실 때도 경망한 적이 없으셨다. .... 시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유인도 또한 늙었을 때였다. 간혹 집안일을 하다가 여가가 나시면, 밤이 깊은 후에 보자기에 싸 두었던 경전을 펴놓고 낮은 목소리로 읽으셨다. 그 때 창밖으로 등불이 형형하게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후에야 비로소 유인의 학문에 남모르는 공부가 있는 것을 알았다. 우리 형제들이 매번 다짐하기를, "부인으로서도 저와 같이 부지런히 공부하시는데, 우리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겠는가!"하였다.(3)

윤지당은 1793(정조 17)년에 원주의 시가에서 72세의 수를 마치셨다.

2. 윤지당의 저술 –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그림1. 『윤지당유고』

우리가 오늘날 윤지당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철학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윤지당의 삶과 생각을 기록한 책이 만들어져서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지당이 남긴 글들은 그의 사후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라는 제호로 친동생 임정주와 시동생 신광우에 의해 간행되었다.(4)

(3) 申光祐, 「允摯堂遺稿跋文」, 『允摯堂遺稿』 下. (이영춘, 같은 책. p.282~283)

(4) 한문으로 쓰인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는 역사학자 이영춘(李迎春,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역임)에 의해 1998년에 한글로 번역 출간되었다. (『임윤지당』, 서울:혜안. 1998.) 이 책은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의 원문과 번역문 뿐 아니라, 그의 생애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한 저자의 에세이 27편을 담고 있어서 윤지당의 학문 세계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 준다.

유고의 간행은 조선시대 여성에게서 매우 드물게 보는 일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평생 그녀를 존경해 왔던 양가 동생들의 특별한 기여가 있어서이지만, 그 이전에 윤지당 자신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윤지당은 그의 나이 65세 때에, 사후를 대비해 자신이 평생 써 온 글들을 책으로 펴낼 수 있는 준비를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비록 식견이 천박하고 문장이 엉성하여 후세에 남길 만한 투철한 말이나 오묘한 해석은 없지만, 내가 죽은 후에 장독이나 덮는 종이가 된다면 또한 비감한 일이 될 것이다."(5)라고 하였다. 겸손한 표현이지만 그 속에는 자기 글에 대한 애착과 긍지가 담겨 있다. 윤지당은 자기 글을 스스로 정서하고 편차를 정해 한 권의 책으로 편집하여 양자 재준(在俊)에게 맡기고, 조카에게 다시 한 부를 더 필사하게 해서 동생 임정주에게 보냈다. 임정주는 누님이 남긴 40편의 글 중에서 다시 30편을 추리고, 65세 이후의 저작 5편을 보태 이 책을 간행하였다.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에 실린 윤지당 본인의 글은 200자 원고지 150매 정도의 소략한 규모이다. 하지만 그 글들이 한결 같이 성리(性理)와 의리(義理)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가 품고 있던 철학적 세계의 깊이를 엿보기에는 충분하다. 또한 그의 글의 곳곳에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여겨지는 솔직함과 당돌함이 배어난다. 경전의 의미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모르겠다"고 했고, 자신 있는 자기 생각을 드러낼 때에는 선현이 남긴 말을 자기 식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림2. 국역『윤지당유고』

(5) 任允摯堂,「文章騰送溪上時短引」,『允摯堂遺稿』下. (이영춘, 같은 책. p.249)

3. 윤지당의 성리학

윤지당의 글 가운데 「이기심성설(利己心)」과 「사단칠정인심도심설(四端七情人心道心說)」이라는 두 편의 글에서 그의 정밀한 성리학 이론을 살필 수 있다. 비록 그 양이 많은 것은 아니나 본체론, 심성론 등 성리학적 이론 방면의 중요한 주제들은 빈틈없이 언급되어서, 그가 어떠한 세계관과 인성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한다. 이 글이 주는 실마리를 통해, 윤지당의 학문이 왜 특별한지, 그가 과연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떼고도 '철학자'의 타이틀을 얻기에 충분한 인물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한국인이면 누구나, '철학자'로서 우리나라 위대한 인물의 반열에 오른 두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것이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과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 이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할 뿐 아니라, 세종대왕, 이순신, 신사임당과 함께 우리나라의 화폐에 그 얼굴 모습이 그려질 정도로 '알려진' 위인들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대접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누구나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한다. 이들의 업적은 세종의 한글 창제나 이순신의 한산대첩처럼 눈에 보일 듯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퇴계와 율곡은 그들의 학문 활동을 통해 모든 인간이 '예의 · 염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고,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존재임을 밝혔다. 이들의 학설은 유교의 이상을 건국이념으로 삼았던 조선 왕조의 통치 체제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이론적 지주가 되었고, 그 가치관은 가난한 시골 마을의 풍속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면 이들과 같은 부류의 '철학자'로서 윤지당이 한 일은 무엇인가? 윤지당의 학문에는 퇴계 · 율곡의 철학이 조선 사회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모습이 담겨 있다.

어떤 이들은 나의 이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윤지당이 퇴 · 율보다 낫다는 말인가?" 학술의 넓이나 영향력의 크기로 말하자면 윤지당을 퇴 · 율에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퇴 · 율의 시대에서 윤지당의 시대까지는 약 200년의 시차가 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의 교조적인 종교 교리에 머무는 것이었다면 모를까, 자연과 인간의 참모습을 찾으려 하는 철학적 탐구의 노력이 거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200년 사이에 변화와 성숙이 없을 수 없다. 윤지당이 살았던 18세기의 조선 성리학은 16세기 퇴 · 율 시대의 성리학이 못 다한 숙제를 마무리 지으려 한 치열한 노력의 소산이다. 그리고 윤지당은 가장 간명하게 그 결실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다.

윤지당 철학의 특징과 의의를 찾기 위해 그의 성리설 중 대표적인 명제를 율곡 이이의 이론과 비교해 보겠다.

율곡(栗谷)	윤지당(允摯堂)
"기(氣)가 없으면 발현하게 할 수가 없고, 이(理)가 없으면 발현할 것이 없다."(6)	"이(理)가 없으면 발현할 것이 없고 심(心)이 없으면 발현하게 할 수가 없다."(7)

위에 인용한 윤지당의 글은 그 옆에 보인 율곡의 말을 빌어다 쓴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같지가 않다. 율곡이 기(氣)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윤지당은 심(心)이라는 글자로 바꾸었다. 기와 심은 이렇게 바꿔 써도 무방한 것인가?

성리학 이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윤지당의 이 말은 상당히 불편하게 여겨질 것이다. 주자 성리학의 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율곡의 명제는 수정이나 보충의 여지가 없는 정확한 말이다. 이와 상대하여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기이지 심이 아니다. 심은 이와 기가 합쳐진 상태의 2차적 존재이다. 그런데 윤지당은 무슨 생각으로 기 대신 심을 써넣은 것일까? 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심을 둔 것은 이기이원론의 기본 구도에 익숙지 않은 아마추어 성리학자의 착오가 아니다. 이 작은 변이 속에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조선 성리학이 붙들고 놓지 못했던 문제의식이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윤지당의 이 과감한 언명은 그 문제에 대한 자신 있는 해답이다.

심으로 하여금 기를 대신하게 한 윤지당의 이론이 어떠한 문맥 속에 있는 것인지, 그것의 의의는 과연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부득이 성리학의 일반론과 그의 선배들의 학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인간의 감정의 발현 문제까지를 꿰뚫는 성리학의 대표적인 이론은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이다. 성리학에서 이(理)는 자연 만물의 존재 원리라고 이야기되지만 그것은 실은 인간이 스스로 어떤 존재이고 싶은 이상적 열망을 객관 세계에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내면에 궁극적으로 구현하고 싶은 완성된 인격인 것이다. 성리학자들은 그 이를 우주적인 원리로 투영함으로써 기독교의 신과도 같은 지존의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이가 모든 사물 속에 내재하여 그 사물의 본성을 이룬다고 하였다. 이 이론은 인간 개개인이 우주의 근본 원리에 짝하는 완전한 인격을 가져야 하는 당위성과 그러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었다.

(6) "非氣則不能發, 非理則無所發." (李珥,「答成浩原附問書 壬申」,『栗谷全書』권10 書2.)

(7) "非理無所發, 非心不能發." (任允摯堂,「人心道心四端七情說」,『允摯堂遺稿』上, 說.)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 인간은 때때로 이기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그 고결한 본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을 성리학자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문제를 성리학자들은 기(氣)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기는 이의 이상을 현실 속의 존재로 형상화하는 데 필요한 질료와 에너지의 공급원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수육(incarnation)의 논리를 빌어 설명한다면, 신으로부터 내려온 예수의 영(靈)은 이가 될 것이고, 마리아의 몸에서 제공된 뼈와 살은 기가 될 것이다. 기독교에서 영(靈)과 육(肉)의 결합으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신이 탄생했다고 하듯이, 성리학에서는 이(理)와 기(氣)의 결합으로 구체적인 자기 모습을 가진 자연 만물이 생성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기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이와는 달리 유한하고 불완전하며 무수한 차별성을 갖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기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자연만물은 형태와 성질이 다르며, 비교적 순수한 기를 얻어 만물의 영장이 된 인간들도 그 안에서 덕성의 차이를 갖게 된다고 한다. 인간은 완전한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의 차별성으로 인해 현실적인 우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리학적 인간관의 기본 전제이다. 하지만 그 이론은 이 단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순수한 본성을 제약하는 불순한 기가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교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 사회가 예교(禮敎)로 이끌어져야 하는 이유가 그 점에서 찾아지게 되는 것이다.

성리학의 이러한 이론은 유교 경전에 대한 소양을 바탕으로 예교의 훈련을 쌓은 양반 사대부들이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갖는 것을 성공적으로 합리화하였다. 양반 사족(士族)이 행정 실무를 담당한 아전 서리들이나 생산직에 종사한 상민 노비들보다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점할 수 있었던 명분은 학문 연마와 심성 수양을 통해 보편적 이상인 이(理)의 본연에 좀 더 접근한 인격을 함양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기를 확연하게 구분하는 주자 성리학 본래의 이원론적 사고는 신분간의 차별성과 상명하복(上命下服)의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합리화시킴으로서 그 사회의 신분질서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율곡(栗谷) 이이(李珥)와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그와 같은 성리학 이론을 조선 사회의 지도 이념으로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들이다.

그런데 후기로 들어오면서 사족(士族) 학자들의 성리학 이론, 특히 조선 후기 성리학의 주류를 형성한 서울 지역의 낙론계(洛論系) 기호학파(畿湖學派) 성리설 속에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엄정했던 이와 기의 구별이 모호해지면서 그 두 가지가 일체시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의 상대자인 기는 본래부터 양면성을 갖는 것이었다. 기는 이의 실현을 돕는 보조자임과

동시에 이의 이상을 가로막는 방해자라는 것이다. 조선 후기 성리학에서는 기의 속성 중 후자보다는 전자의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기는 본래부터 순수하여 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임이 강조된 것이다. 이러한 이론의 변화는 '인간 개개인에게서나 현실 사회에서 이(理)의 이상을 이룩하는 것이 그렇게 지난한 일이 아니며, 인간 누구나가 자발적인 의지로서 도덕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한다.

18세기 기호학파 성리학에서 기에 대한 평가가 전기 이론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것으로 돌아선 것이 사실이지만, 기의 본래적 속성이었던 다양한 차별성이나 인간의 생리적 욕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등이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도 살펴야 한다. 오직 그 기가 이의 순수성을 실현하는 능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강조한 것이다. 18세기 조선 성리학에서 나타난 이론 변화, 즉 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인간 마음[心]이 도덕의 원리뿐 아니라 그것의 실천 능력도 완전하게 갖추고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이상적인 심(心)의 모습을 기(氣)에 투영한 것이다.

18세기의 조선 성리학계에서 기의 차별성보다는 그 본래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기로 인해 구체화된 인간의 마음[心]이 그 속에 품고 있는 원리[理]와 다름없이 순수하다고 하는 이론을 가장 분명하게 주장한 학자가 바로 윤지당의 친오빠 녹문 임성주였다. 녹문은 일면 이보다 기를 앞세우는 듯한 논설을 남김으로써 후대의 조선 성리학 연구자들로부터 유기론자(唯氣論者)로 지목되기도 하였지만, 그의 이론의 실상은 역동적인 실천 능력을 가진 심(心)이 그 자체로 순수한 도덕적 주재력으로 보려는 의도에서 기(氣)의 순수성을 주장한 것이었다. 녹문이 생각한 자연만물의 근원 담일청허지기(湛一淸虛之氣)는 인간의 순수한 마음(심)을 자연의 원질이자 원리인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그가 생각한 심은 순수한 이와 부제한 기가 합쳐진 2차적 존재가 아니라 이와 기를 구별할 필요가 없이 순수하면서 역동적인 하나의 실체였다.

녹문은 1원적인 심을 그의 철학의 중심에 두면서도, 이와 기를 일차적인 존재의 지위에 두고 그것으로 심을 설명하는 이기 이원론적 사고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래서 사실상 '심'을 이야기하면서도 종종 '기'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윤지당의 철학은 녹문의 이론을 온전하게 계승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녹문이 기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을 주저 없이 심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어 버렸다. 앞에서 인용했던 글에서 윤지당이 기(氣) 자를 심(心) 자로 바꿀 수 있었던 배경은 이런 것이다. 다시 윤지당의 글로 돌아가 보자.

> 성(性)이라고 하는 것은 심(心)이 갖추고 있는 이(理)이며, 심이라는 것은 성이 깃들어 있는 그릇이니, 이는 둘이면서 하나이다. 그러므로 텅 비고 신묘하며 그 변화를 헤아릴 수 없는 것[虛靈神明. 變化不側]은 심(心)이며, 텅 비고 신묘하며 그 변화를 헤아릴 수 없게 하는 원리는 이(理)이다. 이에는 작위 능력이 없지만 심에는 작위 능력이 있고, 이에는 드러나는 모습이 없지만 심에는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 이가 없으면 발현할 것이 없고 심이 없으면 발현하게 할 수가 없다. 어찌 이기(理氣)가 서로 혼융한 마당에 성이 홀로 발현하고 심이 홀로 발현하는 이치가 있겠는가?(8)

이론은 단순하게 만들면서 주장하는 바는 더 분명하게 하는 것. 윤지당의 학문은 이 점에서 탁월한 면모를 보인다. 위에 인용된 윤지당의 말은 율곡에서부터 녹문에 이르기까지 기호학파 성리학이 발전시켜 온 심성론의 논지를 압축시켜 놓은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율곡은 작위 능력은 기의 전유물임을 근거로 하여 인간의 모든 심리 현상은 기의 발현임을 주장하였지만, 그 시대에 율곡이 생각한 기는 순일한 것이기보다는 청탁부제(淸濁不齊)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에 의해 발현되는 인간의 감정은 선한 방향뿐 아니라 악한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짙은 것이었다. 율곡의 사칠론이 퇴계의 호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윤리적인 면에서 약점을 지니는 이유는 바로 이점에 있었다. 율곡을 계승한 기호학파 성리학자 중에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1682-1751)과 같이 심에 선악의 양면성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는 섣불리 기를 심으로 바꾸게 되면 남당의 주장처럼 심의 선악혼효성(善惡混淆性)을 주장하는 얘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윤지당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인간이 품수 받은 정통한 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탁부제의 혐의를 두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기는 혼융무간한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심기는 성을 이루는 이와 비교해 볼 때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순수한 것이다. 윤지당이 율곡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를 '심'으로 바꾸게 된 배경에는 기의 작위 능력을 곧바로 심의 도덕적 실천 능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지당은 "어찌 이기가 서로 혼융한 마당에 성이 홀로 발현하고 심이 홀로 발현하는 이치가 있겠는가?"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퇴계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반대하는

(8) 任允摯堂, 「人心道心四端七情說」, 『允摯堂遺稿』上, 說.

뜻에서 한 말이 아니다. 성과 하나가 된 심은 충분히 도덕성을 발현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에서 나온 말인 것이다.

4. 윤지당의 경학(經學) : 「중용경의(中庸經義)」

경학(經學)이라고 하는 것은 사서(四書) 오경(五經) 등 유교 경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유학자들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들의 내용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했는가는 그의 학문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모든 유학자들의 학문 이력 속에는 경전을 읽고 해석하는 데 바친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의 업적 속에는 많건 적건 경전 연구의 흔적을 보여 주는 글들이 포함되어 있다.

윤지당 역시 그의 경학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글을 그의 문집 속에 남겼다. 「대학경의(大學經義)」와 「중용경의(中庸經義)」 두 편의 글이다. 이 가운데 「대학경의」는 불과 6조의 짤막한 저술인데 반해 「중용경의」는 그의 저술 가운데 본격적인 성리학 논문인 「이기심성설(理氣心性說)」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중용』의 경문에 단편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저술된 것이다.

「중용경의」는 윤지당의 나이 65세 때에 정리된 글이니 그의 만년의 저작인 셈이다. 그러나 자신의 후기(後記)에도 기술하였듯이 그는 젊었을 때부터 『중용(中庸)』을 읽으면서 경문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주관을 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윤지당은 오빠 임성주 및 동생 임정주(任靖周, 雲湖 1727-1796)와 서간을 주고받으면서 전통적인 해석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나 자신의 독창적인 의견에 대해 질정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내용을 가지고 경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심화시켜 왔다. 이 점에서도 윤지당의 「중용경의」는 초학자의 학습 노트 수준의 기록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의 연구와 사색에 의해 만들어진 심도 있는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윤지당이 오빠 녹문과의 서신에서 주고받은 문답만 보아도 그가 경문의 모든 구절을 깊게 분석하였으며 심지어는 주자의 해석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고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태도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9]

(9) 任聖周, 「答姊申氏婦」, 『鹿門集』권10 書

윤지당의 「중용경의」속에는 그 자신이 깊은 통찰을 통해 얻은 도체에 대한 자각과 그 도체를 체현하여 성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수양의 공효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다. 윤지당은 그가 공부한 『중용』의 총체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이 『중용』 한 책은 모두 "도는 가히 떠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처음에는 천하의 대본(大本)을 말하였고 중간에는 그것을 만 가지 일로 흩어 말하였고, 끝에는 다시 합쳐서 대본을 만들었다. "홀로 있을 때 삼간다"는 한 절목은 또한 중간 만사의 핵심이 된다. 『중용』 한 편의 서두와 결말은 의리가 정밀하고 깊을 뿐만 아니라, 글을 지어 뜻을 담은 것이 또한 극히 미묘하다. 참으로 성인의 말씀이다.
>
> 중용의 도는 '진실하여 망령되지 않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책의 요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성실로써 근본을 삼아 독실하고 공손한 데로 순치시키고, 천하가 태평하게 되는 성대한 목적을 이루려는 데 있다. 이것은 성인의 지극히 성실한 덕이 자연히 응한 것이고, 성스러운 신(神)의 조화가 극도로 구현된 것이다.[10]

윤지당은 『중용』의 모든 내용이 총체적으로 "도에서 떠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중용』이라는 책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지당 자신이 『중용』을 통해 자신이 어느 한 순간도 도에서 떠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기도 하다.

윤지당은 "하늘이 명령한 것이 성이고, 그 성을 따르는 것이 도이며, 그 도를 닦는 것이 가르침"[11]이라고 한 『중용』 제1장 경문의 해석에서 "도를 닦는 수양은 바로 본성의 자연스러움을 좇는 것"임을 강조하고[12] 이어서 "천명(天命)에서 교(敎)에 이르기까지 더하고 뺄 것이 없다"고 하는 정자(程子)의 말을 찬사와 더불어 인용하였다.[13] 천리(天理)-인성(人性)-수양(修養)이 간단없이 이어지는 한 가지 흐름인 것에 대한 그의 자각을 언표한 것이다.

윤지당은 『중용』 1장에 나오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不睹 · 不聞)과 '은밀하고

(10) 任允摯堂, 「中庸」, 『允摯堂遺稿』 下, 經義. (이영춘, 같은 책, p.271~272).

(11)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中庸』, 제1장)

(12) "所謂修者, 乃循此性之固有, 因其道之所宜, 而品節其準則也; 非以私智, 强爲法制, 而有所作爲於其間也." (任允摯堂, 「中庸」 1章, 『允摯堂遺稿』 下, 經義)

(13) "程子曰 : '自天命至於敎, 我無加損焉.' 斯言信矣!" (같은 글.)

미세한 것'(隱 · 微)에 대해서도, 이것을 인간에게 품부된 도체(道體)가 마음속의 생각으로 발현하는 과정을 말한 것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곧 인간이 도에서부터 떠날 수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였다. '부도(不睹)'와 '불문(不聞)'은 자기 자신이 아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단계 즉, 하늘에서 품부된 본성이 심지사려로 발출하기 이전인 미발(未發)의 상태이고, '은(隱)'과 '미(微)'는 자신은 지각할 수 있으나 외부로 표출되지는 않는 이발(已發)의 초기 단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윤지당은 홀로 있을 때 삼가는 신독(愼獨)의 수양을 전형적인 성리학의 수양법인 존양(存養) 성찰(省察)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미발의 때에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본성을 보존하고, 이발의 때에 그것이 조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살피는 존양 · 성찰의 수양법은 성리학의 대표적 경(敬) 공부의 방법이지만, 윤지당이 계신공구(戒愼恐懼) 및 신독(愼獨)의 공부를 이처럼 곧바로 존양 성찰에 대입한 것은 그가 내 마음 속의 도체를 보존하는 것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윤지당의 『중용』 해석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주안점은 '인간은 누구나 노력에 의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다. 자신의 성품이 요(堯) · 순(舜)의 성품과 같다는 것을 알고 힘써 실천하면 그 성과는 태어나면서부터 천리를 알고 있는 성인과 같아질 수 있다고 한 것이다.(14) 그는 『중용』 27장의 "지극한 덕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지극한 도가 모이지 않는다"(15)는 말을 지목하면서 "모인다[凝]는 말에 가장 묘미가 있다"고 하였다.(16) 모인다는 것은 작은 조각들이 여기저기 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엉겨서 점점 더 크고 단단한 덩어리를 이룬다는 것이다. 윤지당이 이 단어에 의미를 둔 것은 바로 배움을 통해 점점 더 완성된 경지로 커 가는 뜻을 새겼기 때문이다. 함양(涵養)을 통해 마음의 본 모습이 바로 서서 사욕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치지(致知)를 통해 이치를 밝혀 어리석은 판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노력을 계속하면 도체의 단서들이 점점 더 모여 엉겨서 결국에는 깨뜨리고자 하여도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함에 이르게 된다. 윤지당은 "순(舜)은 어떠한 사람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성인의 경지에 이를 것을 기약하였다.(17)

윤지당의 「중용경의」는 성리학적인 세계관에 입각점을 둔 가운데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철저히 씹고 소화하여 수미일관(首尾一貫)한 의미맥락을 자기 스스로의 이해와 판단으로

(14) 任允摯堂, 「中庸」 20章, 『允摯堂遺稿』 下, 經義.

(15) "苟不至德, 至道不凝焉." (『中庸』, 제27장)

(16) 任允摯堂, 「中庸」 27章, 『允摯堂遺稿』 下, 經義.

(17) 같은 글.

재구성해 낸 창의적인 저술이다. 이론 면에서 어느 학자의『중용』주석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도체를 자각하고 체인한 진정한 학인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윤지당이 자각한 도체는 추상적 초월적 원리가 아니라 우주에서는 자연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인간 내면에서는 윤리적인 삶을 이끌어 가는 역동적인 실체였다. 그는『중용』에서 제시된 자연과 인간의 최고 덕목인 성(誠)에 대해, "하늘에서는 실리(實理)요, 인간에게서는 실심(實心)"이라고 해석하였다.(18) 전통적인 성리학 이론을 따르자면 하늘의 이(理)는 인간의 성(性)에 대응하는 것이며, 이때의 이(理)와 성(性)은 작위(作爲)의 능력, 즉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윤지당은 성(誠)을 이(理)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로 인간의 심(心)에 대응시켰다. 윤지당이 "우주에서는 만물을 낳고 생동케 하는 담일(湛一)한 신명(神明)이며, 인간에서는 일신(一身)을 주재하는 허령(虛靈)한 정신(精神)"이라고 이해한(19) 심(心)은 이(理)와 기(氣)의 합일체로서 이(理)의 윤리성과 기(氣)의 역동성을 함께 보유하는 것이다. 도체가 이미 역동적 실체라면 그것을 따르는 노력은 억지로 힘들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그것에 내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체와 합일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천하 만인에게 공유된 길[達道]이다. 윤지당이 중용의 도를 한 순간도 떠날 수 없는 것, 누구나 그 길을 가 완성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하게 된 배경에는 도체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20)



그림3. 임윤지당 연구 학술세미나 자료
원주시, 임윤지당의 생애와 사상 / 문화관광부, 역사속 여성인물 다시보기

(18) 任允摯堂,「中庸」25章,『允摯堂遺稿』下, 經義.

(19) 任允摯堂,「人心道心四端七情說」,『允摯堂遺稿』上, 說.

(20) 김현,「임윤지당의 경학사상」,『임윤지당의 생애와 사상』, 원주:원주문화원, 2002, p.240.

5. 여성관

도덕 원리에 대한 투철한 자각과 수양의 공효에 대한 확신 속에서 윤지당은 성인을 닮고자 하는 자세를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관되게 추구하였다. 물론 윤지당의 일상생활은 그 시대 다른 사대부가 여인들에 비해 특별히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윤지당의 평상시 삶에 대해 "제사를 받들고 손님 접대하는 일로부터 친척 이웃 및 집안 식구들을 대하고 가사를 처리하는 데 이르기까지 그 때 그 때 본분을 다하여 마땅하게 하셨다"[21]고 한 동생 임정주의 술회는 그가 당시의 사대부가 여성들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던 준칙을 모범적으로 준행한 여인이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윤지당에게 자신의 그와 같은 삶의 의미는 여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추구해 할 도덕적인 삶을 여성의 직분에 맞는 모습으로 실천한다는 것이었다. 윤지당의 그러한 생활신조에 대해 임정주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윤지당은)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강건하고, 땅은 유순한 것은 각기 그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태사(太姒)와 문왕(文王)의 행적에 다름이 있는 것은 나뉨의 차이[分殊] 때문이며, 천성을 다함이 동일한 것은 그 이치가 하나[理一]이기 때문이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또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인으로 태어나서 태임(太任)과 태사(太姒)와 같이 되기를 기약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버리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다.[22]

윤지당은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되 그것은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원리가 현상으로 드러날 때 나타나는 양태의 차이라고 여겼다. 이른바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일분수(理一分殊)의 논리를 차용한 것이다. 이(理)는 보편적인 것으로 누구에게 있어서나 동일하다[理一]. 그것이 타재한 현상적 지반에 따라 드러내는 모습이 다를지라도[分殊], 그 다름이 보편적 원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리학은 현상 세계의 차별성에만 집착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그것의 보편적 본원을 자각하여 분수의 세계가 그 원리에 다시 합치하도록

(21) 任靖周, 「遺事」, 『允摯堂遺稿』 附錄. (이영춘, 같은 책. p.280).

(22) 같은 글(이영춘, 같은 책. p.281~282 참조).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윤지당은 여성의 직분을 중시하되, 그 직분 자체를 궁극의 목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구별이 없는 궁극의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것을 지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졌던 윤지당에게 있어,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를 실천함으로써 하늘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어진 천성[仁]을 자신의 인격으로 완성시키는 일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상의 과제였다. 윤지당은 「극기복례위인설」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윤리적 책무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아!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 누구인들 어질지 않게 하셨겠는가마는 그 마음이 몸에 얽매이고 자포자기 하는 것을 편히 여기면서, "나는 기질이 불미하니 어찌 성현을 본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눈치를 살피고 주저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무례한 짓을 행하여 하품의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을 달게 여기며, 그러는 가운데 초목과 함께 썩어가는 것의 불쌍함과 금수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아! 이런 사람들은 가리우고 병든 것이 너무 심해 '어짊'에 대해 이야기 할 수조차 없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신 어찌해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아! 내가 비록 여인이기는 하지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에는 처음부터 남녀의 차이가 없는 것이니, 비록 안연이 배운 바를 따라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성인을 사모하는 뜻만큼은 매우 간절하다. 그런 까닭에 생각한 바를 여기에 기술하여 나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23]



그림4. 임윤지당 얼 선양 헌다례(원주시 주최)

(23) 任允摯堂, 「克己復禮爲仁說」, 『允摯堂遺稿』 上, 說.

6. 맺음말 : 윤지당 철학의 지성사적 배경

조선 후기의 성리학적 가치관의 동향에 관한 일반론에는 서로 상충하는 듯이 보이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그 하나는 조선의 신분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버팀대 역할을 해 오던 그 가치관이 두 차례의 전란을 겪은 조선 후기에는 점차 무너져 가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약화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이 보다 일반화되어 지배계층인 양반 사대부뿐 아니라 여성이나 하층민까지도 유교 윤리의 준행을 자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 전기에 전체 호구의 10% 미만에 불과하던 양반 호구 수가 후기에는 70%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고된 사실,[24] 양반가의 재산으로서 그들의 경제 운영 및 권위 유지의 필수 요소였던 노비들의 도망이 빈번히 발생한 사실 등은 유교적 사회 질서가 점차 와해되어 갔으며, 그 질서를 지탱해 주던 성리학적 가치관이 힘을 잃어 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또 한편, 유교 윤리의 준행자로서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양반 사대부가보다 하층민 사이에서 더욱 늘어갔다는 사실[25], 상민가의 아낙이 사대부가의 여인의 수절을 흉내 내고, 시골의 농부가 재상가의 제사 예법을 따르려 하는 등 예전에는 상민들에게 요구된 바 없었던 유교 윤리를 이 시대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행하고자 한 점은 유교적 가치관이 사회 일반으로 확대되어 간 사례이기도 하다.



그림5. 임윤지당 기념비(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24) 일본인 학자 시카다 히로시(四方博)의 대구 지방 호적 연구에 의하면, 17세기말(1690) 이 지방의 호구 조사에서 9.2%, 53.7%, 37.1%였던 양반 호(戶), 상민 호, 노비 호의 비율은 19세기 중반(1858)에 오면 70.3%, 28.2%, 1.5%의 비율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미야지마 히로시, 『양반』, 서울:강, 1996. p.254~261.)

(25) 박주, 「朋黨政治와 旌表政策의 强化」, 『朝鮮時代의 旌表政策』, 서울:일조각, 1990.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갈래의 경향은 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표리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교는 원래 남녀 상하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상명하복의 기강을 유지하는 통치술이었으며, 유교의 이러한 면이 조선의 신분 제도를 견고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유교는 그와 동시에 남녀 귀천의 구분 없이 누구나 인격의 완성을 통해 성인(聖人)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종교적 가르침을 제공하여 왔다. 두 차례의 전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변동 요인으로 계층적 사회 질서의 버팀대 역할을 해 오던 유교의 신분제적 질서는 후기로 갈수록 점차 문란해져 갔지만 윤리적인 면에서의 인간의 평등적 가치를 추구한 성리학적 도덕 가치관은 신분과 성(性, gender)의 차별을 넘어서서 남녀 상하 일반에게 확산되어간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사회의 지도 이념이었던 주자 성리학은 자연의 원리를 삶 가운데 체인하여 완성된 인격에 도달한다고 하는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모든 이에게 그 길을 열어 둔 보편적인 철학 사상이었지만, 신분과 성에 관해서는 그 사회적 역할의 구분을 엄격히 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 주자 성리학이 근본정신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배 계층 남성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후자의 특성에 기인한다. 조선 사회의 특권층이었던 사대부가 남성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반을 공고히 하는 성리학을 지속적으로 연마하여 그것을 그 사회 유일의 가치관으로 정립시켜 갔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회 전반에 도달한 성리학적 가치관의 영향력은 신분과 성의 구별을 엄격히 하는 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이면 누구나 완성된 인격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근본정신의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윤지당은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일원이었지만 그 시대의 정치나 학문의 주역으로는 초대될 수 없는 여성의 몸이었다. 그러나 성리학에서 말하는 도의 실체를 체인하고 그 실현을 자임한 그의 정신세계는 어느 남성 도학자보다도 투철하고 진실하였다. 이는 18세기 후반에 사회적으로 공유된 성리학적 가치관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개인적으로 탁월한 지적 능력의 소유자였으며, 임성주, 임정주와 같은 당대 최고 수준의 성리학자를 형제로 둔 '특별한 조건'이 윤지당의 뛰어난 학문을 가능케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윤지당의 학문적 성취의 배경을 오직 개인적 자질이나 가족 환경의 특수성에서만 찾을 수 있을까? 그의 성취는 도학의 정신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확산해 온 조선사회 지식인들의 노력의 성과가 신분의 경계와 함께 성(性, gender)의 벽을 넘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간 결실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안동장씨, 음식으로 도에 이르다 : 최초의 한글조리서 쓴 안동장씨 이야기

김 서 령 Kim seo-ryung
〈오래된 이야기 연구소〉 대표, 칼럼니스트
psyche325@hanmail.net

07



그림1. 한글 최초의 음식조리서인 [음식디미방] 표지엔 〈규곤시의방〉이라고 쓰여있다.

경당 선생의 따님

선조 31년(1598년), 동짓달 찬바람이 부는 맑은 날의 안동 춘파. 경당 장흥효선생의 여식으로 계향은 태어났다. 계향은 어머니가 시집온 지 십년이 넘어 얻은 첫 아이였다. 갓 태어난 계향은 그 아비를 닮아 눈매가 검고 또렷했다. 경당은 딸의 백일에 고결하고 빼어난 이가 되라는 의미로 '계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경당은 사서삼경은 물론 근사록과 홍범구주를 두루 섭렵한 조선 최고의 선비였다. 경당의 스승과 부친은 모두 임진년 왜인과의 난리통에 돌아가셨다. 흥효는 깊은 시름에 빠져 그 이후 6년 간 서안 앞에 앉지도 못하고 울분 속에 살았다. 흥효가 다시 마음을 잡고 책을 펼친 건 권씨부인의 태중에 아기가 들어섰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였다. 그랬기에 계향의 탄생은 안동장씨 가문의 경사였고 춘파 마을 전체의 기쁨이었다.

어린 계향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절로 아버지 어깨 너머로 책을 들여다봤다. 글씨 쓰는 아버지 곁에서 붓과 먹을 만지며 놀았고 문도들을 가르치는 아버지 음성과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시의 운율을 익혀갔다.

계향은 안뜰을 뛰어놀다가 간혹 부엌에 들곤 했다. 계향은 그의 어머니 권씨와 여종들이 부엌에서 닭을 잡거나 생선포를 뜨거나 나물을 삶는 것을 지켜봤다. 조왕신에게 곡식을 올리거나 술을 담을 항아리를 불에 달구거나 흰 사발들을 하나씩 마른행주질 하는 양을 신비롭게 바라보곤 했다. 부엌은 불과 칼이 있는 공간이었다. 생명이 잘려 나가고 그 잘려 나간 생명으로 다시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었다. 계향은 흥효가 고요하게 책을 읽고 좌선하는 모습과 어머니 안동권씨가 그릇을 닦는 모습이 겉모습은 다를지언정 근본은 결국 한 가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각했다. 계향은 부엌에서 느낀 생각을 조모(할머니) 권씨에게 자그만 입으로 앙증맞게 말했다.

"큰으매!(안동지방에서 조모를 부르는 호칭) 어머니가 부엌에서 기왓가루로 그릇을 닦으실 때와 아버지가 붓으로 글씨를 쓰실 때는 똑같은 냄새가 나요. 뭔 냄새냐 하면...시원한 수박풀 냄새예요."

조모 권씨는 자신이 아녀자로 평생 손님들을 수발하고 제사를 받들면서 몸으로 익혀왔던 것이 평생 책 읽고 글을 쓰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노년에 이르러서야 어렴풋이 각성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다섯 살 계향이 기특하게도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것이었다.

어린 계향은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다. 손녀는 안채에서 할머니가, 손자는 사랑채에서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이 당시의 교육법이었다. 할머니는 계향에게 신체 각 부위의 명칭을 가르치거나 '천자문'을 가르쳤다. 계향은 할머니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다. 섬세하고 정다운 조모의 가르침을 통해 계향은 안채에서 누대로 이어져온 지혜들을 배웠다.

계향은 글을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경당의 사랑에서 들리는 글 읽는 운율을 흉내 내는 것을 놀이 삼았다. 그 소리 중 계향이 가장 흥미를 느낀 것은 시詩였다. 의미는 몰랐으나 운율을 따라가다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저절로 깨우쳐졌고 그 흐름을 감각하다 보면 몸이 쑥쑥 커지는 듯했다. 몸 뿐 아니라 정신의 깊이와 너비가 아연 달라지는 것을 계향은 느꼈다. 그것은 다른 것을 압도하는 기쁨이었다.

다섯 살 무렵 계향은 아버지 흥효 곁에 앉아 창밖 빗소리를 듣다가 시를 하나 지어서 아버지 앞에서 암송했다. 흥효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소음	蕭蕭吟(소소음)
창 밖에 소소한 빗소리	窓外雨蕭蕭(창외우소소)
소소한 빗소리는 자연	蕭蕭聲自然(소소성자연)
내가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我聞自然聲(아문자연성)
내 마음 역시 자연	我心亦自然(아심역자연)


그림2. 안동장씨 영정

"너 시를 누구에게 배웠느냐?"
"사랑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부터 흥효는 계향을 사랑으로 불러 유생들 곁에 앉혀두었다. 여식을 사랑에 들여 글공부를 시키는 것은 어느 집에서도 없던 일이었다. 남들이 알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임을 모르지 않았다. 자식 사랑이라기보다 천하의 영재를 발견한 기쁨으로 흥효는 새앙머리를 땋아 붙이고 노랑저고리를 입은 채 입을 꼭 다문 계향을 이윽히 바라보곤 했다.

원회운세를 계산하다.

그날도 경당선생은 광풍정 한 구석에 계향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소자들 사이에 끼여 열심히 뭔가를 따라 읽고 있었다.
흥효는 저녁을 물리고는 계향을 사랑으로 불러냈다. 이제 겨우 열 살이었다. 권씨에게는 명심보감을 읽었는지 확인하려 한다 하였으나, 흥효는 기실 계향의 총기어린 눈동자를 보고 싶었다.
'계향아, 오늘 낮에는 광풍정에서 뭘 들었느냐?'
'예 원회운세를 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흥효는 계향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동그란 얼굴과 호를 그린 가즈런한 눈썹이 침착했으나 자그만 입술은 여태 아기태를 벗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흥효는 절로 웃음이 돌았다.
'그래 어디까지 알아 듣겠던고?'
계향은 손가락을 들어 수계(數計)를 시작하였다. 그것은 놀라운 광경이었다. 흥효는 저도 모르게 주먹에 힘을 주었다.

계향은 원회운세의 그 승제법(乘除法)과 선천후천 운회술을 아비 홍효에게 아는대로 요연하게 일러 고하였다. 이전에 따로 알려준 적도 없었는데 낮에 잠깐 들은 내용만으로 계향은 원회운세를 환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운회술을 사량할 때 자신이 막히던 부분까지 계향이 막힘없이 술술 뱉어내자 홍효는 되려 두려울 지경이었다. 그래서 탄복을 감추고 짐짓 혼을 내는 척 했다.

계향의 문재(文才)는 실로 놀라운 데가 있었다. 당시 천하명필로 이름을 날리던 청풍자 윤목선생, 그가 어느 봄날 춘파에 들렀다가 계향의 글씨를 본 후 탄복하여 자신의 바랑에서 붓을 꺼내 계향 앞에 놓고 간 적도 있었다.

계향은 어머니를 대신해 일찍 경당가의 안주인 노릇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몸이 약한 어머니 권씨가 심한 윤감에 걸렸기 때문이다. 윤감은 고열이 나는 돌림병이었다. 본집 식구야 종들을 모두 합쳐도 다섯뿐이었으나 원근에서 가르침을 받으러 몰려오는 유생들에 사흘이 멀다하고 찾아드는 경당선생의 벗들로 숟가락 놓을 식구 수가 스물을 넘기기 일쑤였다. 안주인은 식사와 간식 준비며 집안을 청소하거나 빨래를 하고 또 손님이 오가실 때마다 들려드릴 선물을 마련해야 했다. 인편에 보내온 정성에 감사하는 적바람(짧은 편지)도 써야했다.

안살림을 맡은 이후 계향은 눈코 뜰 새가 없어졌다. 계향의 나이는 이미 열여덟이었다. 혼인하기엔 늦은 나이였다. 처음에 계향은 붓을 더 이상 들 수 없다는 것이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눈앞에서 금방 먹어 치워 없어지고야 말 밥과 떡과 술을 빚는 일에 평생을 허덕거려야 한다. 그게 아녀자의 도리다. 내 앞에 주어진 삶은 그 외에 어떤 선택도 없다!"

하지만 어머니 대신 부엌에 들어간 지 두 해 째가 되어 부엌일이 제법 손에 붙자 계향은 음식재료를 다루는 것이 그저 노동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것은 우주와 인간의 합일이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은 자연이 준 생명을 두 손으로 겸허히 받아 인간의 생명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라는 각성이었다.

계향이 허망하다 생각한 것들이 실은 사람의 목숨을 이어가는 근본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걸 알고 나자 계향은 그동안 자신이 쓴 글씨와 그림을 모두 없애기로 결심한다. 물론 쉽지 않은 결심이었다.

계향은 그동안 자신이 쓴 글씨와 그림을 안마당 한구석에 전부 모았다. 계향은 잠깐 그걸 꺼내봤지만 다시 무더기들 속으로 던져버렸다. 결별이었다. 계향은 불붙은 부엌 아궁이에 자신이 칭찬받았던 글씨와 그림이 담긴 화선지 더미들을 밀어 넣었다. 그것은 계향의 효였다. 그녀에게 효(孝)란 멀리 있는 도(道)보다 훨씬 무겁고 큰 것이었다. 한지가 불을 안고 타들어가는 동안 계향의 눈엔 어쩔 수 없이 눈물이 가득 고였다.

충효당에 첫 발을 들여놓다

사랑에 오는 경당의 문도 중에서 영해(寧海) 나라골(현 영덕군 청수면 인량리)의 이시명이란 선비가 있었다. 현감 이함(涵)의 아들로 문장과 글씨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진작부터 장흥효의 제자가 되어 검제를 드나들었으나 계향이 시명을 본 것은 그의 나이 스물여섯일 때였다. 약관의 나이에(1612년, 광해군 4년)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광해군의 난잡한 정치를 본 후에 과거를 단념하고 향리로 내려와 글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 흥효는 그를 특별히 아꼈다. 이시명의 장인인 광산김씨 김해는 스승 학봉이 순국했던 임란 때 안동지방 의병장을 맡았던 인물로, 흥효 역시 그를 존경하고 있었다.

어느 날 경당은 시명을 조용히 불러, 계향의 혼처를 논의하였다.

"자네가 내 딸의 혼처를 구해주게"

"제가 감이 어찌 스승님의..."

시명은 차마 생각지도 않은 일이었다. 자신은 계향보다 8살이나 많은데다 전실 광산 김씨의 소생으로 두 아이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풍습으로는 전실 소생 아이가 혼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 시명은 유생들 뒷전에서 총명한 눈을 깜박이던 계향의 모습을 여러 번 마주친 적 있었지만 차마 자신의 배필로 여겨본 적은 없었다.

영해의 나라골은 춘파에서 아주 멀었다. 어머니 권씨는 무남독녀 외딸을 멀리 시집보내는 것이 달갑지 않았으나 둘의 혼인은 빠르게 진행됐다. 계향 또한 시명의 높은 이맛전과 서늘한 눈이 싫지 않았다. 말이 나온 지 열 달 뒤 마침내 계향은 나라골 재령이씨 이시명의 아내가 되어 덩실한 가마를 타고 이틀 낮 이틀 밤을 꼬박 걸어 시집을 갔다. 맑고 고운 반변천의 물이 반짝이며 계향의 곁을 흘렀다.

시명의 아버지인 운학공 함은 기가 막힌 죽음을 거듭 겪고 있는 중이었다. 네 해 전엔 시명의 바로 윗 형 시성이 과거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원인 모를 병으로 요절했다. 계향이 시집가던 해엔 맏아들인 시청이 역시 과거 길에 올랐다가 서른일곱 나이로 병사했다. 게다가 이태 전엔 셋째 며느리인 시명의 정취 광산 김씨가 세상을 떴으며 작년엔 둘째 며느리 무안 박씨가 남편을 따라 곡기를 끊어 순절했다. 두 아들과 두 며느리를 잇달아 잃고 난 함은 하루아침에 머리칼이 하얗게 세어버렸다. 그러나 워낙 국량이 크고 체력도 좋아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아침이면 이전보다 더 꼼꼼하게 상투를 빗어 올리고 단정하게 서안 앞에 앉아 더 형형하게 눈을 부릅떴다.

계향이 시집을 간 충효당(忠孝堂)은 겉은 덩실하게 큰 기와집이었지만 그렇게 속은 텅 비어있었다. 충효당에 첫발을 디디면서 계향은 피부를 눌러오는 통각으로 그 텅빔을 감지했다. 육순을 넘긴 연세에 단 4년 동안 두 아들과 두 며느리를 잃었으니 함에게 무슨 낙이 더 남아있으랴.

"새아가, 너는 우리 집의 보배니라. 너는 내가 존숭하는 경당선생의 핏줄이다. 그러니 우리 집을 정녕 다시 일으킬 수 있으리라." 새 며느리를 맞은 시아버지는 스스로 다짐하듯 무겁게 입을 뗐다.



그림3. 안동장씨가 그린 호랑이 그림

태중 열 달이 생후 10년 공부보다 중하니라

시집오자마자 계향은 전실 광산 김씨가 낳은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여섯날 난 아들의 이름은 상일이었다. 계향을 처음 본 날, 상일은 수줍게 다가와 새어머니에게 안겼다. 계향은 상일의 조그만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한 목숨이 자신에게 온전히 속해오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따뜻한 머리통이 왠지 눈물겨웠다. 상일의 꺼뭇꺼뭇한 눈을 들여다보며 계향은 아이의 마음 속 깊이 자맥질해 들어갔다. "상일아, 내가 이제 네 어미니라. 산남의 맑은 기운이 너에게 다 모여 있구나. 앞으로 너는 내가 힘을 다해 보살필 것이니라." 열아홉 먹은

새댁답지 않게 계향의 음성은 의젓하고 부드러웠다. 두 살 난 딸은 아직 젖먹이였다. 밤에는 품안에 끼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털 같은 아기의 머리칼에 이마를 대고 계향은 밤마다 죽은 아이어미에게 속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내겠다고, 먹이고 입힐 뿐 아니라 제대로 가르칠 것이라고 다짐하곤 했다. 자식 교육은 선비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덕목이었다.

계향이 회임을 한 것은 충효당에 온 지 2년째 되는 해였다. 계향의 회임은 시명의 형제들이 연달아 사망해 부쩍 어둡던 충효당에 환한 빛을 던졌다.

새로 낳을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교육은 태교였다. 선비들은 교육의 핵심을 태교로 여겼다. "태중의 열 달이 출산 후 십년 교육과 맞먹느니라"고 계향은 배웠다. 회임 후 계향은 언행을 조심하고 음식도 지극히 삼갔다.

그해 영해 나라골 어느 집에 떡 벌어진 회갑연이 벌어졌다. 계향은 만삭이었으나 족친과 인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라 시명과 함께 참석했다. 연회는 성대했다. 야외에 차양과 일산이 드리워졌으며, 온갖 산해진미가 상위로 끊임없이 올랐다. 풍악소리가 너른 들을 가득 메웠다. 잔치가 무르익자, 쿵, 하는 북소리와 함께 처용무가 시작 되었다.

처용무의 시작은 각종 귀신들이 등장하는 귀면희(鬼面戱)였다. 귀면들은 안동지역의 소탈한 탈과는 퍽 다른,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귀면의 광대들은 펄쩍펄쩍 재주를 넘으며 멍석 위를 뛰어다녔다. 간혹 화주를 입에 머금고 뿜어내어 불을 토해내기도 하고 날이 선 창검을 목구멍 깊숙이 삼키기도 했다. 좌중에서는 박수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아하, 참 희한하네 그려. 사람이 어찌 저렇게 움직일꼬. 아니 그렇소?"

시명은 잔을 손에 든 채 소리 내어 웃었다. 그러면서 돌아보니 계향이 고개를 가볍게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옛말에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에는 눈으로는 좋지 못한 것은 보지 아니하며 귀로는 바르지 않은 소리는 듣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유희를 계향은 태중의 아이를 위해 외면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은 귀면희로부터 몇 주 뒤의 일이었다. 사내아이였다. 계향은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아들이 없어 평생 가슴 조리며 살던 어머니 권씨를 떠올렸다. 사흘 만에 시명이 산실 문을 열었을 때 계향은 품이 너른 흰 옷에 웃음을 가득 담고 일어나 앉았다.

"어디 새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다." 아이를 안기 전에 그는 먼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진정 수고가 많았소. 장하고 대견하오. 내 당신이 아들을 낳을 줄 알고, 벌써 이름도 생각해 두었다오. 휘일, 빛날 휘자 빼어날 일자 휘일. 우리 아이는 세상을 빛내는 빼어난 인물이 될 것이오."

이어 두해 후 둘째아들 현일이 태어나고 계향은 슬하에 아들 다섯과 딸 둘을 둔다. 시아버지

함의 기원대로 장계향이 재령 이문에 들어온 후 나라골 충효당은 비로소 아이 울음소리와 어른의 웃음소리가 섞여 바깥으로 퍼져나갔다. 집안에 다사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늦은 봄날, 계향은 부엌에서 두 아이들이 어울려 노는 음성을 들으며 마름을 무치고 있었다. 마름은 민물에서 나는 '말'의 일종으로 초를 쳐서 잘 무쳐놓으면 입맛이 돌게 하는 물풀이었다. 계향은 정성스레 말을 씻으면서 신선한 물내를 깊이 들이켰다.

"물에서 자란 것에는 물내가 난다. 모든 나물은 고유의 향취를 지니고 있다. 토양의 기운을 머금고 있으며 대기의 기운을 머금고 있으며 태양의 기운을 머금고 있다. 사람은 음식을 통해 이 흙과 물과 바람과 불의 기운을 몸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기운으로 지금 저 아이들처럼 말을 배우고 걷고 뛰고 생각을 한다!" 말을 씻으면서 계향은 물이든 뭍이든, 흙에서 돋아난 식물의 생명력에 전율했다.

계향은 말을 끓는 물에 가볍게 데쳐내어 물기를 꼭 짜버리고 간장과 식초와 깨소금을 넣어 조물조물 무쳤다. 근래 시아버지 함의 이가 부실해졌으니 씹기 쉽도록 무친 것을 다시 잘게 찢었다. 계향의 손길은 작은 일에도 몹시 정성스러웠다.

"허, 이게 무언고. 말이 아닌가. 우리 마을에는 없는 말이 어디서 났는고?"

"무실어른 댁에서 보내주셨나이다."

상을 물릴 때 보니 말 중발이 깨끗이 비어 있었다. 드문 일이어서 계향은 반갑고 고마웠다.

"허, 그거 참 봄맛이로구나. 모처럼 달게 먹었다. 내 상을 물리고 무실 어른께 감사하는 적바람이나 한 구절 써 보내야겠다."

계향이 숭늉을 들고 다시 갔을 때, 함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화선지 앞에 앉아 있는 품이 마땅한 글귀가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다.

"허허 참, 젊었을 적 같지가 않구나. 적바람으로 몇 글자 적어보려 했더니..."

계향은 아까 말을 씻으며 떠올렸던 글귀가 있었다. 그게 저도 모르게 입 안에서 흘러 나왔다.

수국춘색(水國春色)이 홀등반상(忽登攀上)하니
향미담래(香味談來)에 가득소병(可得蘇炳)이라
봄기운이 홀연히 반상에 올랐으니
그 향기와 담백한 맛이 내 병을 낫게 하는구나

"새아가, 방금 무어라 했는고?"

"아닙니다. 그저, 아까 말을 씻으면서 언뜻 스쳐가는 구절이 있기에 그만..."

계향은 어른 앞에서 시문을 읊조리는 외람된 짓을 해버린 무안함에 얼굴이 발개졌다. 함은 크게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수국춘색이 홀등반상이라, 옳다. 방금 네가 말한 바로 그것이로다. 새아가는 어찌 내 속을 그리 훤히 꿰뚫어 보는고, 내가 하고 싶던 말이 바로 그것인 줄을 어찌 알았던고, 허허허. 기특하고 어여쁘다."

"송구하옵니다, 아버님."

계향이 안채에 들어오고 난 지 한참 후에도 함은 여전히 눈앞에 며느리가 서 있는 듯 다시 말했다.

"너는 과연 우리 집의 보배로다."

모처럼 밥그릇을 깨끗이 비운 그날 이후 충효당 주인 함은 어두운 기색을 완연히 벗었다. 계향의 시가 그의 우울을 거둬가 준 듯했다.

퇴계학맥이 도도하게

1623년 초봄, 계향 나이 스물여섯에 친정 어머니 권씨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충효당에 돌아와서도 계향은 죽은 어머니의 영상이 떠나지 않았다. 흥효는 홀로 배움을 궁구하는 삶을 살았다.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의 삶은 외로웠다. 혈육이라고는 계향 하나밖에 남기지 못했고 자신의 형제들도 없었다. '이제 어머니마저 아니 계신다'는 아버지의 고적함을 생각하면 계향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을 만큼 마음이 헛헛했다.

계향은 며칠간 고민 끝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린다. 친정인 춘파로 돌아가 머물면서 아버지가 후사(後嗣)를 얻을 수 있도록 재취부인을 구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윗동서가 두 명이나 순절하여 충효당에도 살림을 할 며느리의 존재는 절실했다. 그러나 시명은 계향이 편한 잠에 들 수 없을 만큼 아버지를 걱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명은 넌지시 계향에게 말했다. "춘파로 가서 장인어른이 새 장모님을 얻도록 조치해 주고 오시오. 이곳은 내가 맡을 테니 걱정말고." 계향은 남편의 뜻이 고마워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몇 가지 간단한 세간과 이제 막 〈소학〉을 뗀 상일과 글을 읽기 시작한 둘째 휘일과 셋째 현일을 데리고 계향은 친정으로 돌아갔다. 시명은 철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다녀갔다. 함은 안동부로 오는 인편이 있을 때마다 사돈 식구들과 손자들을 위해 굴비며 육포며 김과

새우젓과 소금 등을 바리바리 싸서 보냈다. 계향은 경당선생에게 이웃마을의 혼기 놓친 처녀를 맺어줬고 2년 후엔 꿈에도 그리던 후사를 얻었다. 스물일곱이 되어 처음으로 얻은 동생들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철견(鐵堅)이라 지었다.

"새어머님. 오늘은 아버님께서 즐겨 드시는 음식 몇 가지를 일러 드리겠습니다."

어린 새어머니에게 계향은 요리를 가르쳤다.

"암탉 두 마리와 마른 대구 세 마리를 머리뼈까지 한데 넣어 맹물에 푹 곱니다. 뼈가 녹도록 고아지거든 건져 버리고 그 물에다가 진간장 한 되와 참기름 한되, 후추, 산초를 섞어 싱겁게 간해서 다시 푹 끓입니다. 간이 들거든 묵 하듯이 하여 놋양푼에 담아 식히셔요. 국물이 다 식어 엉기면 삶은 고기를 삐지듯 엷게 삐져서 초간장을 찍어 드시도록 하셔요."

재취를 얻은 후 경당은 10여년을 더 살았고 후취 권씨와의 사이에서 3남 1녀를 두었다. 계향이 다시 충효당으로 돌아온 것은 친정으로 간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돌아와 계향은 상일과 휘일과 현일을 다시 아버지의 문하로 보냈다. 이리하여 영해 재령이씨들은 퇴계에서 학봉을 거쳐 경당으로 이어지는 성리학의 도도한 학맥을 잇는 우뚝한 봉우리가 된다. 계향이 낳은 자식들이 없었다면 퇴계를 잇는 한국성리학은 그쯤에서 맥이 끊겨버렸을지도 모른다. 중년의 계향이 친정에 그토록 오래 머물렀던 것은 아버지에게 계실을 구해드린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더 큰 목적은 장성해가는 아들들을 안동처럼 선비들이 웅집하는 큰 동네에서 공부시키려는 것이었다.

음식 하나에 천하의 도를 모아놓다

1633년 흥효가 돌아간 이후, 세상은 거칠게 요동쳤다. 우선 이듬해 충효당에서 당주인 운악공 이함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채 탈상을 하기도 전인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그 이듬해 봄 삼전도에서의 굴욕적인 강화가 이루어졌다. 시명이 기력을 잃은 것은 그즈음이었다. 인조임금이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하고 말았다는 비보를 듣고, 시명은 주저앉고 말았다. 비천하고 무도한 오랑캐에게 무릎 꿇고 고개 조아린 임금도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시명은 임금의 치욕을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알았다. 시명은 진작에 벼슬길을 접었지만 암만 귀를 막아도 치욕은 점점 가슴 안으로 칼날을 들이밀었다.

시명 부부는 어머니인 진성이씨를 모시고 선친인 운악공의 산소가 있는 영양의 한밭골로 살림을 옮겼다. 그 무렵 시명은 조정에다 절절한 울화와 피토하는 충정을 담은 상소를 올렸다.

임진년 난리에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되며 금수만도 못한 오랑캐인 청나라와 싸워야 한다는 요지의 상소였다. 그러나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명은 모함을 받고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당시 시명은 태연하고 자약하게 포승줄을 받았다. 임금이 오랑캐에게 이마를 조아린 마당에 나 하나의 옥사가 무슨 상관이랴. 자신을 옥에 가둔 사람을 원망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고 되려 달갑게 받아들였다.

시명의 그런 모습은 주변 사람을 감화시켰다. 벼슬을 탐내 상소를 올린 게 아님을 알게 되고 곁에서 보니 과연 결곡하기 짝이 없는 선비임이 드러났다. 머지않아 풀려나 한밭골로 돌아왔으나 시명은 생의 의욕을 잃어버렸다.

계향 역시 의리와 도의가 목숨보다 귀했다. 청나라 오랑캐와 화친하려는 조정의 움직임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은 시명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무조건 절망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라고 있지 않은가. 계향 부부에겐 이미 상일과 휘일 말고도 셋째 현일과 넷째 승일과 다섯째 정일이 있었고 또 여섯째 융일이 갓 태어나 어미의 가슴을 파고들며 젖을 빨고 있었다. 나라의 치욕에 입맛을 잃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이 아이들을 품어 안고 기르고 가르쳐서 힘을 길러야 한다.

"이런 치욕을 당하고도 구차한 목숨을 이어가야 한단 말이오."

계향이 상을 차려오면 시명은 숟가락도 대지 않고 한숨지었다. 겉모양은 눈에 띄게 수척해 갔다. 원래 시명은 많이 먹진 않아도 음식을 달게 드는 편이었다. 반찬을 조금씩 담아 5첩가량 올려도 천천히 깨끗하게 비워 계향을 기껍게 했었다.

작년 가을엔 섭산삼을 맛보더니 "부인, 이건 어떻게 만들었소?" 물었다. 더덕을 두드려 찹쌀가루를 묻혀서 참기름에 지진 후 꿀에 재웠다고 답했더니 이렇게 굵은 더덕은 어디서 났느냐, 이만치 자랄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만드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물었다. 그리고는 "겨울 땅의 매운 맛과 여름 하늘의 서늘한 맛이 뿌리에 가서 쌉쌀하게 맺힌 것을 참깨 기름으로 고소하게 녹여놓았구려. 가히 대지의 향기라 하겠소. 거기에 꽃송이 깊이 숨겨진 꿀을 스미게 만들다니. 당신은 가히 음식에 천하의 도를 모아 놓을 줄 아는 사람이구려."라고 칭찬했었다.

계향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매양 음식을 만질 때마다 시명이 말했던 '천하의 도'를 생각했다. 그러나 요즘 사랑채에서 나온 밥상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을 때가 많았다. 시명이 식사를 잘하지 못하게 된 것은 벌써 보름이 가까웠다. 내색하진 않았지만 계향은 시명의 입맛을 되찾아주기 위해 깊은 궁리를 하고 있었다. 예전 시아버지가 바닷말을 맛본 후 의욕과 활기를 되찾은 것처럼 만들어놓고 싶었다.

어느 날 계향은 계집종 갑생을 데리고 사랑채 밖 연못에서 연근 두 뿌리를 캤다.

"먼저 연근을 물로 매우 씻어야 하느니라." 갑생이 연근을 문질러 씻자 "구멍의 크기가 일정하고 구멍 안에 불순물이 없어야 좋은 연근이니라. 식초물을 한 사발 준비하거라." 이른 후 일부는 기름장에 무치고 일부는 연근 적으로 구웠다.

계향은 시명 앞에 저녁상을 내려놓았다. 소반 위는 단순했다. 무르게 지은 흰밥과 미역을 참기름에 볶아 끓인 국과 연근채와 연근적 뿐이었다. 시명은 놋접시 위에 꽃이 핀 듯 또렷하게 도드라지는 연근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간장과 식초로 무친 연근채 곁에는 밀가루 옷을 입고 노릇하게 부쳐진 연근적이 담겨 있었다.

시명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젓가락으로 연근채 하나를 천천히 집어 들었다. 살짝 데쳐진 연근의 아삭거리는 감촉이 전해졌다. 시명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 내외가 사는 시절은 참 모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기운을 놓아버리면..... 그렇소, 내 당신 뜻을 알겠소."

시명은 계향의 의중이 고스란히 상위에 올라 있음을 느꼈다. 시명은 연근을 오래오래 씹어 삼켰다. 계향은 연근이 기력 회복과 울화 해독에 효험이 있다고 따로 말하지는 않았다.

"내 치욕을 이겨내겠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운을 내겠소 "

연근적을 삼키는 시명에게서 흘러나온 눈물 한 방울이 소반 위로 떨어졌다. 그날 시명은 밥그릇을 반이나 비웠다.

전가보첩을 만들다

기운을 차린 시명이 맨 처음 내린 결단은 이사였다. 좁은 골짜기인 한밭골 아닌 후일을 대비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다 나라골에서 40리 떨어진 양지바르고 아담한 마을을 찾아낸다. 이름이 석보라 했다. 그 새 식구가 많이 늘어 상일이와 큰 딸아이, 휘일과 현일과 숭일과 정일, 융일이와 여식 둘 해서 9 남매나 되었다.

석보로 이사하기 전 휘일은 처를 맞았다. 휘일의 처 박씨는 무의공 박의장의 손녀였다. 순절한 충효당의 둘째 며느리 박씨의 조카뻘이었다. 박씨는 기질이 영민하고 유순하여 시어머니 계향을 깊이 존중하고 사랑했다. 휘일의 혼례는 시명 내외의 우울한 생활에 작은 기쁨이었다. 계향은 며느리에게 이런저런 부엌일을 가르치면서 전에 못 느끼던 기꺼움을 경험하곤 했다.



그림4. 『전가보첩』
안동장씨가 지은 시 두편를 남편인 석계 이시명(1590–1674)이 쓰고
며느리인 무안 박씨가 수를 놓은 것으로 재령 이씨 영해파 문중 유물

석보에서 시명 내외는 숲속에 대를 짓고 모옥을 얽었다. 그리고 인근 산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시명 내외는 이전 어느 때보다 일상이 홀가분해졌다. 물이 맑은 석계(石溪)위에 집을 짓고 시명은 스스로 호를 석계라 지었다. 계향은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며느리들과 함께 생치(生雉:꿩고기)를 다듬어 김치와 짠지를 만들었다. 겨우내 저장해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김치였다. 휘일 처는 생치 김치를 처음 본다 했다.

"생치 김치는 이렇게 만든다, 아가. 간이 든 오이지의 껍질을 벗겨 속을 제거해 버리고, 가늘게 한 치 길이 정도로 도톰도톰하게 썰어라. 삶은 꿩고기도 그 오이지 크기로 썰어서 물과 소금을 알맞게 넣어 나박김치처럼 담가 삭혀서 쓰면 되느니. 또 꿩고기를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간장기름에 볶아 쓰면 생치 짠지가 되는데, 여러 날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점점 맛이 난다. 짠지나 김치를 독에 담을 적에는 천초나 후추로 양념하면 맛이 좋고 오래 두고 먹기에도 좋지."

"어머님, 남쪽 지역에 고초라는 식물이 재배된다고 하옵니다. 천초나 후추보다 기르기가 쉽고 빛이 붉으며 향이 맵고 강하다 합니다."

"나도 산청할매가 친정 길에 가지고 온 것을 본 적이 있느니. 그러나 맛이 매워 음식에 그냥 쓰기는 적합치가 않더구나." 고부는 도란도란 단란했다.

임란이 끝난 후 태어난 계향이니 고추를 모를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요리에 거의 쓰이지 않았다. 그 매운 고추가 훗날 김치에 빠지지 않는 양념이 될 줄을 계향은 짐작하지 못했다. 게다가 계향이 살던 영양은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한 날이 많아 훗날 한반도의 고추 주산지로 자리 잡게 되니 공교로운 일이다.

석보로 이사하면서 시명은 계향이 열 네 댓살 때 쓴 경신음, 소소음, 학발첩 같은 것들을 우연히 발견했다. 시명은 계향의 문재(文才)에 대해서는 따로 들은 바가 없었다. 경당선생의 따님이니 자연히 글을 읽는 환경에서 자랐으며 여사서와 소학을 암송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했지만 시명의 눈앞에 펼쳐진 시는 놀라운 것이었다. 글씨 또한 눈부셨다. 도저히 십대의 아이가 썼다고 믿을 수 없는 경지였다. 커다란 호랑이가 포효하는 그림도 한 점 있었다.

"이건 언제 그렸소?" 시명은 이제 머리가 희끗해진 계향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아이, 민망합니다. 다 없앤 줄 알았더니 그게 춘파 사랑에 남아 있었던 게로군요." 계향은 수줍어했다.

"내가 이제 보니 여간 아닌 큰선비를 반려(伴侶)로 삼고 동행해왔구려" 시명은 기쁘게 말했다.

"이걸 자식들에게 대대로 전합시다. 저희 조상의 어릴 적 솜씨라고 두고두고 보여줍시다."

이후 시명은 부인 계향의 시문을 정성스레 필사하였다. 후일 길쌈과 자수에 능한 며느리 박씨를 시켜 계향이 지은 시로 수를 놓은 서첩을 만들게 했다. 글씨와 글과 수, 세 재능이 어울린 이 물건이 바로 영해 재령 이씨 댁에 오랫동안 전해지는 전가보첩(傳家寶帖)이다.



그림5. 안동장씨가 말년에 살았던 석계고택

시명은 석보의 언덕을 거닐며 시를 지었다. 인근 빈민을 구휼하기 위해 심어놓은 도토리나무가 즐비한 언덕이었다. 삼남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귀해지면 경상도 동쪽의 빈민들은 석보로 몰려들곤 했다. 먹을 것이 부족하기는 석계 댁도 마찬가지였으나 거기엔

그나마 도토리가 있었다. 쓰디쓴 열매였지만 쌀이나 보리를 조금 넣고 죽을 쑤면 허기를 때울 만은 했다. 보릿고개가 한창일 무렵 계향은 지난 가을에 갈무리한 도토리를 꺼내어 집앞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죽을 쒔다. 시아버지 함이 살아있을 때부터 늘 해 오던 일이었다.

시명은 나이 들면서 더욱 세상과 멀어졌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부드러웠으나 대쪽같이 꼿꼿한 성정을 누르지는 못했다. 계향은 그런 시명을 이해하고 존경했다. 그렇지만 시명과는 달리 넉넉하게 세상을 품어 안았다. 어머니란 열두 폭 치마폭으로 잘잘못을 품어 안지 않고서는 자식들을 기를 수가 없다. 시명보다 여덟 살이나 어렸으나 계향은 지아비가 언제든 피로한 등을 기댈 수 있는 다사로운 품이 되어갔다.

동아요리처럼 군자답게

식구들이 여럿이니 집안엔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석보로 이사한 지 몇 해 후 어린 계집종 하나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계향은 종을 안아 안방에 뉘여 두고 손을 따고 코를 빨았다. 계향의 의식 속엔 종과 상전이라는 구분이 없었다. 신분이 엄연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며느리 박씨는 그런 시어미를 보고 놀라 말했다.

"어머님, 병 걸린 종년을 행랑에 맡기시지 않고 어찌 안방에 들이십니까. 행여 역질이라도 걸렸으면 어쩌시려구."

"그렇지 않다, 아가야. 종년도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이다. 내 보기에는 그저 심한 고뿔에 걸렸구나. 몹쓸 병이 아니니 안심해라."

역병은 두려운 것이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한번 역병이 돌면 심한 경우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했다. 역병에 걸린 환자와 대면을 하거나 접촉을 하는 것은 극도로 금기시되었다. 민간에서는 그 치료를 무속적인 의식에 기대는 경향이 컸으나, 굿을 금기하는 반가(班家)에서는 보통 약재를 넣은 음식으로 다스렸다.

계향이 끓인 것은 자라탕이었다. 말발만한 자라를 먼저 머리 베어 피를 내고 끓는 물로 긁어서 허옇게 씻은 후 진국장에 달여 생강, 천초, 후추, 염초장으로 양념해 마신다. 자라탕은 흔한 음식이 아니었다. 계향이 자라탕을 몸소 고아 종에게 숟갈로 떠 넘겨주는 모습은 딸자식을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고 그걸 보는 종복들을 감격하게 했다. 이웃 농가의 어린 여식들이 석계 집안에 종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할 정도였다.

계향의 아들들은 이제 영남 유림 전체가 우러르는 선비가 되어있었다. 첫째 상일은 서른둘에 이미 단산 서원 원장이 되어 집을 떠나 있었다. 둘째 휘일도 일찍 죽은 숙부 시성의 양자로 들어갔다. 휘일은 나이 열셋에 이미 외조부 홍효의 사랑방에 드나들며 맹자와 주역을 연구했다. 휘일은 주역의 선천후천설과 주돈이(周敦頤)의 태극설에 깊은 관심을 보여 도학을 궁구했다. 역학을 비롯해 정주(程朱)의 성리학을 궁구하고 선현들의 인(仁)에 대한 언구들을 모아 구인략(求仁略)이라 이름짓고 암송하였다. 휘일은 젊은 나이였으나 행동거지가 진중하고 침착했다. 휘일의 문명(文名)은 영남 유림들의 주목을 받았고 나이 서른에 이미 퇴계학의 중심인 도산서원의 수장이 되었다.

셋째 현일은 키가 훌쩍 컸고 체구도 좋았다. 그는 마당을 쓸던 하인놈이 잡담을 하면 당장 불러서 혼을 내곤 했다. 크게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하인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

현일은 아버지 시명이 그랬던 것처럼 어린 시절 겪었던 병자호란의 인상이 지워지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도의가 더럽혀진 수치심이었다. 그랬지만 그는 산골에 처박혀 물정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은 싫어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봐서 두 번이나 급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확인이었을 뿐 벼슬에 몸담기 위함이 아니어서 매번 고향으로 돌아왔다. 현일에겐 열여덟에 시집 온 아내 박씨가 있었다. 박씨에게 현일은 두려운 사람이었다. 조선 천지 어디 내놔도 밑지지 않을 선비였으나 아내에겐 결코 자상한 남편이 아니었다.

박씨는 계향과 시명처럼 오순도순 살고 싶었다. 박씨가 들고 간 음식상을 차갑게 물리는 현일을 계향은 여러차례 목격했다. 사내가 제 아내에게 차갑게 구는 것은 어리석음 중에서도 가장 큰 어리석음이 아닌가.

석보 땅에는 동아가 잘 자랐다. 동아는 1년생 넝쿨식물로 박덩이같은 열매를 달았는데 이렇다 할 맛이 없이 덤덤했다. 가을이면 계향은 동아적이나 동아누르미를 상에 올렸다. 그 일을 계향은 일부러 현일의 처 박씨를 데리고 했다.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거든 내가 없더라도 밥상 위에 동아를 자주 올리도록 하여라." 계향은 박씨에게 동아누르미와 동아적 만드는 법을 자세히 일러주면서 내가 죽으면 이런 것을 누가 가르치나, 가만히 근심했다.

저녁상에 동아를 올린 날 계향은 일부러 아들의 밥상머리에 앉았다.

"이 동아를 봐라. 동아는 어떤 밭에서나 쉽게 자란다. 여염집 뒤뜰에서 우연히 씨가 떨어져 자라기도 한다. 너희도 동아요리를 어려서부터 흔하게 먹어왔지 않느냐. 그런데 동아 요리가 값어치가 없더냐? 동아는 구중궁궐의 수라상에도 올라가는 음식이니라. 동아는 산삼이나

전복 같은 귀한 재료와 나란히 오르기도 하고 가장 천한 종년의 밥상에도 올라간다. 실로 군자가 있어 그를 요리에 비한다면 그것은 동아와 같은 거라고 에미는 생각한다."

어머니 계향은 온화하게 말했지만 현일에겐 통렬했다. 현일은 묵묵히 동아적을 씹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네가 비록 글을 잘 짓는다는 명성이 있지만 나는 그보다는 네 아내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어질게 대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더욱 기쁠 것이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거듭하며 계향은 자신이 점점 늙어감을 느꼈다. 늙어간다는 것은 넉넉함이었다. 이제 계향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지 않았다. 계향이 자신을 스스럼없이 드러낸 것은 대략 마흔여덟쯤 되면서 부터였다.

어느 날 손자 하나가 먹은 것을 토해내다 혼절한 일이 생겼다.

의원이 멀리 있는데다 급하였기에 계향은 집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약을 짓기로 했다. 재료가 무엇인지 처방을 써서 아들들에게 구해오라고 시켰다. 출가 전 익힌 적이 있던 의료서적을 기억해본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계향의 처방대로 지은 약을 먹고 한 시간도 안 되어 깨어났다. 그 날 상일과 휘일, 현일 형제가 놀라 어머니께 나란히 석고대죄를 청해왔다.

"소자들이 어리석어 매일 어머니의 훈육을 받으며 이처럼 자랐으나 어머니의 학식이 이토록 높은 줄은 살피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죄가 무겁고 큽니다. 어머니께서는 부디 미욱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깊은 학식을 저희를 위해 풀어놓아주옵소서."

계향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는 아는 체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미 어엿한 선비로 자란 아들들이 진심으로 가르침을 청하자 마음이 움직였다. 아직 막내 운일은 어려 품 안에 있었으나 성숙한 아들들의 그런 모습은 계향의 숨은 선비 기질을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었다. 계향은 자신에게 새로운 시절이 열렸음을 느꼈다. 다시 서책을 펴고 종이와 붓을 가까이 했다. 음식을 만들고 길쌈과 침선을 하는 것만으로 자신을 제한할 게 아니라 내재한 문기를 발휘해도 상관없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딸들아, 너희는 이 배를 타고 오너라

효종 4년(1632년), 석계 집안은 석보에서 더 깊이 들어간 수비산으로 집을 옮겼다. 수비산은 오지 중의 오지였다. 수비산에 자리를 잡던 해 계향 나이 55세였다. 머리는 희었지만 피부가 맑아

나이보다 젊어보였다. 석계와 계향은 나란히 뜨락을 거닐고 곡식을 거두고 경서를 읽고 글씨를 썼다. 둘은 부부라기보다 오누이같고 오랜 친구 같았다. 더 이상 괴롭지도 외롭지도 않았다. 그런 세월을 15여 년쯤 보낸 후 계향의 삶이 가장 완성된 시점은 아마도 일흔쯤이었을 것이다.
일흔셋에 지은 「희우시」를 보면 자족과 풍요가 넘치게 드러나고 있다. 계향의 「희우시」는 안동과 영양 일대의 안방에서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읊어졌다. 일흔 살 노인에서 일곱 살 아이까지 조손이 함께 운율에 맞춰 4백여 년 유쾌하게 암송돼 온 시였다.

〈드물고도 드문 경사 稀又詩〉

사람이 세상에 나서 칠십 세까지 사는 것은 옛날부터 드문 일인데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
칠십 세에 세 살까지 더 사니 드문 중에 또 드문 일이네	칠십가삼희우희(七十加三稀又稀)
드물고도 드문 중에서 사내 아이가 많으니	희우희중다남자(稀又稀中多男子)
드물고도 드문 중에서 드물고도 드문 일이네	희우희중희우희(稀又稀中稀又稀)

희우시를 지은 지 두 해쯤 지났을 때, 계향은 눈이 어두워져 더 이상 늙어지면 글을 쓰거나 읽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했다. 평생을 통해 깨달은 부녀의 도를 물려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딸자식들이 펼쳐볼 최초의 경서를, 술을 담는 법과 음식을 보관하는 법과 귀한 음식을 만드는 법에 대해 며느리와 딸들에게 일러주고 싶은 말이 많았다.
며느리와 딸이 있지만 입으로 말하는 건 사라져버리기 쉽다. 다행히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언문이 있지 않은가. 계향은 한가한 시간이면 화선지를 앞에 두고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기록해나갔다. 붓이 지나갈 때마다 어려운 한자가 아닌 한글의 형태가 드러났다. 때로 등잔불을 돋우고 글을 쓸 때도 있었다. 어슴푸레한 불빛에 비친 계향의 모습은 살아있는 조각처럼 단아했다.

"…셩이편법(석이편법:石耳▩法) 백미 한 말이면 찹쌀 두 되를 함께 담갔다가 가루 만들고, 석이 버섯 한 말을 데운 물에 좋이 씻어 다듬어 섞어라. 예사 팥시루편 같이 안치되 백자(柏子)를 쪼아 켜켜이 놓고 쪄라. 이 떡이 가장한(가장) 별미니라…

… 밀을 사흘 담갔다가 건져 말리어 익게 쪄 더운 데 헤쳐 두고 갈로 한 돗(돗자리) 우희 닥닢으로 더퍼 두면 세다섯날(15일 만)에 누른 오시 오르거든 닙흘 벗기고 볏헤(볕에) 말리어 퍼 버리고 항(항아리)의 너허 믈 부서 사매기를 마은 날(40일) 하면 익나니라.



그림6. 2014년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음식디미방

계향은 흐뭇했다. '딸들아 너희는 이 배를 타고 오너라. 음식을 만드는 일은 경서의 주석보다 확실하고 시법보다 까다롭되 향기로우며 서법보다 고단하되 달디 다노니~'

계향이 생각하는 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었다. '음식 속에 우주의 법이 담겨 있느니. 게다가 이것은 지금 당장 혀끝에 올려 맛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자식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지 않느냐. 네 서방과 빈객들을 아름다이 대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를 도(道)로 실어가주니 이런 경서(經書)는 천하에 둘도 없나니라.'

계향의 작업은 그렇게 몇 날 며칠 계속되어 달포가량 이어졌다. 다 쓰고보니 모두 백마흔여섯 가지, 그중에서 술 담그는 법이 가장 많아 쉰 세 가지나 되었다. 알기 쉽게 면병류, 조과류, 어육류, 채소류, 주류, 식초법으로 분류했다. 노끈으로 책을 맨 후 계향은 겉장에다 〈음식디미방〉이라 썼다. 음식으로 지극한 도에 이르는 방법이란 의미였다. 그리고 맨 뒷장 안쪽에 다시 몇 줄을 덧붙였다.

"이 책을 이렇게 눈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자식들은 각각 베껴가되 책을 가져갈 생각일랑 말며 부디 상치 않게 간수하여 쉬 떨어버리지 말라."

음식디미방이 완성되었을 때 계향은 사랑에 들고 가 시명에게 보였다.

꼼꼼히 음식디미방을 읽어본 시명은 맨 뒷장에 손수 시를 한 수 썼다.

며느리가 시집에 가게 되면 그 사흘째 되는 날 주방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삼일입▨하*(三日入▨下)
그러면 먼저 손을 씻고 국을 지어야 한다.	세수작▨탕(洗手作▨湯)
아직 시어머니의 식성을 알지 못하니	미암고식성(美暗姑食性)
어린 시누이를 먼저 보내서 맛보게 하여라.	선견소부상(先見少婦嘗)

* 원본 판독불가

시명은 이제 머리카락이 완전히 희어진 계향을 은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큰일을 해냈소 부인, 우리 집 안채의 도가 여기 다 담겼구려.” 1672년의 일이었다.

이후 둘은 대명동(현 풍산읍 수곡리)이란 이름을 가진 안동부로 이사해 8년을 살다가 시명이 먼저 타계하고(84세, 1673년) 계향은 석보 융일의 집으로 돌아와 7년을 더 살다 은은히 웃음 지며 숨을 거둔다. 1680년 7월 7일의 일이었다. 그날 밤 까마귀가 놓아 준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날 때 시명과 계향도 하늘 중간 휘황한 별 밭에서 만나 손을 마주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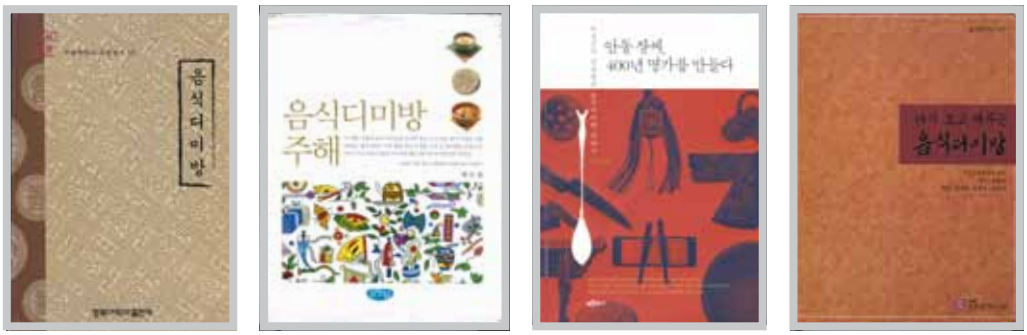


그림7. 음식디미방 관련 저서

에필로그

숙종 27년 (1704년)

현일은 고개를 들어 밖을 보았다.

맑은 여름날이었다. 매미소리가 멀리서 끊임없이 들려왔다. 제생(諸生)이 줄지어 마루에 앉아 경을 읽는 소리가 매미소리를 덮을 정도로 크게 퍼지고 있었다. 낮고 단조로운 울림이 이어졌다.

현일은 이미 백발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희고 긴 눈썹 아래의 눈빛은 젊을 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날카로웠다. 현일은 수차례나 대사헌, 이조참판에 임명되었다. 그때마다 사직 상소를 올렸음에도 결국 관직에 올랐다. 시국은 급변하였다. 갑인예송과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들은 대거 조정에 올랐으며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은 관직을 삭탈당하고 사사됐다. 잠깐 남인들이 승리하는가 싶었지만 희빈 장씨가 죽고 인현황후가 복위하면서 소위 갑술환국이 벌어졌다. 남인의 거물이었던 현일은 귀양길에 올랐다가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 석계처럼 후학을 기르며 살았다. 지금 현일은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온 것을 알았다.

그의 눈앞으로 스승이자 외조부인 경당의 얼굴이 지나갔다. 퇴계에서 학봉, 학봉에서 경당으로 이어지는 남인의 거대한 축(軸). 그것은 기실 퇴계학파의 본간(本幹)이자 중추(中樞)였다. 홍효에게 받은 학문의 맥은 지금 현일을 타고 흐른다. 아버지인 시명의 얼굴도 지나갔다. 대의(大義)라는 무게에 짓눌렸으나 끝까지 지조를 굽히지 않았던 아버지... 죽은 형 휘일의 얼굴도 지나갔다. 그토록 재능 넘치던 아까운 형이었는데. 그리고 맨 나중에 어머니 계향의 얼굴이 지나갔다. 아, 어머니, 세속에 이름을 얻기보다 군자 되기를 힘쓰라고 우리 형제들을 가르치셨던 어머니, 현일은 자신이 썼던 어머니에 관한 기록, 〈안동장씨실기〉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옆으로 누웠다. 그가 가르치는 유생들이 논어를 독송하는 소리가 강물처럼 흘러갔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유붕자원방래 불역낙호, 인부지불온이면 불역군자호〉라!

덧붙임: 장계향은 사후에 셋째 아들 갈암 이현일의 벼슬로 인해 조정으로부터 정부인의 교지를 받는다. 당시 여인으로서는 매우 드물게도 〈계향〉이란 실명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안동대학 민속학과 배영동 교수의 치열한 연구 덕분이었다.



그림8. 경북 영양 두들마을에 있는 [음식디미방 체험관]



그림9. 안동장씨 묘소참배모습

정부인 장계향 年譜

- 1598년 안동 춘파 출생
- 1610년(13세) 학발시, 경신음, 성인음, 소소음 등을 이 무렵 짓다.
- 1615년(18세) 어머니가 장질부사로 몸져눕자 집안 일을 맡다.
- 1616년(19세) 영해 인량리의 재령이씨 운악 이함 선생의 셋째 아들 석계 이시명 선생에게 출가하다.
- 1622년(25세) 친정 모친 권씨부인 별세.
- 1631년(34세) 석계종택을 영양군 석보면 원리동으로 이주.
- 1633년(36세) 친정 부친 경당 선생 별세
- 1634년(37세) 시아버지 이함 선생 별세
- 1642년(45세) 일곱 아들이 세칭 칠현자로 일컬어짐
- 1644년(47세) 시어머니 증정부인 진성이씨 별세.
- 1652년(55세) 병자국치를 슬퍼하며 영양군 수비로 이거.
- 1664년(67세) 신급(벽계 이은), 성급(밀암 이재)에게 학문을 권려하는 오언시를 써주다.
- 1670년(73세) 희우희를 씀. 그 당시의 넉넉하고 평온했던 심정이 드러난다.
- 1672년(75세) 차남 휘일 사망, 조선조 전통음식 요리서인 규곤시의방(음식디미방) 저술.
- 1673년(76세) 안동부 대명동(풍산읍 수곡리)로 이사, 부군 석계 선생 별세(84세).
- 1680년(83세) 7월 7일 영해부 석보에서 별세.
- 1689년 8월 셋째 아들 갈암 이현일(李玄逸)로 인해 정부인 교지 받다.
- 1704년 현일 사망

2013년 도서관 기획대담

08 _ 시대를 앞서간 여성들이 들려주는 삶의 애환과 교훈 · 154

시대를 앞서간 여성들이 들려주는 삶의 애환과 교훈(2013.9.24.)

08



사회 : 이숙인(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패널 : 조은수(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황수연**(홍익대학교 초빙교수), **정해은**(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이숙인 안녕하세요. 올해의 『도서관』 특집 기획에 맞춰 좌담도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과 생각을 좀 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역사 · 문학 · 철학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연구 방법론과 자료를 통해 조선시대 여성을 연구하면서 그녀들과의 소통을 고민해 온 선생님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좌담이니까 여러 선생님들의 지식이나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조선시대 여성들의 일상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에 관한 제도나 이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과부의 개가를 규제하는 법이 있었다든가, 재산이나 제사의 상속과 계승을 남자 위주로 했고 여자는 배제되었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물론 개가 규제법이 신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이나 재산 상속, 신분 계승이 가족내부의 위계와 권력에 따라 좌우되었다는 점 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남녀의 차이가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사회의 정신을 이끌어간 이념은 어땠는가? 여필종부, 삼종지도, 정절 등 온순하고 인내하며 희생적인 여성을 제조하는 데 지식과 권력이 열과 성을 다했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여성들은 제도와 이념이 지시하는 대로만 살았을까? 오늘 이 좌담에서는 제도와 이념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숙인 먼저 조선시대는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긴 기간 동안 여성들의 삶은 아무런 변화 없이 일정했는지, 아니라면 그 변화는 어디서 왔고 어떤 내용이었나요? 역사학을 전공하신 정해은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정해은 조선사회는 17세기 중후반을 기점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습니다. 그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혼인제도가 변화하면서 여성들의 생활이 많이 바뀌고, 이에 따라 상속이나 제사, 입양 등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수반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17세기 중후반이후 전반적으로 양반들의 경제력이 낮아지면서 여성들이 노동현장에 참여하거나 내몰리게 된 것도 중요한 변화로 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지식의 팽창입니다. 여성들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종합되어 이후에 여성 천주교 신자의 출현 등 여성을 둘러싼 변화들이 분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숙인 그 변화의 계기를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정해은 무엇보다 경제적 부분이 크고 거기에 지식의 팽창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전문영역'이라 할 수 있는 살림/가정이라는 개념들도 사실은 17세기 말-18세기 초부터 생겨난 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하다보니까 규모 있는 살림살이가 필요하다는 생활적인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전문화 하면서 살림도 전문화 경향으로 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들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러한 노동, 그 다음 중국 청나라의 안정과 번영 속에서 조선 사람들이 다양한 지식을 접하게 됐으며 이러한 지식들이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성의 일이라고 하는 살림과 노동 이러한 부분들이 여성들의 변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숙인 살림 / 가정 이런 것들은 17세기 이전 사회에서도 여성의 고유 영역이었을 텐데 17-8세기에 두드러졌다고 하는 것은 자료의 발견 때문이 아닐까요? 즉 여성의 일에 대해 서술한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여성의 일이 부각된 것이 아닌지요?

황수연 아무래도 17세기 이후 사족 여성의 행적을 기록한 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록에서 여성의 집안 살림은 주로 '치산(治産)'이라는 용어로 서술됩니다. 여성의 치산에 해당하는 내용은 가정에서 사용할 장과 술 담그기부터 개간하기, 옷 만들기 등 다양한데 실제로 집안 살림에 경제적 보탬이 되는 일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은 제가 요즘 관심을 갖는 것이 여성의 일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저는 여성의 일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는 편이 아니었고, 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친 여성들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조금 바뀌어서 조선의 여성들이 본인의 일, 본인의 성적 정체성을 어떤 형식으로 계속 고민해 나갔는지를 연구자로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은수 보통 유교적인 질서가 조선후기 이후 상속법 등이 바뀌어서 굉장히 강고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성의 지위가 점점 더 제도 속에서 벗어나게 된 그런 맥락하고 같이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여성이 상속의 자격이 없어지면서 자신이 일의 주체로 들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숙인 여성들의 현실 속 일들도 사실은 사회적 이념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닐까요? 여성이 살림에 몰두하게 되고 노동을 담당하는 것도 자아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보다는, 남성들이 선비공부나 과거공부 등을 하게 되고, 남성이 지향하는 가치가 이익보다는 의리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이 생활 부분을 맡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황수연 여성의 치산 활동을 이야기하면서 뒤따라 "부인은 쌀독이 자주 비어도 그러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언급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남편의 과거 급제나 학문 활동을 위해 여성이 가계를 책임지었던 경우가 많았음을 시사 한 부분입니다. 이 시기 여성이 일을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했다기보다 집안 살림을 맡아야할 의무와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보입니다.

이숙인 그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지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해요.

황수연 아시다시피 여성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남성들의 기록물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성이 죽은 다음에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글들은 제문, 묘지명, 행장 등의 한문 산문 양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문은 망자를 잃은 상실의 감정을 담고 있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에서 낭독이 됐고, 듣는 사람이 가족이다 보니까 같이 경험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문학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장이나 묘지명은 생활문의 성격이 강하고 실용적인 글입니다. 행장은 개인의 일대기를 서술한 기록물인데 묘지명을 쓰기 위한 기초 자료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묘지명은 어머니나 딸을 비롯해 친인척에게 써 주거나 혹은 청탁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써줄 때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진 행장을 바탕으로 써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밖에 아버지와 딸, 누나와 남동생, 심지어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 편지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구체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여자가 보낸 편지는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조은수 행장이나 묘지명은 저자가 여성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나요?

황수연 여성이 쓴 행장이나 묘지명은 보지 못했고 딸이나 남편을 대상으로 쓴 제문은 몇 편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저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저자가 쓴 기록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한글 편지 가운데 고산 윤선도의 8대손 종부 광주 이씨가 쓴 장편의 편지글이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종부인 광주 이씨는 자신의 재산 행사권과 입후권을 요구하며 시어머니와 시집 식구를 대상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글에는 자기 해명과 원망, 사죄와 분노, 자학과 자부 등의 상반된

감정을 직설적이고 반복적인 수사법을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말과 방언, 절제되지 않은 감정을 다소 거칠게 쓴 이 글을 통해 여성의 글쓰기의 특징도 볼 수 있습니다.

정해은 실제로 보내진 편지인가요?

황수연 그렇습니다. 결국 광주 이씨의 바람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집안을 일으킨 할머니로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숙인 그런 자료들은 어떻게 찾으셨나요?

황수연 19세기 중반에 쓰인 편지인데 윤씨 집안에 전해오던 것이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현재 '규한록'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숙인 그 이름은 누가 붙인 건가요?

황수연 이 글의 내용을 살피고 해제를 하신 분이 글에 이름을 지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방의 한을 기록한다'는 이름은 다소 소극적인 느낌을 주어 보다 적극적인 제목이 붙여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편지 외에 자결을 앞두고 남긴 유서도 몇 편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작성한 열녀전을 보면 죽음을 굉장히 장렬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들 입장에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고 최후의 심정을 기록한 유서에는 죽음을 앞둔 나약한 인간의 갈등과 두려움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여성의 심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편, 첩과의 갈등이나 노동의 힘듦, 시집살이의 고통 등을 다룬 민요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사족 여성의 삶과 생활을 살펴본 저는 민요를 보면서 도리어 상층 여성들이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요 향유 층의 여성들의 삶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숙인 그러니까 사회 계급에 따라 여성들이 만나는 삶의 조건들이 많이 다르다는 뜻인 거 같은데요. 즉 조선시대 여성이라고 할 때 어떤 신분에 속한 사람인가가 차이를 내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 아닌가요?

정해은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 양반이냐 아니냐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안에서도 편차가 다양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자료도 양반 여성 위주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민요의 경우 그 자료를 비판적이면서도 새롭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저층에서 노동에 치인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도, 단일한 색깔로만 접근하는 것은 여성이 처한 현실을 왜곡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수연 맞아요. 같은 여성이라도 정처와 첩, 양반과 천민, 종부와 개부 등에 따라 생활의 조건과 의무, 지위는 확연히 달랐지요.

이숙인 여성들이 직접 쓴 기록물로 전해 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정해은 역사 쪽에는 '병자일기'라고 남평 조씨가 남긴 일기도 남아있습니다. 여성 문집이나 시집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역사 쪽에서 주목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활을 담아놓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강정일당의 문집에는 남편한테 보낸 척독(尺牘)이라는 짤막한 편지도 들어 있고, 윤지당도 제문이나 상량문, 『논어』나 『맹자』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논평문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강정일당은 남편대신 본인이 직접 쓴 글도 들어 있어서 다양한 여성 문필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찾아볼 수 있는 여성 관련 자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일당에게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은 본인이 서른부터 학문을 시작해서 학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밥도 며칠 채 굶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는데요, 어려운 생활 속에서 도학자적인 학문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수연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이중 언어문자 시대를 지내면서 한문은 남성 지식인들이 쓰고, 한글은 여성이 썼는데요, 한문을 쓰는 여성과 한글을 쓰는 여성들은 생각과 이념자체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 한문을 구사한 여성들의 글에는 가부장 남성의 의식을 재현한 것 같은 글도 있습니다. 남성들은 원작을 한문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여성 독자를 고려해 여성에게는 따로 한글로 번역한 본을 주어 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글이 한문본과 한글본 두 개의 텍스트로 남아 있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정해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규합총서』가 대단히 기념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한자문화권에 있으면서도 다른 여성들을 위해 한글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독자를 위해 한글이라는 문자를 선택했다는 측면이 흥미롭게 보입니다.

조은수 세종 같은 경우 한글 반포 후 한글을 자꾸 써보기 위해서 불교 경전들을 많이 번역하여 이를 언해본으로 만들도록 시켰으며, 이들 경전들은 목판 인쇄를 통해 유포가 됐습니다. 그때 많이 찍었던 경전들이 법화경이나 금강경과 같은 경전들로, 언해본으로 상당히 유통됐다고 합니다. 절에 가면 목판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책을 찍을 수 있고, 승려들이 경전을 찍기 위해서는 돈이 드니까 시주를 권하는 권선문을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시주를 받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또한 신도들이

절에 제공하는 시주 중에서도 이같이 책을 배포하는 즉, 책을 찍기 위한 자금을 대는 법보시가 큰 공양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책을 찍어서 본인이 돌리기도 하지만 사찰의 주지가 공양 받은 돈으로 책을 찍어 신도들한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불교가 공적인 공간에서 표피적으로는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조선 오백여년을 통해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언해본 경전들이 있었고, 그것의 수요자로서의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유통되고 나아가 경전을 통한 교리의 전수 등이 이어져서 불교 전통이 계속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황수연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쓴 사대부의 문집 기록을 보면 여성이 불경언해를 읽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지 않나요? 열녀전을 보면 남편이 아프면 여성 자신이 대신 죽을 것을 하늘에 빌었다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책 중에서는 소학을 읽었다는 기록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열녀전, 논어, 맹자 혹은 통감이나 십구사략 같은 역사서를 읽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조은수 유가경전으로 언해된 것은 맹자가 제일 처음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유가경전이 언해된 것은 불경에 비해 상당히 늦은 시기인 조선 중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경전은 조선 중기까지는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소수 여성의 지식 지평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록으로 남을 만한 사회적 중요성을 가진 여성들이 불경을 보았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기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조선시대 마지막 궁녀라고 해서 미디어에서 유명해진 천일청 상궁의 불교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글들을 보면 불교 경전 이름이나 내용을 언급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독서 목록을 상상해본다면, 유가적 여성 윤리를 가르치는 책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불교 경전들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의 것이 아닌 다양한 사상적, 종교적 신념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정해은 저희가 지금 각자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던 사료들이 쭉 나왔는데요, 저는 기록 중에서 중요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이 여성들이 쓴 여성 수신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여성들을 향해서 무언가 해보라 하는 교훈서도 주목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숙인 누구를 향한 말인가도 조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문제들은 편지글을 통해 얻어 볼 수 있는데, 황수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자에 포획된 상층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솔한 생활상을 얘기하는 것이 편지글이라는 점인데요, 이는 계속 발굴될 것이니까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이숙인 그리고 이데올로기나 제도는 여성들로 하여금 만나도 되고 만나면 안되는 사람들을 규정해놓을 정도로 일거수 일투족을 규제하는 방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을 했을 것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성 특유의 소통방식이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말해주는 자료나 사례들이 있을까요?

정해은 여성들의 소통 방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 사이에서 편지가 상당히 많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조선후기 사회가 가부장제가 강고한 사회라고 하지만 여성들의 외출도 자주 보입니다. 혼례나 과거시험 합격 등 집안에 경사가 있어 잔치를 벌이면 여성들이 멀리서 방문해 머물다 가기도 합니다. 예상보다 친정 나들이나 친인척 나들이도 많은 편이어서 며칠 혹은 한 달 이상 머문 사례도 있어 일상에서 보는 부분은 훨씬 더 상식적인 세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황수연 자료를 보면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출가외인 이데올로기가 크게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출가외인 이데올로기는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와 확산되지 않았을까요?

정해은 그렇죠. 과부가 된 며느리에 대한 호혜와 배려도 상당히 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황수연 퇴계 이황이 둘째 아들이 죽자 둘째 며느리를 재혼시키기 위해 친정으로 보내준 일도 유명하지요. 이때는 이미 과부재가금지가 이야기되던 시기였지요.

조은수 조선시대의 불교, 특히 여성과의 관련 속에서 불교 신행의 실태에 관해 알려주는 주요 자료는 사실 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불교와 관련된 여성에 관한 기록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지요. 특히 남녀가 섞이는 것을 금지하고 부녀의 사찰 출입을 금한 나라의 원칙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되어 문초를 받은 경우라던가, 출가하려는 여성이나 비구니들을 비난하거나 사원혁파를 주장하는 대신들의 제청이나, 그리고 정업원 등의 궁궐 내 불당에서의 불교 행사를 비판하는 상소들은 무수히 나옵니다. 특히 출가 여승에 대한 이들의 혐오적 기술은 유교적 사회에서 일탈적 여성에 대한 평가가 어떤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지를 요사이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느낌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구니는 유교적 가족 질서 속에 머물지 않고 질서와 규범에서 일탈한 자 아니겠습니까. 상소에서는, "승니의 도성 출입을 금단한 것은 음란하고 간특함을 징계하여 민속을 바로잡으려는 것인데, 부녀로서 지아비를 배반하고 주인을 배반한 자와 일찍 과부가 되어 실행(失行)한 무리가 앞을 다투어 밀려들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면서, 배반, 실행, 간음, 간사 등의 어휘를 써서 비구니를 묘사합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와 불교에 대한 혐오가 비구니에게 증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숙인 제도와 이념이 포획하려고 하지만 벗어나려고 했던 노력들, 갈등과 타협, 착종의 사례들이 있을까요?

정해은 숙종 때 사족 여성이 돈을 주조하다가 발각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를 보면 양반 여성이라도 생존을 위해 나라에서 금지한 행위를 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황수연 17세기 후반 청상과부였던 홍씨 부인이 사통하여 자식을 낳아 버렸다는 모함을 시집 식구들에게 받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시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함은 홍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시동생 부부가 시아버지를 부추겨 이루어졌는데 홍씨는 모함을 받으면 바로 자결할 것이라는 주위의 기대와 달리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긴 시간 소송에 응합니다. 판결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홍씨는 남성 추관에게 자신의 젖과 배를 직접 보임으로써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이로써 사건이 해결되자 마침내 자결을 합니다. 기록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건으로 시동생 및 시아버지는 사형을 당하고 시집은 풍비박산이 됩니다. 후대에 홍씨 집안에서 홍씨에게 열녀문이 내려지도록 했고 이 여성을 위한 열녀전도 지어졌지만 이 사건은 정절 이데올로기(열 이데올로기)와 효 이데올로기가 착종된 대표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정해은 1602년에 양인 남성 박의훤이 남겨놓은 분재기(分財記)가 있습니다. 박의훤은 일생동안 다섯 명의 여성하고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첫째 부인부터 넷째 부인까지 모두 자식을 낳고도 도망가거나 다른 남성과 눈이 맞아 떠나버렸으나, 다섯 번째 부인만은 40여 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저는 양반여성들에게 친정이 중요한 백그라운드 역할을 했다면, 민요를 향유하던 여성들의 경우 다른 남성들과 빈번한 혼인관계가 생활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연산군의 연인 장록수도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연산군을 만나기 전에 집이 가난해 몸을 팔아 생활했고, 남편도 여러 번 바꿨다고 합니다. 양인 여성들이 집에서 벗어났을 때에 생활을 유지하는 방편 중 하나가 이처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생활을 해결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숙인 하층 여성들은 정조를 지킨다기보다 생존의 문제가 더 절박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젊은 과부는 주변에서 계속 다시 혼인을 시켜주려 하고 주변의 음해나 소문과 같은 세상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어서 피곤한 문제들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안정적인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해은 추석이 지난 요즘 명절이 사회적으로 남성이나 여성들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몇 년 전 경기도 종부 한 분을 만나 구술하여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6.25때 학도병으로 나갔다가 실종되는 바람에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면서 종가집 종부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 분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놀란 내용 중 하나가 설부터 정월대보름 사이에 여성들이 마음껏 놀았다는 이야기였어요. 본인이 유일하게 마음 놓고 놀고 휴식한 때가 정월대보름 그 때까지라는 겁니다. 이때는 여성들을 간섭하지 않는 기간으로 집안 어른들도 여성들을 노터치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에게도 숨을 쉴 수 있는 사회 또는 가족안의 기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단순히 6.25 직후가 아니라 어떤 전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조은수 남녀부동석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찰에 가는 것이 금지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에 가는 여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자기 안채에서는 남편의 눈도 있고 시종의 눈도 있고 하니 사찰이라고 하는 제3의 공간에서 다른 여성들과 교우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숙인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는 유교사회이다, 여성들의 삶도 전적으로 유교적 지식과 문화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특히 불교와 여성의 강한 연대가 조선초기부터 정치적인 쟁점이 되었는데, 불교와 여성, 불교를 통한 여성들의 삶의 실상들을 알고 싶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을 알려면 유교만으로는 알 수 없고 불교나 다른 무속 등 다양한 면을 살펴봐야한다고 봅니다.

조은수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생과 사에 직접적으로 대면할 기회가 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인생의 길흉화복의 순간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을 할 때 죽은 가족의 천도를 기원하고 불보살에게 가족의 복을 비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고, 가정이란 그들의 삶의 의미가 실현되는 공간이었기에 가족을 위한 기복은 여성이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인 신앙행위였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집안이 망하거나 하면 결국 여자에게 그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성은 그러한 가족의 안위에 대한 책임의 주체로서 가족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고, 가족에게 복이 오도록 자기가 좋은 행동을 쌓아서 선업을 닦아 복을 받고 내세에서의 안위를 도모하는 등은 대리적 종교 행위의 형태를 띤 불교 신행의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민중 신앙과 결합된 형태라 하더라도요

정해은 조선후기 선산에 살던 노상추라는 무관이 남긴 일기가 있는데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에 걸쳐서 68년간 관직 생활과 향촌생활 등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현재 네 책으로 나왔는데요, 이를 보면서 굉장히 놀란 점은 사찰이라는 것이 큰 사찰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조그만 절들은 사실 양반의 원당으로 있으면서 양반의 산소이자 묘역을 수호하는 일에 종사했어요. 양반들은 절을 수시로 왕래했구요. 하지만 여성들을 데리고 간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여성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차단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의 불교신앙이라고 했을 때 구체성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상추는 누가 어디에 가는지 매우 꼼꼼하게 기록을 다 했는데요, 본인 집안 식구나 친인척 여성들이 절에 갔다는 기록이 한 건도 없습니다.

조은수 부녀가 중과 같이 절에 올라가면 실절(失節)한 것으로 논죄한다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법률적 기제에 의해 여성들의 사찰출입과 신앙 행위에의 참가는 통제되거나 금기시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에 가는 여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저런 기록에 나옵니다. 여성들이 원찰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해은 제가 봤을 때 일부 스님들을 제외하고 스님들이 정신적인 부분, 예컨대 신앙심을 이끌만한 구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성들이 스님들을 정신적으로 의지하거나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찰과 여성의 관계 또는 여성의 신앙 형태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좋겠어요.

조은수 사찰에 그림을 시주 한다는 등 이런 기록들을 보면 여자가 방문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원찰의 경우 부속사찰이라 굉장히 작고 그 외에 다른 큰 사찰들은 시주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탱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절에 기와를 올리거나 불상을 세웠다는 기록을 보면 여성들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왕래가 있었을 것이고, 외면적인 이유는 자기 부모들의 명복을 비는 식으로 불교신앙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조은수 유교적인 사회질서 속에서 여성들이 대안적인 공간으로서 정신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잠깐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고, 아니면 피신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사찰들이 했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정책은 불교가 인심을 얻는 것을 막으려고 주의를 늦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누군가가 시주를 하였을 텐데 그런 재정적 후원의 주체로서 여성을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사찰의 시주 기록이나 절에 보관된 불화의 배면을 보면 여성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꼭 여자가 방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성이 사찰 후원의 주요 세력이라는 것을 유추하게 합니다. 절에 기와를 올리거나 불상을 세웠다는 기록을 보면 여성들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왕래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특히 지장보살도나 시왕도 등과 같이 죽음과 내세, 극락 등을 묘사하는 불화들이 많이 만들어 졌는데 이들 그림은 돌아가신 부모와 가족이 내세에서 극락에 나기를 발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효(孝)라는 유교적 이념과 불교적 신행이 결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회 분위기에서 종교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나타난 일종의 새로운 신앙 형태라 생각됩니다.

이숙인 가족을 위한 기복적 신앙 활동이 아닌 求道라고 하는 종교 본래적인 의미에 충실하려고 했던 여성들도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요.

조은수 그런 여성이 바로 출가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비구니들은 유교적 가부장제에 따른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었으며, 또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래도 조선 시대 내내 존재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록에 나타나는 불교 여성에 대한 부정적 기록들은 당시 사회의 불교관 뿐만 아니라 조선 사회의 여성관을 알려주는 증거이며, 조선조 내내 이런 사건 기록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교 수행의 전통이 계속 존재하였다는 것을 강력히 반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기록이 남아있는 조선시대 말엽에 도를 구하는 비구니 스님들과 수행하는 여자 선사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조선 시대 수행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황수연 다산 정약용의 시에, 딸을 속여 시집을 보냈는데 막상 시집가서 보니 남편이 늙고 앞을 보지 못하자 젊은 딸은 울면서 도망을 가 중이 되었다는 시가 있어요. 민요에서도 현실적 해결책이 없었던 많은 여성들이 죽지 않으면 중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조은수 꼭 사찰로서의 규모를 갖추었다기보다 여자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세조실록을 보면 자기 남편이 죽어서 발인하는 날 도망쳐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된 여인이 나오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정업원 주지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록에 나와 있는 불교 여성들은 굉장히 나쁜 여성들로 기록돼있죠?

황수연 어느 시대나 기질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욕망, 뜻을 실현하기 위해 그 틈에서 벗어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숙인 유교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선언하면서 불교를 억압하는 논리나 정치 이데올로기도 대단했죠?

조은수 왕은 민심을 봐야하니까. 사람들을 너무 억압할 수 없었겠죠. 수륙제를 왕실에서

주관해서 매년 시행하였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교 신앙은 여성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승려들과 교류하거나 사찰을 순례하고 참배한 기록들도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사대부 집 아들인 율곡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금강산 유점사로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인생무상을 뼛속 깊이 느낀 젊은 청년이 절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길 중에서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나 시댁의 학대로 도망가서 절에 숨어있는 여자들 이런 얘기도 많이 내려오죠.

이숙인 사찰이 피로에 지친 여성들의 힐링 공간이 된거네요.

정해은 왕실여성의 경우 사찰이 왕실여성들 특히 더 이상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과부가 된 여성들의 중요한 해방구였다는 지적도 있어요.

조은수 왕실의 여인들 사이에서 불교는 지속적으로 신행되고 있었지요. 조선 중기까지 왕실의 궁인들은 스스로 불상을 모시고 남은 생애를 불교에 귀의하여 비구니가 되기도 하였으니 궁궐에는 자연히 불당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업원이 연산군 이후 없어졌지만 왕실 여성의 사찰로서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었고 왕실 여성들의 불교 신행을 막지 못했던 것은 자신을 키워준 여성에 대해 애틋한 심정 때문에라도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왕의 후궁들이 노년에 불도를 닦거나 선왕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불교 의식을 한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성종실록에 나오는 인수대비와 대신들 간의 갈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 왕이 대비가 하는 일이며 또 치도에 그리 해로울 것도 없으니 그냥 두자고 하니, 궁중에서 부처 섬기는 것을 어느 때에 그치게 하겠는가?"고 대신들이 한탄하는 대목이 실록에 나오지요. 조선시대 불교가 어떻게 살아남았나 보면 결국은 여자들이 500년 조선 불교를 유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숙인 유교사회라 하는 조선시대에서 남성중심의 가족 구조와 이념은 사실 여성을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 점에서 불교는 이른 바 숨통을 터주는 그런 위안의 공간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요. 다시 말해 조선시대 여성을 논하려면 유교와 불교의 긴장과 협상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조은수 소위말해서 대안적인 공간을 제공해 줬다는 것. 어느 사회나 이런 공간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숙인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황수연 무엇보다 여성의 삶과 생활에 대한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기마다 그리고 신분과 그들이 놓인 생활의 조건에 따라 여성의 삶은 달랐습니다. 공식적인 기록물은 물론 산재해있는 기록들을 수집하여 여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여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은 새천년이 오기 직전에 어느 미래학자는 21세기 화두로 환경과 여성을 꼽았어요. 여성에 관한 한 전 요즘 이 말을 실감하고 있어요. 예컨대, 여러 곳에서 진행하는 문화강좌를 보면 조선시대 여성에 관한 주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요.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오갈 수도 있지만, 전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이 매우 귀중하게 느껴집니다. 여성사에 대한 저변의 확대야말로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연구를 가치 있는 작업으로 만드는 토대라고 봐요. 이 안에서 창의적인 연구와 논쟁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숙종 대에 이혼 위기에 처한 신태영이라는 여성을 발굴한 적이 있는데요, 이 연구 경험을 통해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각종 법전 등 관찬 사료에서 조선의 여성들을 더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여성들이 관찬 기록에 남은 이유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여성들의 사례를 통해 그 사회가 지향한 가치관을 거꾸로 읽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직면해있던 현실도 추적할 수 있지요. 그다지 자료가 없을 거라고 판단한 관찬사료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조은수 가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불교의 경우 한국불교사상가들이 쓴 글을 다 모아놓은 한국불교전서가 총 14권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필자들은 스님이지만 비구니 스님이나 일반 여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이 저자가 될 수 없는 사회라 한국불교전서에서는 여성들이 쓴 글은 없지만, 여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깨달음에 대한 지향, 자기의 발견 등을 노래하는 가사들은 있습니다. 이들 깨달음의 노래, 즉 오도송 중 어떤 것들은 여성들이 작가이거나 아니면 그들을 대신해서 쓰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숙인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선시대 여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현대를 사는 우리 여성들에게 조선 여성의 삶이 주는 지혜랄지 경험이랄지 그런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은수 저는 조선시대의 불교 여성들의 삶을 접할수록 그들의 삶에 대해 좀 더 가까이 가보고 싶은 욕구를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존재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장과 결혼, 그리고 가족을 돌봄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의식이 성장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가한 여성인 비구니들의 경우 1900년대 이후의 인물들의 경우 그들의 삶에 대한 회상과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 그들의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승들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출가할 때는 종교적인 삶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겠고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서, 수행자로서, 내면적 갈등을 겪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애쓰던 그들의 용기와 삶에 대한 진지함에서 여성의 가치와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황수연 저는 현대 여성학을 비롯한 여성 관련 학문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조선 시대 여성에 주목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주의적 시각은 기존의 자료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진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주의적 이론은 아직 성립되지 않아 여전히 '토대'와 '이론'의 불일치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우리의 조건과 정서에 맞는 이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해은 올해 초에 타계한 미국의 역사학자 거다 러너(Gerda Lerner)는 "여성의 역사는 여성의 삶을 변화시킨다. 여성의 과거 경험에 대한 짧은 접촉이더라도 여성들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역사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존이 절박하여 역사를 돌볼 여유가 없는 거죠. 우리 여성도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현재와 가까운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오늘날 나의 삶과 시대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숙인 조선시대 여성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여성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이자 매력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좌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도 연구현황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09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기초연구

- 연구책임자 : 양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참여연구원 : 곽철완(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노영희(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규환(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최성락(동양미래대학 경영학부 교수)
  박종웅(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도서관 대내외 환경분석 및 미래 도서관 정책 방향 제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추진 성과 분석, 5개년(2014~2018) 중장기 도서관정책 목표 및 방향 제시 등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배경재(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참여연구원 : 차성종(숭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교수)
  최재황(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정수(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관장)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현황 분석, 타 관종별 도서구입 현황 조사, 해외 주요도서관 도서구입 프로세스 조사 · 분석,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방식 개선방안 제시 등

도서관법령 개정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손　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원 : 이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지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종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세훈(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도서관 기준 현황 분석,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관련 법령 마련, 도서관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외 선준국 제도 및 법령 사례 연구 등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컨설팅 지원

- 연구책임자 : 임호균(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 참여연구원 : 차미경(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성재(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현태(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송경진(포럼문화와도서관 사무국장)
  정성욱(호서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고재민(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교수)
  김수영(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신규 건립 · 리모델링 예정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계 · 시공 ·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개정 발간 및 배포

도서관 정보화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 연구책임자 : 김용상(채움씨엔아이 이사)
- 공동연구자 : 이근희(채움씨엔아이 과장)
  하원영(채움씨엔아이 연구원)

도서관 회원증 규격, 회원증 및 도서의 전자태그(RFID) 저장 정보 항목과 저장 주소에 대한 기준,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간 상호호환성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 및 속성 등에 필요한 기준, 상이한 도서관 시스템간 도서관 정보의 공유와 상호 교환을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 및 프로토콜 제시 등

201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 연구책임자 : 백원근(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자 : 윤종욱(경기대학교 응용정보통계학과 교수)
  남춘호(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안찬수(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용훈(서울도서관 관장)

우리나라 성인(대학생 포함) 및 초 · 중 · 고등학생의 일반적인 독서환경, 독서 매체 이용 실태, 독서 정보원, 독서율 및 독서량, 독서 선호 분야, 도서관 이용실태, 독서정책 관련 의견 조사 등

09

2013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 연구책임자 : 백원근(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자 : 문보배(한국출판연구소 연구원)

2012년도 독서문화진흥 추진실적 및 2013년 시행계획 등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사업 성과 분석 · 평가 연구

- 연구책임자 : 정광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조현성(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임학순(카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오양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석좌 연구위원)
- 보조연구원 : 여현경, 하미연(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사업에 대한 심층적 · 체계적인 분석 · 평가를 통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대상은 국립중앙도서관 주요 업무인 자료의 수집 · 제공 · 보존 관리, 국가 서지, 사서연수지원 등이며, 그 범위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포괄한다. 연구는 문헌조사, 정책고객 조사, 담당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도서관 사업에 대한 효율성 ·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핵심성공요인 및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서관의 성과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개방을 위한 고품질화 연구

- 연구책임자 : 정연경(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 백지원(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 보조연구원 : 최윤경(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박사과정)

학문의 분화와 융합에 따른 새로운 용어의 등장과 기존 개념의 세분 및 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주제명의 갱신 필요성이 대두되고, 링크드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제명표목표의 개방과 공유 요구 또한 증대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제명표목표의 효과적인 관리 및 공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이 높은 시스템 개발을 제안한다.

국제목록 동향을 반영한 「KORMARC-전거통제용」 개정(안) 연구

- 연구책임자 : 노지현(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 이미화(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조교수)
  이윤희(국민대학교도서관 과장)
- 보조연구원 : 최예진(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임정주(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저작의 집중과 탐색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전거DB는 도서관 뿐 아니라 박물관, 기록관, 미술관 등 그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거제어 관련 국제목록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의 환경에 적합한 전거통제용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표준화된 전거레코드 구축에 기여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사업 성과분석 · 평가 연구

- 연구책임자 : 곽승진(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 박옥남(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정택(배제대학교도서관 정보자료과 계장)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와 주요 사업내용 및 성과지표 등의 심층적 · 체계적인 분석 · 평가를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환류를 강화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성과제고의 방향을 모색한다.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 개발 연구

- 연구책임자 : 정경희(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
- 공동연구원 : 최상희(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이호신(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
- 보조연구원 : 김혜원(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도서관 업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질의 · 응답 형식으로 해설하여 사서들이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로 개발한 연구이다. 도서관 업무와 관련한 질문은 관련도서, 웹사이트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고, 최종 156건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질문에 대하여 국내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또한 보고서 말미에 주제색인과 키워드 색인을 추가하여 질의 · 응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09

국내 고문헌 소장실태 기초조사 및 수집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박문열(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 이혜은(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고서전문원)
- 보조연구원 : 민경록(청주기적의도서관 팀장)
- 보 조 원 : 송찬미, 강희연(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

국내 주요 도서관 · 박물관 · 기관 · 문중 · 개인 등의 장서목록을 중심으로한 국내 고문헌 소장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근거로 국내에 소장된 고문헌의 대체적인 수량을 추정 · 파악하고,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소장현황과 국내 고문헌 소장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향후 고문헌 수집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보광장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연구

- 책임연구원 : 장윤금(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 윤은하(UCLA 문헌정보학 박사)
  이지수(University of North Texas 정보학 박사)
- 보조연구원 : 이혜영(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전경선(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2009년 5월 개관한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의 목표 및 이행현황 점검을 통한 발전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로서, 서비스공간별 정보이용행태와 정보요구 분석결과를 통해 제시된 정보광장의 공간활용패턴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광장 공간 재구성 방안과 향후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모델 등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회색문헌 출판현황 조사 및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

- 책임연구원 : 이지연(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보조연구원 : 전정현(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감미아(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이혜윤(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
  송예슬(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이향이(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대상이 되는 회색문헌에 대해, 국내외 회색문헌 수집 및 관리 동향과 국내 회색문헌 출판현황에 대한 조사 · 분석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회색문헌 수집을 개선할 수 있도록 회색문헌 수집방안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고, 매체유형별, 자료수준별 회색문헌의 수집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회색문헌 수집시스템의 합리적인 모형을 제안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의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 연구책임자 : 변우열(공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 송기호(공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보조연구원 : 소병문(우신고등학교 사서교사)
  최희주(서천중학교 사서교사)

국내 · 외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운영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 모델로 활용, 도서관에서 어린이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청소년 독서진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자아 형성 및 창의성, 정보 활용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한다.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의 성과 측정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정연경(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 임여주(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 보조연구원 : 최윤경(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박열매(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고찰하고 성과 측정 도구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도서관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의 기능 및 효과를 조사하였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표본대상으로 삼아 그 중에서 지방권역별로 10개관을 선정하여 조사대상 도서관의 프로그램에 참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3차(사전 · 중간 · 사후조사)에 걸쳐 설문지, 검사지, 관찰 및 면담으로 개발된 성과 측정 도구를 적용하였다.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성과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독서프로그램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고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였다.

0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

- 연구책임자 : 윤희윤(한국도서관협회장)
- 공동연구원 : 장덕현(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연옥(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연구보조원 : 김은혜(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
  구본진(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국내외 어린이 · 청소년 장서개발관련 문헌조사 및 유관기관의 장서개발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 제시

국립장애인도서관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모델 개발

- 연구책임자 : 강창욱(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공동연구원 : 김혜주(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원성옥(한국복지대학 수화통역학과 교수)
  허　일(한국복지대학 수화통역학과 교수)

광역자치단체 내 거점도서관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청각장애인들의 현황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연계모델에 따른 거점도서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및 교육 · 문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시설, 보조기기, 자료, 지원 인력,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는 청각장애인 거점도서관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2013년 도서관장애인서비스 현황 조사

- 연구책임자 : 김진양((주)유니온리서치 부사장)
- 공동연구원 : 조좌흠((주)유니온리서치 과장)
  임용옥((주)유니온리서치 이사)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청각장애인복지관 등 전국 876개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도서관 기본 정보, 소장 자료 현황, 시설 및 설비 현황, 인적 자원 현황, 예산 현황, 이용 및 이용자 현황 등 장애인서비스 제반 사항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과거 대비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도서관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

- 연구책임자 : 윤희윤(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 김신영(숭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재민(대구 안심공공도서관 사서)
  김일영(경북도립고령공공도서관 사서)
  김경희(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이하 대체자료)의 수집(제작 포함), 정리, 보존 및 장서개발 실무기능 제고를 위한 지침서를 필요로 하여 이에 맞는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국내외에서 출판 · 제작되는 대체자료의 체계적 수집 · 관리 및 장애인을 위한 맞춤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을 수립 · 실행하도록 방안을 제언한다.

발달장애인용 쉬운 책(easy-to-read book) 개발

- 연구책임자 : 손지영(청주대학교 교직과 교수)
- 공동연구원 : 이정은(대전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서선진(건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정소라(서울대학교 특수교육 전공)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문해기술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용 쉬운 책(easy-to-read book)'의 제작 지침을 개발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견본을 제작한 후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평가하고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발달장애 아동과 성인을 위한 '발달장애인용 쉬운 책'을 제작한다.

도서관

통권 제 387 호
2013

비매품

기획 · 편집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인 쇄 | 2013년 12월 20일

발 행 | 2013년 12월 21일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전 화 | (02)590-0799

팩 스 | (02)590-0502

웹사이트주소 | http://www.nl.go.kr

인쇄처 | (주)계문사

DOSEOGWAN

vol. 387
December 2013

Publishing office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anpo-daero 201, Seocho-gu, Seoul, Korea
Tel | (02)590-0799 Fax | (02)590-0502